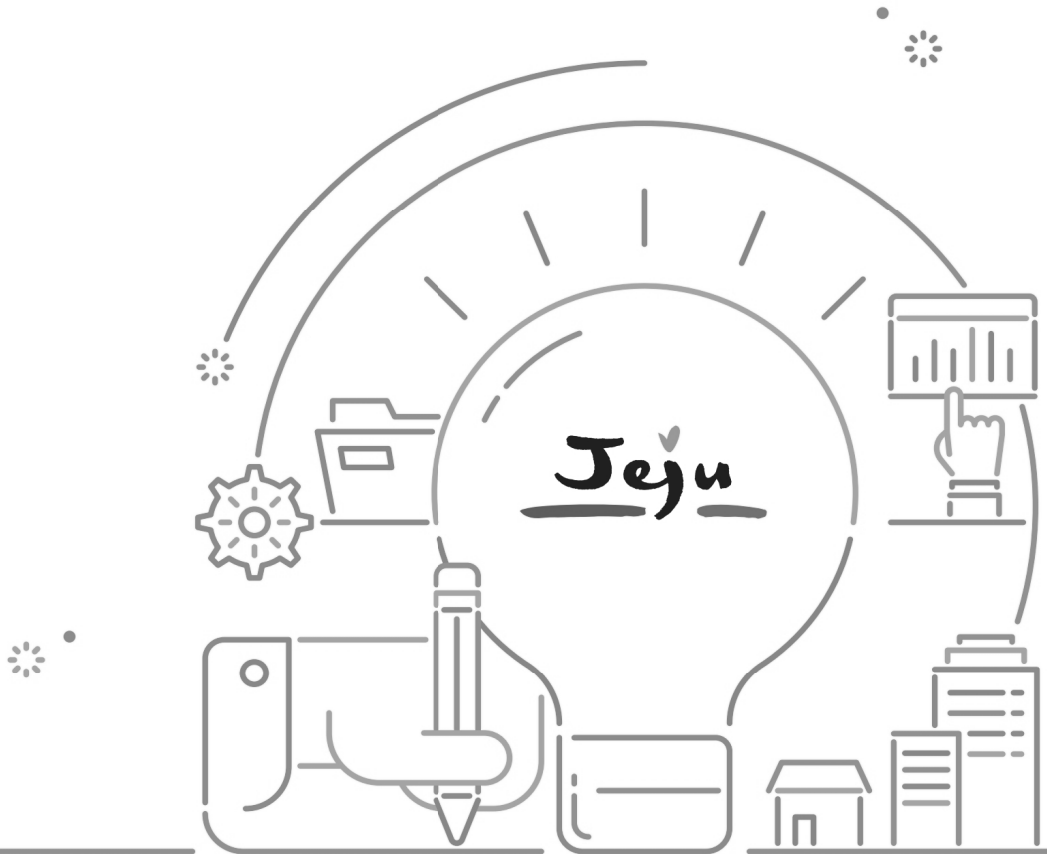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진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봉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핵심생산연령인구의 비중 감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중심으로 순이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의 비중이 2014년 36.8%에서 2018년 35.9%로 감소하였음
- 순이동인구의 측면에서 20~40대 전출인구가 2014년 13,582명에서 2018년 18,473명으로 약 5,000명 증가하였음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필요

- 최근 5년 간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인구 중에서 서울과 경기에서의 전입 비중이 전체의 58%를 차지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하는 인구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인구정책이 필요함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서울 및 수도권 내 50만 이상 시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주이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근거하여 성, 연령, 지역에 맞춰 할당한 후 무작위추출을 통해 2,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웹(web)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 설문내용은 응답자 특성,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 등을 포함하고자 함

□ 핵심생산연령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중의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생산연령인구의 비중 감소는 자연인구 감소가 아닌 사회적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설문조사 분석결과

- 설문분석 결과 일자리·경제활동 분야가 모든 연령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정책분야로 나타났음
 - 첫째,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는 5.93점으로 교통·생활편의 분야(6.10점)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둘째, 교통·생활편의 분야는 연령대별로 이주 영향정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반면,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는 유의확률 5% 이내에서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IPA)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만을 제시하고 있음

-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추진과제에 적합한 정책 분야를 선정하였음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20대는 교통·생활편의 분야(6.21점)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에 따라 2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교통·생활편의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출산·보육 분야의 경우 30대가 5.56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에 따라 3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출산·보육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교육 분야의 경우 40대가 5.79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에 따라 4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유입 방안

- 이 연구는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① 추진과제의 이원화, ② 관계·교류인구의 확대, ③ 지역 특성의 반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첫째,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모든 핵심생산연령인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추진과제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 둘째,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주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고자 함
 - 셋째,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주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
- 모든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추진과제로는 ① 스타트업 지원(지역사회 문제 해결 챌린지), ② 육아연계형 위성사무실 지원, ③ 제주 워킹홀

리데이 프로그램 도입, ④ 단일 수출전문기업 설립을 통한 제주 농가 경쟁력 강화, ⑤ 제주사랑투자 프로젝트 도입을 제시하였음

- 연령대별 맞춤형 추진과제로는 ① 출·퇴근 시간대 차량공유 서비스 지원(20대), ②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30대), ③ 제주형 특성화 학교 확대·강화(40대)를 제시하였음
- 이와 함께 기타 과제로 전문직 연구인력을 활용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음

CONTENT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제2장 인구 이주 영향요인 및 주요 인구정책	9
제1절 이주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
1. 이주의 유형 및 영향요인	11
2. 이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7
3. 선행연구 검토	18
제2절 국내외 주요 인구정책	21
1. 국내 인구정책	21
2. 해외 인구정책	37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	54
1. 인구정책 추진 배경	54
2. 인구정책 추진 방안	55
3. 인구정책 시행계획	58

CONTENTS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71
제1절 인구 현황	73
1. 총인구 현황	73
2. 연령별 인구 현황	74
3. 지역별 인구 현황	79
제2절 인구이동 현황	82
1. 자연적 증가 현황	82
2. 사회적 증가 현황	83
3. 전입·전출인구 현황	86
제4장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이주의향 분석	97
제1절 설문분석 개요	99
1. 조사 개요	99
2. 응답자 특성	100
제2절 이주의향에 관한 인식 분석	105
1. 삶의 질에 관한 인식	105
2.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인식	118
3. 이주의향에 관한 인식	151
4. 중요도-성과(IPA) 분석	170
제3절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주 영향요인 분석	189
1. 응답자 특성과 이주의향	189
2. 제주 거주경험 및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들의 이주 영향요인	195

제4절 이주민 대상 FGI 결과	198
1. FGI 개요	198
2. FGI 결과	199
제5절 분석결과 종합	206
1.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206
2.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	208
3. 학력에 따른 분석결과	210
4.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결과	212
제5장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유입 방안	215
제1절 기본방향	217
1. 추진과제의 이원화(two-track)	217
2. 관계·교류인구의 확대	219
3. 지역 특성의 반영	220
제2절 추진과제	221
1. 핵심 추진과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	221
2. 연령대별 맞춤형 추진과제	229
3. 기타: 전문직 연구인력을 활용한 대학 경쟁력 강화	237

CONTENTS

표목차	[표 2-1] 이주 영향요인	15
	[표 2-2] 국내 주요 인구정책	37
	[표 2-3] 외국의 인구정책	53
	[표 2-4]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 혁신사업	59
	[표 2-5]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 주거비 지원 사업	59
	[표 2-6]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 취·창업 지원 사업	60
	[표 2-7]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혁신사업	62
	[표 2-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가족친화적 인프라 구축	63
	[표 2-9]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64
	[표 2-10]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육아의 공공성 확보	64
	[표 2-11]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혁신사업	65
	[표 2-12]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건강한 노후보장 지원	66
	[표 2-13]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67
	[표 2-14] 인구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	68
	[표 2-15] 전략적 홍보를 위한 세부사업	69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73	
[표 3-2]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인구 현황	74	
[표 3-3]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인구 비중	75	
[표 3-4] 2014년 대비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	76	
[표 3-5] 제주도 총 부양비 및 증가율	77	
[표 3-6] 제주도 유소년 부양비 및 증가율	77	
[표 3-7] 제주도 노년 부양비 및 증가율	78	
[표 3-8] 제주도 노령화 지수 및 증가율	78	
[표 3-9] 제주도 노령화 지수 및 노년 부양비 전망	79	
[표 3-10]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인구 분포	79	

[표 3-11]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동별 인구 규모	80
[표 3-1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 증가 인구 추이	82
[표 3-13]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83
[표 3-14]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 추이	84
[표 3-15] 분기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이동 현황	84
[표 3-16] 제주특별자치도 연령총별 순이동 현황	85
[표 3-17] 제주특별자치도 연령총별 순이동 현황	85
[표 3-18]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전입인구 추이	87
[표 3-19]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총별 전입인구 비중 추이	88
[표 3-20] 제주특별자치도 전입인구의 지역별 전입지역 분포 추이 ..	88
[표 3-21] 제주특별자치도 전입인구의 가족동반 여부	89
[표 3-22]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전출인구 추이	91
[표 3-23]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지역별 전출지역 분포 추이 ..	91
[표 3-24]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제주지역 거주기간 추이 ..	93
[표 3-25]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연령별 제주지역 평균 거주기간	93
[표 3-26]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가족동반 여부	94
[표 3-27]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 전입 및 전출 사유	95
[표 4-1] 설문조사 결과 및 응답률	100
[표 4-2] 응답자 특성: 성별	100
[표 4-3] 응답자 특성: 연령	101
[표 4-4] 응답자 특성: 거주지역	101
[표 4-5] 응답자 특성: 이주의향	102
[표 4-6] 응답자 특성: 거주경험	102
[표 4-7] 응답자 특성: 고향	102
[표 4-8] 응답자 특성: 혼인상태	103

CONTENTS

[표 4-9] 응답자 특성: 최종 학력	103
[표 4-10] 응답자 특성: 월 평균 가구소득	104
[표 4-11]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성별에 따른 차이	105
[표 4-1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07
[표 4-13]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연령에 따른 차이	108
[표 4-1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09
[표 4-15]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학력에 따른 차이	111
[표 4-16]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12
[표 4-17]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113
[표 4-18]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15
[표 4-19]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16
[표 4-2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17
[표 4-21]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19
[표 4-22]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20
[표 4-23]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21
[표 4-24]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22
[표 4-25]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23
[표 4-26]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23
[표 4-27]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25
[표 4-28]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26
[표 4-29]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27
[표 4-30]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28

[표 4-31]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29
[표 4-32]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29
[표 4-33]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30
[표 4-34]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31
[표 4-35]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31
[표 4-36]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32
[표 4-37]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33
[표 4-38]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34
[표 4-39]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34
[표 4-40]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35
[표 4-41]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35
[표 4-42]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36
[표 4-43]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37
[표 4-44]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37
[표 4-45]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38
[표 4-46]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39
[표 4-47]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40
[표 4-48]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41
[표 4-49]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42
[표 4-50]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42
[표 4-51]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43
[표 4-52]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44
[표 4-53]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45
[표 4-54]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46
[표 4-55]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46
[표 4-56]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47

CONTENTS

[표 4-57]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48
[표 4-58]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49
[표 4-59]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49
[표 4-60]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50
[표 4-61]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	151
[표 4-62] 제주 거주경험(1개월 이상)	153
[표 4-63] 제주 거주기간	154
[표 4-64] 제주 이주의향	155
[표 4-65] 이주 하려는 이유: 1순위	157
[표 4-66]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1순위	159
[표 4-67] 제주 이주의 구체적 준비	160
[표 4-68] 제주 이주 예정 시기	161
[표 4-69] 제주 이주 시 선호 주택 형태	163
[표 4-70] 제주 이주 시 선호 주택소유 형태	164
[표 4-71] 제주 이주 시 종사활동	165
[표 4-72] 제주도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166
[표 4-73] 제주 이주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168
[표 4-74]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169
[표 4-7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제주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	190
[표 4-7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제주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	193
[표 4-77] 제주 거주경험 및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의 이주 영향요인	197
[표 4-78] FGI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8
[표 5-1] 제주특별자치도 돌봄서비스 현황	232
[표 5-2] 제주 국제학교 입학조건 및 학비(2020년 Year 13 기준)	236

그림목차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3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인구 추이	86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 전출 인구 추이	90
	[그림 4-1]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전체 응답자	171
	[그림 4-2]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남성	172
	[그림 4-3]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여성	173
	[그림 4-4]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20대	174
	[그림 4-5]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30대	175
	[그림 4-6]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40대	176
	[그림 4-7]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고졸 이하	177
	[그림 4-8]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대졸(재학 포함) ..	178
	[그림 4-9]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대학원 이상	179
	[그림 4-10]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200만원 미만	180
	[그림 4-11]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200-400만원 미만 ..	181
	[그림 4-12]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400-600만원 미만 ..	182
	[그림 4-13]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600-800만원 미만 ..	183
	[그림 4-14]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800만원 이상	184
	[그림 4-15]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이주의향 아주 많음 ..	185
	[그림 4-16]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이주의향 약간 있음 ..	186
	[그림 4-17]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이주의향 별로 없음 ..	187
	[그림 4-18]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이주의향 전혀 없음 ..	188
	[그림 5-1] 일본의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개요	228
	[그림 5-2] 취학 후 돌봄 공백 현황	23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KRILA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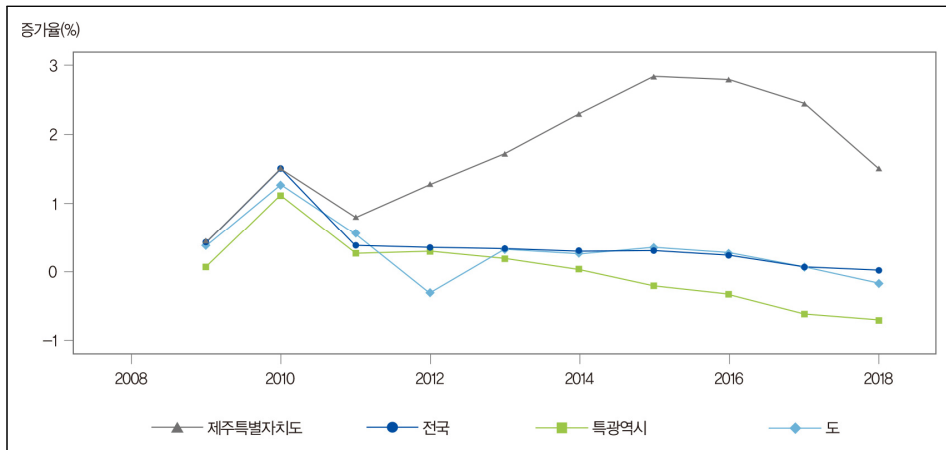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음
 - 최근 5년(2014-2018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4%로 전국 평균인 0.3%보다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15년 2.81%에서 2018년 1.54%로 1.27%p 감소하였음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는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순이동인구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최근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자연 증가 인구는 -11.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사회적 증가 인구는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연평균 34.7%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부터 순이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순이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는 2017년 대비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핵심생산연령인구의 비중 감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중심으로 순이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18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472,7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가 완화되고 있음
 -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의 비중이 2014년 36.8%에서 2018년 35.9%로 감소하였음
 - 그리고 순이동인구의 측면에서 볼 때, 20~40대 전출인구가 2014년 13,582명에서 2018년 18,473명으로 약 5,000명 증가하였음
-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4년 13.6%에서 2018년 14.4%로 증가하여,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연령인구 수는 2014년 5.17:1에서 2018년 4.91:1로 감소하였음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필요

- 최근 5년 간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인구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전입 비중이 전체의 58%를 차지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하는 인구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인구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 목적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서울 및 수도권 내 50만 이상 시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주의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설문 대상자를 특정하여 개인특성을 조사하고자 함
 - 주거, 일자리 등의 유형에 따른 제주 이주의향을 조사하고자 함
 - 이주에 따른 주거, 일자리, 출산·양육, 교육 등 불편사항 및 정책 지원 희망사항을 조사하고자 함
-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근거하여 성, 연령, 지역에 맞춰 할당된 후 무작위추출을 통해 2,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웹(web)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 등을 포함하고자 함

□ 핵심생산연령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중의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생산연령인구의 비중 감소는 자연인구 감소가 아닌 사회적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설문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유입 강화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주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인구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보완 및 핵심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2020~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정책과제에 반영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이주의향 분석을 실시함
- 최근 10년(2010-2019)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이동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내 인구 50만 이상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내용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10년 간 인구이동(전입, 전출) 현황을 분석함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일부)의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유입 강화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핵심생산연령 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인구이동 및 이주의사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현황분석: 최근 10년(2010-2019) 간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함
- 계량분석: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 IPA,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계량분석을 실시함

제2장

인구 이주 영향요인 및 주요 인구정책

제1절 이주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국내외 주요 인구정책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

제2장

인구 이주 영향요인 및 주요 인구정책

KRILA

제1절

이주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이주의 유형 및 영향요인

가. 이주의 유형

- World Economic Forum(2017)에서는 이주의 유형을 정치적 경계, 이동 패턴, 의사결정 관점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첫째, 정치적 경계에 따른 이주 유형은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로 구분하고 있음
 - 둘째, 이동 패턴에 따라 단계적 이주, 순환적 이주, 연쇄 이주로 구분하고 있음
 - 셋째, 의사결정 관점에 따라 자발적 이주, 비자발적 이주, 강제이주로 구분함

□ 정치적 경계에 따른 분류

- 정치적 경계에 따른 분류는 구역, 주, 국가 및 국제적인 경계와 같은 정치적 한계와 경계선에 따라 구분되며, 추가적으로 출신지와 목적지 등에 의해 구분됨
- 국내이주는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함
 -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주민과 관련된 용어는 ‘전입자’이며, 출신지를 떠나는 이주민과 관련된 용어는 ‘전출자’임
 - 이 형태의 이주는 마을, 단지/구역, 구역 간 이동도 포함함
- 국제이주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이주로 외국에서 온 이주민과 외국으로 가는 이주민으로 구분됨

□ 이동 패턴에 따른 분류

- 이동 패턴에 따른 분류는 사회적 지위, 이동 지점 및 주기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함
- 단계적 이주는 소규모 정착지에서 시작해 수년간 도시체계 내 더 큰 거주지로 이동하는 이주를 의미함
 - 농장에서 마을이나 시내로, 그 후 도시 근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함
 - 이주민의 출신지에서 보장된 목적지로 가는 가까우면서 불안정하지 않은 이주의 패턴을 포함함
 - 이 분류는 작은 도시에서 더 큰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함
- 순환적 이주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소 한 번 이상 이주와 귀국을 경험하는 주기적 이주를 의미함
 - 이주민들은 가족, 직장 등으로 여러 장소(최소 2곳)에서 시간을 보냄
 - 이동빈도는 목적지에서의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순환 이주자는 상당한 시간을 출신지와 목적지에서 보냄
 - 계절적 이주는 노동 수요의 계절적 장점에 의해 주도되는 순환이주의 매우 흔한 형태로 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이뤄짐
 - 반면 귀국이주는 한번 해외로 이주하여 장기 체류한 후에 귀국하는 것을 의미함
- 연쇄이주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생애주기의 다른 단계에 있는 가족의 이주로 이주 후 그들의 출신지의 사람을 새로운 장소로 데려옴
 - 이론상으로 연쇄적으로 이주한 사람은 본인보다 먼저 이주한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함

□ 의사결정 관점에 따른 분류

- 의사결정 관점에 따른 분류는 특정 사회정치적 요인(인종, 종교, 정치적 소속, 국적, 전쟁으로의 도피, 무기 관련 분쟁, 내전, 자연재해, 기근 등) 혹은 개발 요인(공항, 도로, 댐 혹은 항만공사를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도심 프로젝트의 행정적 허가, 채굴 및 삼림 벌채, 보호구역 및 기타 생활권 관련 계획의 조성 등)에 따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주로 분류됨
 - 자발적 이주는 다른 요소 중 더 나은 곳에서 살며 재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의지, 계획과 열망에 기초함
 - 비자발적 이주는 특정 불리한 환경 및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사람이 집에서 강제 퇴거 되는지에 따른 것임(난민, 망명자, 국내실향민 등이 이 분류에 속함)

나. 이주의 원인(영향요인)

- 무수히 많은 중립적인 요소들이 이주를 초래함
 - 이주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주가 시작되는 출발지, 정착지 또는 임시로 이주가 끝나는 목적지와 관련됨
 -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지지, 거절 또는 중립요인에 의해 특정 지어짐
 - 장소의 호의적 특성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입요인이 됨
 - 어떤 장소에서 작용하는 비판적 특성은 강제나 강요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유출요인임
 - 유입요인과 유출요인 모두 목적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이유임

□ 경제적 요인

- 경제적 요인은 한 장소의 노동시장, 고용상황 및 전반적인 경제 상태와 관련이 있음
 - 임금인상, 고용기회 및 부의 창출에 대한 전망 등 목적지의 호의적인 경제 조건과 본국 지역의 국내사회 및 정치적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주민을 목적지로 끌어들이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출발지의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다면 가난하고 직업이 없는 개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경제적 유출요인은 ① 실직 또는 부족한 취업기회, ② 농촌지역의 빈곤, ③ 지속 불가능한 생계를 포함함
- 경제적 유입요인은 ① 고용기회, ② 소득개선과 부의 창출에 대한 전망, ③ 새로운 산업을 위한 산업혁신 및 기술 노하우, ④ 전문 교육 추구를 포함함

□ 사회정치적 요인

- 사회정치적 요인은 가족 간 갈등 및 재결합(독립 추구),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변수(전쟁 또는 분쟁의 위협 등)를 포함함
- 사회정치적 유출요인은 ① 정치적 불안정, 안전 및 보안문제(민족, 종교, 인종적 또는 문화적 박해), ② 갈등 또는 갈등의 위협, ③ 노예 또는 강제노동, ④ 불충분하거나 제한된 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보건의료, 교육, 공익사업, 교통 및 수도)을 포함함
- 사회정치적 유입요인은 ① 가족 재결합, ② 독립과 자유, ③ 통합 및 사회적 응집력, ④ 식량 안보, ⑤ 합리적이고 접근 가능한 도시 서비스(보건의료, 교육, 공익사업 및 교통)를 포함함

□ 생태학적 요인

- 생태학적 요인은 기후변화와 천연자원의 가용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며 개인이 더 나은 생태적 조건을 찾아 이주하게 함
- 생태학적 유출요인은 ① 기후변화(극단적인 기후 상황), ② 흉작 및 식량 부족을 포함함
- 생태학적 유입요인은 ① 풍부한 천연자원과 미네랄(물, 석유, 우라늄 등), ② 좋은 기후를 포함함
- 이 외에 가난도 이주의 장애가 될 수 있음. 아프리카에서 국제이주민의 85%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이주하고 있음(Dumont, Spielvogel and Widmaier, 2010)
 - 사람들이 이주하기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이민율이 가장 낮음
 - 충분한 재정자원이 확보되면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주변 국가로 그리고 대륙을 넘어 고소득 국가로 이동하게 될 것임

[표 2-1] 이주 영향요인

구분	지역 외로의 이주요인 (Push factors)	지역 내로의 이주요인 (Pull factors)
경제적 요인 (Economic factors)	실업과 일자리 부족 (Unemployment or lack of employment)	일자리 기회 (Job opportunities)
	농촌지역의 빈곤 (Rural poverty)	더 높은 소득과 수입 전망 (Better income and prospects for wealth creation)
	불안정한 생계 (Unsustainable livelihood)	신산업 분야의 혁신 및 기술 노하우 (Industrial innovation and technical know-how for a new industry)
	-	전문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Pursuit of specialized education)

구분	지역 외로의 이주요인 (Push factors)	지역 내로의 이주요인 (Pull factors)
정치사회적 요인 (Sociopolitical factors)	정치적 불안 (Political instability)	가족 간 재회 (Family reunification)
	인종, 종교등과 관련한 안전 및 보안 문제 (Safety and security concerns (ethnic, religious racial or cultural persecution))	독립과 자유에 대한 열망 (Independence and freedom)
	사회적 갈등 (Conflicts or threat of a conflict)	통합과 사회적 응집력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노예제도와 담보노동 (Slavery or bounded labour)	식량안보 (Food security)
	열악한 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Inadequate or limited urba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healthcare, education, utilities, transport and water))	도시 서비스의 용이성 (Affordable and accessible urban services (including healthcare, education, utility and transport))
생태학적 요인 (Economical factors)	기후변화 (including extreme weather events)	풍부한 천연자원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and minerals (e.g., water, oil, uranium))
	농작물 수확 실패에 따른 식량 부족 (Crop failure and scarcity of food)	거주에 적합한 기후 (Favourable climate)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7), 「Migration and Its Impact on Cities」, p.31.

2. 이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 인구감소는 지역내총생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Lee & Sugiura, 2018)
 - 특정시기 t 에서의 지역내총생산은 $Y(t) = \alpha(t) \times H(t) \times E(t)$ 로 표현할 수 있으며, α 는 노동생산성, H 는 노동시간, E 는 근로자 수를 의미함
 - N 과 L 을 각각 15세 이상 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라고 정의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beta=L/N$)과 고용률($e=E/L$)을 도출할 수 있음
 - 위에 제시된 지역내총생산 함수는 $Y(t) = \alpha(t) \times H(t) \times \beta(t) \times e(t) \times N(t)$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양변에 로그를 취한 후 t 로 미분하면 지역내총생산 성장률(growth rate)은 각 변수의 성장률에 대한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

$$\left(\frac{\dot{Y}}{Y} = \frac{\dot{\alpha}}{\alpha} + \frac{\dot{H}}{H} + \frac{\dot{\beta}}{\beta} + \frac{\dot{e}}{e} + \frac{\dot{N}}{N}\right)$$
 - 즉, 노동생산성(α), 근로시간(H), 경제활동참가율(β), 고용률(e), 15세 이상 인구수(N)가 증가할 경우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함
- 지역 내 인구유출,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은 해당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야기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감소시킴
 - 인구 고령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만약 노동생산성이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수준까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할 경우 지역내총생산은 감소하게 되며,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는 쇠퇴하게 됨
 - 이러한 인구감소는 더 많은 인구의 유출을 자극하는 추가적 효과를 발생시킴

이주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재배치를 통해 교외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음(Masuda, 2014)
- 이는 도시지역으로부터 교외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교외지역으로의 재이주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포함함
- 이러한 인구의 재배치는 교외지역 및 농촌지역의 인구부족과 도시지역의 인구과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3. 선행연구 검토

최흥규(2009)의 연구

-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지역주민의 이주이사에 미치는 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전북도민 628명을 조사하였으며, 563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음
- 경제적 기회, 주민안전, 주거교통, 복지·환경, 교육·문화, 전반적 만족도, 계산기반 신뢰, 제도기반 신뢰, 지식기반 신뢰를 이주의사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경제적 기회, 복지·환경, 교육·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임병호 외(2012)의 연구

- 이 연구는 대전시민의 세종시에 대한 이주의향 및 이주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대전시민 821명을 조사하였으며, 621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음
- 세종시 건설의 관심도 및 도시매력도, 주거여건 및 주거만족도, 개인적 요인을 이주의사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세종시 호감도, 체육시설 만족도, 종합 만족도,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학력 등이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정빈 외(2012)의 연구

- 이 연구는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이주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성남시민 415명을 조사하였으며, 379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음
-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측정지표로 경제적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을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경제적 삶(소득, 지역경제), 편리한 삶(주차, 교육), 쾌적한 삶(수질환경, 소음)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김정태·신동호(2018)의 연구

-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만족수준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음
- '2017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결측치를 제거하고 3,77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생활환경, 경제활동, 교육환경, 보건, 복지서비스, 가정생활, 공동체, 문화·여가, 환경, 안전, 개인적 요인을 이주의사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안전이 이주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복지와 문화·여가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정신 외(2018)의 연구

- 이 연구는 지역생활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이 농촌 청년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307명을 조사하였으며, 293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음
- 개인적 요인, 지역생활만족도, 마을 인식 및 태도, 공동체의식을 이주의사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거주기간, 문화·여가만족도, 마을안전인식, 애착성이 이주의사와 밀접한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2절 국내외 주요 인구정책

1. 국내 인구정책

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1) 중앙정부: 보건복지부¹⁾

① 저출산 관련 정책

□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사실상 의료비 Zero화를 단계적 추진하고자 함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Zero화를 추진하며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경감을 추진함.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산부인과 등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및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를 대폭 경감하고자 함
-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비 지원 확대 등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임신부 약물상담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산모·신생아의 철저한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며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률을 감염병 퇴치 수준 이상으로 향상, 의료기

1)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의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관에서 검진, 예방접종, 건강생활 실천 관리 주기적 교육·상담 등 아동의 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동수당 시행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모형 개편을 검토하고자 함
 - 아동수당 7세 미만 아동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아동수당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자 함
-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으로 출산지원금(90일간 월 50만원) 지급 및 기간제 노동자의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하고자 함

□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 (임신·출산기) 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출산 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육아·돌봄기)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단축기간 확대(최대 1년에서 2년)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하고자 함
 - (전 생애) 주 최대 근로시간(52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고자 함
- 연차휴가 활성화, 정시 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시간권을 보장하고자 함
-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실태조사 실시,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시정·권고,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일·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생활 우수기

- 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함
-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확대 등 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시간선택제 활성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휴직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하고자 함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원하는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함
-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공보육 인프라 확충, 종일 보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추가확보, 확충방식 다양화 등 매년 450대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함
 -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 배치, 현행 보육지원구조(12시간 기본)를 ‘기본+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고자 함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 평가제로 전환,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우수사례 전파 등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 개선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다양한 확충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국공립 이용아동 40%를 달성하고자 함
 - 일방적 폐원 통보 및 집단휴업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별 전담팀을 구성해 감사 집중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자 함

□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가족 내 평등한 관계 확립 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를 개선하고자 함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관련 지원 강화, 난임시술 지원대상을 사실혼까지 확대하고자 함
-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 개선,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가족평등지수 개발, 친·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 보장 등을 검토함

□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 청년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자 함
-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 대상 기업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및 적용 대상 기업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추진 및 여성 고용·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고자 함(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추진)
 -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임신 및 출산휴가 중 비자발적 퇴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시 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함(육아휴직 복귀 후 1년 간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 공급 확대,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강화 등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는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 고교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인상을 통해 공교육비 경감 및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② 고령화 관련 정책

□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공적연금 역할 강화
 -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 (국민연금)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국민연금을 확립하고자 함
-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 (주택연금) 주택연금 총액의 일시인출한도 확대(70%에서 90%), 실거주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주택연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확산 및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농지연금)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실행
 -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정년 이후 연금수급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

업주 노력의무 부과(고령자고용법 개정)하고자 함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

- 생애경로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확충하여 미래를 설계·준비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및 신중년 사관학교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 은퇴자 협동조합,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신중년 창업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퇴직자가 지역아동센터·사회적 기업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창업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확대 등 귀농·귀어지원 강화 및 산림분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지원

-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 혹은 자발적인 사회참여 저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함
-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제품 판로확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지자체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상담·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기(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하고자 함
- 고령세대를 위한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²⁾

□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

- 전라북도는 현재 인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임
 - 이러한 관리체계는 각 부서별로 저출산, 과소화마을,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는 개별관리형으로 되어 있어 통합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사업은 복지여성보건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인구감소문제는 농축수산물식품국을 중심으로 농촌고령·과소화 대응 TFT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정책은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TFT를 운영하고 있음
-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팀을 주무팀으로 저출산, 청년, 농촌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 인구종합계획 수립

- 과소화마을 현황이나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사회·경제 생태계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인구와 관련된 종합적 실태조사가 필요함
 - 인구와 관련된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통계나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는 실정임
- 인구종합실태조사를 토대로 장래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구변화에

2) 이 부분은 김동영·이중섭·조경욱·황영모(2016)의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영향을 받는 요소, 인구정책 등을 고려한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종합계획과 더불어 인구집중관리지표를 개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중핵도시 육성

- 산간마을, 읍면소재지, 군청소재지 등의 인구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권역별 중핵도시 육성이 필요함
 - 중핵도시는 기존 지역생활권 사업이 지역 간 수평적 연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된 것과는 달리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인구유출은 크게 타 시·도로의 전출과 개별 자치단체 내 인구이동으로 볼 수 있음
 - 자치단체 내 인구이동이 많은 경우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중핵도시를 육성해 인구의 타 시·도 유출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중핵도시 조성을 위해 거점도시에 권역별 특화산업 집중육성, 보건·의료 거점화, 교육·문화 서비스 특화전략이 필요함

□ 면단위 생활경제권 활성화

- 농촌지역 주민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생필품의 적절한 구입, 소량 다품목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미용관련 서비스, 공동체 교류 활동 등)가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삶의 질 서비스를 촘촘히 재구축하여야 함
 -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가 농촌지역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임
 -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지역에서 이뤄 나갈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선결대책임

□ 청년창업특구 조성

- 시범사업으로 1곳의 청년창업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청년창업 학교 운영 및 청년창업자 주거지원, 입주공간지원, 창업자금지원, 데스벨리 극복지원, 상품디자인 및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기존의 방식(기존 기업에 청년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탈피해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컨테이너 모듈하우스를 활용해 청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상점, 라이프스타일 및 문화예술공간, 커뮤니티공간, 제품디자인실 등을 갖춘 복합판매·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친화도시 추진

-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외국국적동포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취업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도내 일자리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전국 230개 지역의 총인구수와 외국인수의 산점도를 분석해보면 두 변수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해 외국인수가 증가할수록 총인구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 유치 전략이 아닌 외국인 인재영입 전략을 통해 새로운 생산가능인구 확보와 더불어 산업혁신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함

3) 기초자치단체: 익산시³⁾

- 익산시의 인구정책 방향은 1)안정적 일자리 창출, 2)정주여건 개선(청년 유출 최소화), 3)출산·결혼 친화도시 조성, 4)농촌인구 유입으로 구분됨
 - 현재 사회구조는 결혼 및 자녀 양육, 교육 등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자리는 청년층의 결혼 기피현상을 야기하므로 지역 내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3) 이 부분은 최현호 외(2018)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현대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 또한 교통의 발달로 직장과 거주지역의 거리제한이 줄어들어 정주여건을 더욱 고려하여 이동함으로 정주연건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함
- 출산율 회복은 단기적인 정부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구조적 문제와 사회구성원 사이의 가치관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됨
- 대도시권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하므로 귀농을 희망하는 농촌인구의 유입을 단기적 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일자리 지원

○ 반려동물 클러스터 구축 사업

-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구가 늘고 있음
-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 활용하여 추가 지출없이 반려동물식품 산업을 익산의 신산업으로 성장, 새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도모하고자 함
-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의 전문인력과 연계한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으로 외부 유출을 감소시킴
- 신제품, 신서비스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하고자 함

○ 익산 일자리 창출 플라자 건립

- 현재 익산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범위를 초중고, 주민, 실버계층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구조로 대학 R&D 지원, 일자리 창출효과, 고용률 증대,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지역발전 및 경제파급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일자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 미래 직업체험, 스타트업 창업체험교육 등 기업, 대학, 초중고, 주민을 위한 통합시스템 역할을 함

□ 사회적 인식 전환

- 영유아 맞춤 의료비 확대 지원
 -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신생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역 민간 병·의원 유소아과의원과 '예방접종 위탁 체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시민들이 만드는 익산 가이드라인
 - 익산시 인구정책 현황 분석, 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하고자 함
 - 인문학 전문가의 인구해법과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가 강연을 개최하고자 함
 -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원탁회의 개최, 정책화 대상 우선순위 결정 등 시민욕구 분석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행하고자 함
 -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 개선, 악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함

□ 정주여건 개선

- 생활밀착형 4H공간 확충
 - 유희지 및 나대지를 활용하여 도시경관 창출 및 익산시 공업화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
 - 옥상녹화 및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녹지공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함
- 로하스타운 조성
 - 자립형 생태휴양주거단지 조성으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삶의 질이 충족되는 농촌으로 유입하고자 함

- 귀농귀촌자 영농교육 및 지원기준에 적합시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미래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분야별 사례4)

1) 일자리

대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 대전은 과학도시이면서 농업이 중요 산업인 곳이지만 지역주민간의 소통 부재로 공동체 활성화가 어렵고, 농산물 생산자의 판로 발굴, 지역민의 건강·행복, 먹거리권리에 대한 요구가 향상되고 있음

○ 사업내용

- 유성구와 사회적 협동조합인 품앗이마을은 2015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인 ‘바른유성찬’을 도입하고,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를 통해 먹거리 교육과 취업 및 창업 교육, 농촌체험여행, 어린이 텃밭 학교, 로컬푸드장터 등을 운영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4개 로컬푸드 매장, 52명 고용, 누적매출 113억 원의 사업효과와 유성구 농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가공식품 개발 교육으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경남 거창군 ‘협업적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배경

- 거창군의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4) 이 부분은 박진경·김상민(2018)의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방안, 홍근석·김봉균(2019)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았고, 사업효과가 미미하였으며, 민관 전문가와 행정협의를 통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주민의 역할증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함

○ 사업내용

- 마을사업 통합시스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을 5대 핵심사업(로컬푸드, 귀농귀촌, 마을개발, 도농교류, 문화복지공동체)으로 재분류하고 총괄 전담부서인 마을만들기과를 신설함
- ‘거창한 마을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 리더를 육성하고 ‘거창한 마을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각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과 사업성과 홍보, 토론 및 발표대회 진행을 통해 마을 간 정보 공유를 도모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5년까지 마을대학을 수료한 75개 마을 중 90%(68개 마을)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청년층 인구의 유입 증가에 기여함

□ 경북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 추진배경

- 정보와 경험부족에 따른 귀농, 귀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대도시 예비 귀농인 유치 및 전입을 유도하기 위함

○ 사업내용

- One-Stop 지원센터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을 조성하여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제공하고, 대도시 예비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 체험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여 안정적으로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기여함

2) 주거 분야

□ 경기 행복주택 ‘BABY2+ 따복하우스’

○ 추진배경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총인구, 노인 인구, 다문화 인구 등이 최다이며, 대도시와의 전입·전출이 활발하여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함

○ 사업내용

- ‘BABY2+ 따복하우스’는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지원과 신혼가구 전용공간 확대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
- 지역별 인구 특성에 맞춰 따복하우스 외 다양한 지역 편의시설과 주민공동 시설을 함께 제공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청년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 강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도내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 지원을 통해 서민계층의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게 3년간 주거비용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7년 강릉시는 158쌍에게 1억 8천 648만원을 지급하는 등 아이를 낳

고 기르는 신혼기간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문제 및 저출산 극복의 극대화와 효과성을 전개하여 사회분위기 전환에 기여함

3) 문화

경기 수원시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기반 청년창업' 사업

- 추진배경
 - 경기도 내 문화예술 관련 55개 대학, 386개 학과, 35,000여 명의 재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창작 및 창업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하였음
- 사업내용
 - 방치되었던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총 268,487㎡, 81,350평)를 활용하여 도내 문화예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문화예술 기반의 생업과 창작을 할 수 있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활문화센터, 경기생생공화국 등을 운영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교류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학, 예술경영지원센터, 영국문화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형성함
 - 우수 청년문화공간을 형성하여 타 기관의 롤모델을 마련하고 청년플랫폼 축제 개최 및 다양한 인큐베이팅 성과를 도출함

4) 보육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지소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

- 추진배경
 -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영유아와 엄마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도입함

○ 사업내용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극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로 아동전문 보건지소를 조성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보건의료서비스와 양육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영유아 건강관리가 가능해져, 임신부와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에 기여함

5) 기타

□ 충남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사업

○ 추진배경

-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 복지증진, 여성 및 다문화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함

○ 사업내용

- 인구증가 등 지원조례 개정, 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생아·노인 등 복지 및 다문화 토탈케어서비스 지원, 정주환경 조성, 귀농·귀촌인 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함
- 원스톱 복지행정 통합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여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출산·육아·보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복지예산과 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에 맞추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문제를 분석하고 복지시책 개발이 가능함

[표 2-2] 국내 주요 인구정책

분야	주요 사업
일자리	대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경남 거창군 '협업적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경북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주거	경기 행복주택 'BABY2+ 따복하우스' 강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문화	경기 수원시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기반 청년창업' 사업
보육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의소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
기타	충남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사업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2. 해외 인구정책

가. 이주민 지원 정책

1) 정착 지원 정책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의 털사 원격 프로그램(Tulsa Remote Program)⁵⁾

○ 추진배경

- 2016년 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털사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고급인력과 핵심생산인구를 중심으로 두뇌유출이 일어남
- 털사시 기반의 George Kaisa Family Foundation과 협업하여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사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함

○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 6개월 내로 털사시로 이주하여 일하는 재택근무자 또는 오클라호마주 밖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이주비용 해결을 위한 총 \$10,000을 현금으로 1년

5) <https://tulsaremote.com/>

<https://www.citylab.com/life/2020/02/tulsa-incentives-work-remotely-coworking/604873/>

간 지급하며, 공유사무실 공간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사업 첫째, 150개 이상이 국가, 50개 주에서 10,000명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100명의 참여자가 털사시로 이주하였으며, 다음 해 250명의 참여자가 털사시로 이주함

□ 미국 버몬트주의 재택근무자 지원 프로그램(Remote Worker Grant Programme)⁶⁾

○ 추진배경

- 버몬트주 납세자 인구와 취학 어린이 수를 늘리고,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감지함

○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 2019년 1월 이후 버몬트주에 이주한 정규직 재택근무자의 이주비를 최대 \$10,000까지 2년에 걸쳐 변재해줌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9년 9월까지 84명의 재택근무자가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134명의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총 218명이 버몬트주로 이주함

□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빈집가치프로그램(Vacants to Value Booster)⁷⁾

○ 추진배경

- 볼티모어 내 비어있고 버려진 건물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

○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 볼티모어의 버려진 집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계약금 및 클로징 커스트를

6) Vermont(2019). Remote Worker Grant Program Annual report.

<https://accd.vermont.gov/sites/accdnew/files/documents/DED/Remoteworker/2019RemoteWorkerReport.pdf>

7) <http://www.vacantstoalvalue.org/About.aspx>

위해 \$10,000의 인센티브를 지원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360명 이상의 주거 구매자가 혜택을 받아 빈집을 구매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공터가 철거되거나 재개발되며 볼티모어의 성장과 재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며, 볼티모어로의 이주를 촉진함

□ 미국 메인주의 교육기회 세액공제 프로그램(Educational Opportunity Tax Credit Program)⁸⁾

○ 추진배경

- 메인주의 중위연령은 43세로 미국 내 나이가 가장 많은 주이며,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며, 타 도시와 젊은 근로자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점에서 경쟁우위가 낮음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메인주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내는 대학(원)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을 주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
- STEM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는 주 정부로부터 세금환급을 받음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9,000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지역 내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겼으며, 지역 실업률은 국가 평균 4%보다 낮은 3%를 기록함

8) https://www.maine.gov/revenue/taxrelief/ed_opp_credit.htm

<https://www.wkyc.com/article/news/nation-now/to-attract-younger-workers-maine-is-providing-tax-credits-to-student-loan-borrowers/465-488dcb44-042c-48f1-a8e7-672e1b281d37>

2) 이주민-원주민 통합 정책

독일 알테나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Kummerers Programme)⁹⁾

○ 추진배경

- 낮은 출산율과 젊은 청년층의 유출로 인해 마을 인구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반으로 줄어듦
- 알테나의 산업을 유지하고 관광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주민은 줄어드는 인구를 안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추진함

○ 사업내용

- 이주민이 도착하면 자원봉사자(Kummerers)와 짝을 맺어주어, 자원봉사자가 지역 당국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주민이 정착하고, 학교에 등록하고,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 이주민은 새로운 곳과 이웃 주민을 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됨
- 도시 중앙에 이주민(난민)과 원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센터(Integration Centre)”를 만들어, 요리&예술 워크숍, 북클럽, 언어교실 등을 제공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5년 이후 마을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이주민 통합 정책과 도구의 혁신조합을 인정받아 2017년 5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부터 제 1회 “National Prize for Integration”을 수여함

미국 버몬트주 Stay to stay weekends¹⁰⁾

○ 추진 목적

- 버몬트주 내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근로 인력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

9) OECD (2018), Working Together for Loc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Refugees in Alten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99320-en>

10) <https://accd.vermont.gov/press-releases/vermont-expands-stay-stay-weekends-at-tract-more-working-families-vermont>

를 확충하기 위해 버몬트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외지인과 지역 내 고용주, 기업가, 장래 이웃 주민이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

○ 사업내용

- 버몬트주에서 거주하면 일하는데 관심 있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리셉션, 버몬트주 지역탐방 그리고 고용주, 부동산업자,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8년 Stay to Stay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140명의 참석자 중 10명이 버몬트주로 이주했으며, 36명이 추가로 버몬트주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기타 지원 정책

□ 알래스카 영구기금 공채 배당금(Permanent Fund Dividend) 프로그램¹¹⁾

○ 추진배경

- 1896~1899년 골드러쉬와 천연자원의 발견으로 외지인이 유입되고 불타운이 형성되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천연자원 기반의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고 사업 수익이 거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함

○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 1982년부터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알래스카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기금 수익의 일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함
- 2019년 알래스카 거주민에게 \$1,606의 배당금을 지급함

11)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6/10/18/3bc2f7a4-60c2-4875-ac2e-02d09e0d1ec0.html>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에는 상점에서 소비 촉진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 알래스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 학자금이 필요한 알래스카 거주 대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세금감면 프로그램(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 추진배경

- 중앙정부 중심의 대규모 공급 방식은 수요-공급의 불일치, 낮은 사업 효율성, 지역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개발계획 등의 한계점이 드러남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임대주택 디벨로퍼에게 연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줌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부동산 시장을 통한 민간사업자 주도의 저소득층 공공주택개발을 유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 개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짐
- 주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개발이 가능해짐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주택 후원 프로그램

○ 추진배경

- 지난 수년간 주택건설비와 임대료가 치솟아 잘츠부르크 내 주택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주택난 방지, 투기 억제, 경기에 적합한 임대료 조

성, 시대에 맞는 주택 보급을 지향함

○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 조건을 갖춘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가주택 건설이나 구매, 임대 주택 건설이나 기숙사 형태의 주택 건립, 개량, 임대료 등을 후원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9년 1,700개의 주택에 총 6,700만 유로를 후원함
- 가족 친화 주택, 스타트 청년 주택, 임대 주택과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 해소, 임대료 적정수준 유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주택을 제공,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함

□ 독일 베를린의 사회통합 정책

○ 추진배경

- 베를린은 통일 이후에 독일의 어느 지역보다 소득의 불균형과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 도시의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방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과 맞물려 베를린 통합정책을 추진함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이민자 통합문제를 모든 사회 분야에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문화와 교육을 통한 이질적 문화 간 상호이해 증진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자립 그리고 국가와 이민자 사이에 협의체 개념의 매개체를 구축함

○ 시사점

- 독일어 강습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민자 출신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개발뿐 아니라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며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일본 미야자현의 고가세정의 관계 인구 창출 확대 사업

○ 추진배경

- 일본의 지방권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산업과 집락을 유지하기 위한 담당자 부족이라는 과제에 직면함

○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 고가세 중등교육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모집하여 정책제안에 관한 스터디투어, 심사, 표창, 실천 활동을 진행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역 내 관계인구를 창출하는 한편, 장래의 이주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함
- 이 경험을 가진 졸업생과 외부에서 본 관점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이 유효한 과제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함
-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혁신과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고, 지역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장과 자기실현 기회를 제공함

□ 일본 군마현 미나카미정의 도시와 지방의 듀얼라이프 - 시험 위성 사무실 사례

○ 추진배경

- 지방에서는 고용기회 창출과 이주, 정주 촉진 그리고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위성 오피스를 유치하고자 하지만 도시부 기업 등의 위성사무실 개설에 관련한 구체적인 니즈가 파악되지 않고 도시부의 기업과의 연계가 한정적인 것이 한계로 작용함

○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 위성오피스 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점 혹은 주요 사무소가 3대 도시권의 구역 내 소재한 도시부 기업을 대상으로 츠키요노정, 니이하루촌, 미즈카미정 지역 내 위성사무실에서 3일 이상 시험근무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도시부 기업의 위성 오피스 개설에 관련한 구체적인 니즈 파악하여 의욕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성 오피스 유치를 추진하는데 기여함
- 빈집 활용, 도시부 기업과 인재와의 교류 인구 확대, 지역사업자와 주민과 연계한 비즈니스의 창출, 새로 일하는 방식 제정에 기여함

□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가와정의 고향워킹 홀리데이

○ 추진 목적

- 지방에서 일정 기간 휴가를 보냄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향상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창출하며 지역에서의 삶을 체험하여 장래의 지방으로의 이주를 촉진함

○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 130명의 도시부 청년층(대학생, 사회인)이 1월부터 3월 중 약 2주에서 1개월 동안 홋카이도 정립일본어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조교로서 일본 문화를 전달함

□ 일본의 이주 교류 정보 가든

○ 사업내용

- 총무성주관으로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연계하여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취농 지원, 주거환경 등에 관련한 이주 상담을 제공함

나. 분야별 사례¹²⁾

1) 교육

일본 아마정(海士町)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

○ 추진배경

-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마네현 아마정(海士町)은 학생 수 감소, 섬외 인구 유출, 교원 수 감소 등으로 유일한 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함

○ 사업내용

- 2010년 학교·지역 연계형 공립학원 ‘오키국 학습센터’를 설립(도전 고향 매력화 재단 운영)하고 ‘도전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2012년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섬 유학’을 시작함
- 다문화나 다양성을 고교 내에 도입하여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2015년 문부과학성의 슈퍼글로벌 하이스쿨로 지정되어 세계 8개국과 교류하고, 해외 연수 등의 교육환경을 갖추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역 자원과 인재를 활용한 고교의 매력화 프로젝트는 현지 학생을 자극하고 섬 밖의 학생확보에도 이어짐

2) 일자리

EU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 추진배경

- 식량안보 차원에서 1992년 유럽연합은 직불제(Direct Payment)를 도입하여 농장규모가 클수록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작 규모

12) 이 부분은 박진경·김상민(2018)의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방안, 홍근석·김봉균(2019)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가 작아 직불제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의 액수가 작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사업내용

- 2014년부터 소농직불제(Small farmers direct payment)를 실시하여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18~40세 젊은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 동안 '청년농업인 직접 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지급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농장도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됨

□ 일본 시마네현 고오츠시(江津市)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 추진배경

- 고오츠시·NPO 법인인 고넷트이시미·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기업가 지원 컨소시엄은 2010년부터 지역 과제 해결 비즈니스를 모집하고 젊은이를 발굴하는 '비즈니스 플랜·콘테스트(Go-con)'를 개최함

○ 사업내용

- 일본해신용금고는 용자나 사업계획 지도, 고오츠상공회는 경영지원 그리고 고오츠시는 창업지원제도가 지원기관의 소개·이주를 지원함
- 2012년 콘테스트 수상자 등을 중심으로 역전 상점회 청년부를 결성하여 빈 점포 정보를 공급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4년~2017년 동안 17건(증설 포함)의 기업 유치에 성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 일본 이로가와지구 정주형 취농프로그램¹³⁾

- 추진배경
 - 일본 이로가와 지구는 광산 폐쇄, 농림업 쇠퇴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음
- 사업내용
 - 체험형(2박 3일의 농촌 체험메뉴), 실습형(3일간의 실습 준비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1주에서 1년간의 농업실습), 정주형(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5일간의 정주체험) 등의 취농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함
 - 중산간 집락기능 강화 등 촉진사업을 적용하여 국가 및 현으로부터 60%의 보조를 받아 지역 내 폐교를 개조하여 귀농·귀촌 촉진의 거점으로 활용함
 - 추진위원회의 정주촉진반이 체험 후 이주를 확정한 사람들에게 공가 및 농지 등을 소개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이로가와지구에 귀촌자의 유입으로 지역인구가 늘어남

3) 문화 분야

□ 일본 카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KAIR)

- 추진배경
 - 창조산업으로 산촌도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문화마을 설립 등을 추진함
- 사업내용
 - 2004년 카미야마초 산간부의 마을의 전 호에 케이블용 광섬유망을 정비하고, 매년 9월부터 2개월간 국내외에서 3명의 작가를 초빙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KAIR 사업을 추진함

13) 박시현(2010), 「일본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귀농·귀촌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 출장보고서.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예술가를 지원하는 마을로서 이주나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IT·디자인·영상 관련 기업 등 기업들의 이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됨

4) 주거 분야

□ 일본 오카야마현 신조촌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 추진배경

- 신조촌의 중심부는 인구감소로 빈집이 증가하며, 상업교육시설 및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인근 마니와시에 의존함

○ 사업내용

- 텔레워크를 위한 공동시설 정비와 고령자용 생활지원 시설정비(내각부 사업) 및 기차역 주변 신선식품 판매기능을 추가하여 식품소비를 촉진시키고, 마을 내 순환을 위한 차량정비(마을단독사업)를 통해 마을 내 생활서비스 기능 집약화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및 상업교육시설 이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 지역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 '작은거점'을 형성하고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 내각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함

□ 일본 교토부 아야베시 정주지원사업

○ 추진배경

- 아야베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과소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귀농귀촌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교류, 정주, 지역 진흥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

○ 사업내용

- 주 희망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주 서포트 종합 창구를 설치하여 주택, 취업, 지역 관습 등 정주에 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함
- 빈집을 활용하여 정주 희망자에게 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주 지원 주택(정주를 위한 공영주택)을 설치하고, 빈집 구입을 지원하거나, 빌린 주택의 개수 공사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함
- 정주자 교류 모임 등을 개최하여 실제 귀농·귀촌자들이 초반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배타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자체 차원에서 귀농, 귀촌 희망자들의 관심이 실제 지역으로의 이주 및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 정보와 보조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주자 교류 모임 등도 개최하여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5) 보육 분야

□ 프랑스 보육·교육정책

○ 추진배경

- 프랑스는 일찍부터 수당 중심 지원체제로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 수립하고, 이민자 가정, 동거가족, 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사업내용

- 출산휴가는 16주이며(셋째 자녀 이상 26주, 쌍둥이는 최대 34주), 휴가 기간 동안 소득대체율 100% 또는 최대 월 3,000유로 제공함
- 가족수당, 출산수당 및 영아양육수당,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보조금, 아이 돌보미 보조금 등을 지급함

- 프랑스는 영아에게는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거나 가정보육 시 부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아에게는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공교육체계가 확고하게 정립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가족지원정책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높아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발견 가능함

6) 교통 분야

□ 일본 도야마시 대중교통중심 압축도시

- 추진배경
 -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분산된 도시구조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 대중교통이용자 감소 및 배차간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사업내용
 - 철도노선이 많은 도야마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노선을 ‘축’으로, 대중교통노선의 거점을 ‘핵’으로 한 다핵 압축도시조성 추진함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야마코 철도노선을 활용하여 ‘도야마 경전철(TLR, Toyama Light Rail)’과 시내전차환상선을 건설함
 - 경전철 및 시내전차환상선 노선을 따라 거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도시의 거점시설을 집적시키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심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100엔의 요금할인을 제공함
 - 도심과 대중교통노선 인근 지역으로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도야마역을 중심으로 ‘중심시가지지구’와 LTR역 주변 ‘거주추진지구’를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인구와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OECD(2012)의 '콤팩트 시티 정책(Compact City Policies)보고서'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 다섯 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7) 기타

□ 미국 축소도시 영스타운

○ 추진배경

-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은 철강 산업의 쇠퇴와 함께 인구감소, 상점, 오피스 및 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도시 쇠퇴의 길을 걷게 됨

○ 사업내용

- 주거지역의 30%, 상업지역의 16%를 축소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압축도시 형성을 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실시함
- 지역 정부는 지역 간 협력, 자연친화적 도시 환경 제공, 마호가니 강(Mahogany River) 재개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영스타운은 스마트 성장에서 스마트 축소로의 패러다임 전환하며, 2007년 미국계획가협회(APA)의 공공부문 국가계획상을 수여함

[표 2-3] 외국의 인구정책

분야	주요 사업
교육	일본 아마정(海士町)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
일자리	EU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일 일본 시마네현 고오츠시(江津市)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일본 지방창생정책 일본 이로가와지구 정주형 취농프로그램
문화	일본 카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KAIR)
주택	일본 오카야마현 신조촌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일본 교토부 아야베시 정주지원사업
보육	프랑스 보육·교육정책
교통	일본 도야마시 대중교통중심 압축도시
인구정책	미국 축소도시 영스타운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제주 인구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대구경북연구원(2018), 지방소멸대응 경북 지역맞춤형 청년정책을 참고로 작성.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

1. 인구정책 추진 배경

- 출생아 수 감소, 노년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불균형 발생함
 - 합계 출산율 감소로 연간 출생아수 5,000명 선이 붕괴됨(2014년 5,526명에서 2018년 4,800명으로 감소)
 - 도내 전체 인구 가운데 유소년(0~14세) 비중은 감소(2014년 16%에서 2018년 15%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증가함(2014년 13.6%에서 2018년 14.4%로 증가)
 - 2030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르면 유소년 비중은 11%로 감소하며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사회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함
 - 연금, 의료비 등 노년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젊은 세대에 의한 지식창출, 소비, 생산 기회비용의 상실로 지역경제 활동이 위축됨
- 도내 인구성장을 주도하던 이주민(전입자) 감소폭이 확대됨
 - 2016년 순유입(전입-전출)인구 증가율이 감소한 이래로 2017년부터 총 전입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됨
 - 직업, 가족,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도외 전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2016년: 25,749명, 2017년: 27,747명, 2018년: 30,336명)
-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형성됨
 - 인구정책의 범위를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로 확대함
 - 가족의 범위를 결혼가족에서 1인 가구 등 모든 형태의 가구로 확대함
 - 양적 중심의 인구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소년,

생산가능인구, 노년층 간의 안정적인 인구성장을 추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라는 비전하에 4대전략 + 1(전략적 홍보)을 제시함
 - 4대전략은 ① 생산연령인구 확충, ② 저출산 대응, ③ 고령화 대응, ④ 인구정책 기반구축으로 구성됨
 - +1(전략적 홍보)는 인구정책 브랜드화, 유명 셀럽 연계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정책 홍보를 의미함

2. 인구정책 추진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급격한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결혼,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청·장년, 노년 등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
 - 인구정책 관련 조정 및 협의를 기반으로 개별 과제로 추진 중인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만족도 및 파급효과를 제고함
-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년층 등 생산가능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이러한 선순환 인구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청년 정착 지원을 강화함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재진입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규모 증대를 도모함

□ 통일된 인구 기준점 제시 및 인구정책 추진동력 확보

- 청년, 양육, 노년, 사회기반시설 등 분야별 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장래인구 기준 통합 관리를 도모함

-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실시함
 - 인구정책 관련 규정 제도화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5개년 단위 인구정책 수립을 하고자 함
 - 추진 영역별 정책 발굴과 추진방향 설정에 필요한 협의 및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구체적으로 프랑스·독일 등 인구정책 선진 운영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며 분야별 TF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인구정책 통합조정·관리를 도모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시 직면하게 되는 세수 감소 및 노인 관련 경직성 경비 지출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향을 수립함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함
- 지속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평가 및 인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정책 평가 체계 마련, 영역별 정책 추진 효과 분석을 통해 인구변화 대응력을 향상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제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정성평가 지표 개발 및 정책 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 도민 참여기반으로 제주 미래 인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인구구조 변화가 도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 인구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미래 인구 전망,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쇠락, 지역 소멸 등)를 형성하고자 함
 - 찾아가는 마을리더 교육 및 인재개발원 주관 도민 특강을 실시하며 대학생 대상으로는 도내 4개 대학 방문특강을 진행하고자 함
 - 인구정책 토론회, 온라인 등을 활용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인구정책 신규 사업 발굴(공모) 및 추진 중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수요자 중심의 분야별(청년, 양육, 노년 등) 정책 추진 방향 설정

- 지속 성장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
 - 도내 거주 청년뿐만 아니라, 도외 지역 청년도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로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인재 유입은 장려하고 유출은 최소화하고자 함
 -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기업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서비스를 집적화시킬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청년센터, 더 큰 내일센터 등 청년 지원 시설(조직) 간 사업 연계성을 높이고 정보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노후세대를 위한 정책마련을 하고자 함
 - 증가하는 노년 인구의 경제활동 재진입 지원과 공공 요양시설, 치매센터 등 노인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함
 - 노년인구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과 복지 관련 사업의 연계성 및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을 총괄하는 노인통합일자리센터 운영방안을 검토함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대응을 대비하고자 함
-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마련을 하고자 함
 -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년세대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며 단순 공공성을 띤 양육 역할 보조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공공성 강화, 아동중심의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족친화문화를 마련하고자 함
 - 양육 지원 확대, 다자녀 기준(3자녀→2자녀) 완화 및 공공임대 주택 보급 확대 등 양육·주거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마련을 하고자 함
 -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주택,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한 소형 공공임대 주택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인구변화에 따른 수요 맞춤형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 등을 도모함

3. 인구정책 시행계획

□ 생산연령인구 확충

- ‘더 큰 내일센터’ 참여 대상을 도외 청년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선 지원, 후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지원과 기업 및 지역 사회 기관 연계 전문적 인력양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도모함
 - 선발자의 25% 이내 범위 내에서 도외 청년 선정을 통해 도외 청년 참여를 확대함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외 청년 참여기준 완화를 도모함
 -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임
 - 지원대상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중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월 급여(주거지원비 제외) 280만원 미만인 자임
 - 도외지역 출신 청년의 참여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도외 지역 출신 청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정규직 근무 조건’을 없애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신청자격을 부여함
 - 이를 통해 도외 청년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함
- 제주형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연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을 하고자 함
- 생산가능인구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고령인구의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표 2-4]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 혁신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5,850	6,000	6,000	6,000	6,000
2.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00	300	300	300	300
3.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 사업	3,500	3,500	3,500	3,500	3,500
4. 생산연령인구 기준연령 상향(만64세→69세)	-	-	-	-	-
5.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 60+ 실버뱅크 구축	-	-	-	-	-
합계	9,650	9,800	9,800	9,800	9,8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연·월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표 2-5]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 주거비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800	800	800	800	800
2. 주거복지센터 운영	849	893	911	1,219	1,306
3. 행복주택 사업	1,121	3,576	3,647	3,720	4,000
4.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280	230	230	230	230
5.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00	200	200	200	200
합계	3,250	5,699	5,788	6,169	6,53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의 조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도내 대학 특성화 학과 역량 강화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자 함
- 도-대학-기업이 협업하여 우수한 인재를 공동 육성하고자 함

-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서 다양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재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함

【표 2-6】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 취·창업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제주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1,859	250	-	-	-
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4,098	3,750	3,750	3,750	3,750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2,271	1,823	985	-	-
4.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500	500	500	500	500
5.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700	1,700	1,700	1,700	1,700
6.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	960	960	960	960	-
7.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인턴십	250	250	250	250	250
8.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 사업	1,100	1,100	1,100	1,100	1,100
9.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	450	450	450	450	450
10. 제주청년센터 운영(청년활동 지원)	1,100	1,300	1,365	1,435	1,505
11. 청년문화매개 특성화 사업	455	500	500	500	500
12. 청년창업 지원 사업 공모	396	396	396	396	396
13. UCLG 글로벌 청년 문화포럼	317	297	300	300	300
14.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000	2,000	2,000	2,000	2,000
15. 청년 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30	30	30	30	30
16.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150	150	150	150	150
17.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 사업	500	500	500	500	500
18.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54	554	554	554	554
19.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30	30	30	30	30
20.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100	100	100	100	100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21.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1,101	1,427	1,001	1,001	1,001
22.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운영	1,877	79	-	-	-
23.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72	75	75	75	75
24.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600	600	-	-	-
25.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100	100	100	100	100
26.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600	600	600	600	600
27.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30	30	30	30	30
28. 제주 청년 갭이어 체류 프로그램 운영	152	160	160	160	160
29.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16	80	80	80	80
30. 귀농귀촌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70	70	70	70	70
31.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80	80	80	80	80
3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250	1,250	1,250	1,250	1,250
33.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39	349	359	369	349
34.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220	230	230	230	230
35. 채용 박람회 운영	126	126	126	126	126
36. 국민내일배움카드	1,880	2,000	2,000	2,000	2,000
37.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210	210	210	210	210
38.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60	1,260	1,260	1,260	1,260
39.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지원	1,009	1,059	1,112	1,167	1,224
40.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30	100	100	100	100
41. 취업준비생(AI 취업준비) 경쟁력 강화	100	100	100	100	100
42.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90	90	90	90	90
43.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4,552	2,731	-	-	-
44. 지능형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 사업	574	343	-	-	-
45. 이주청년 레벨업 지원	269	269	-	-	-
46.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250	250	250	250	250
47.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1,000	1,000	1,000	1,000	1,000
48.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81	81	81	81	81
49. 정착주민 '느영나영 사업'	61	61	61	61	61
합계	37,019	31,450	26,045	25,195	24,34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저출산 대응

- 한 자녀만 갖는(3인 가족) 비율이 과반(50%)을 차지하여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 도입이 절실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함

【표 2-7】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혁신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주거 임차비 최대 1.5천만원 지원	-	3,000	6,000	9,000	12,000
2. 1천만원 + 5년 만기 교육 적금 지원	-	2,500	5,000	7,500	10,000
3. 전기차 구입 보조금 1천만원 지원	-	2,500	2,500	2,500	2,500
4. 다자녀 가정 자녀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	-	-	-	-
합계	-	8,000	13,500	19,000	24,5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등 제주꿈바당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주만의 아동정책을 구현하고자 함
-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사업 등을 추진해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을 운영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표 2-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가족친화적 인프라 구축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수놓음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270	275	280	285	290
2.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452	455	460	465	470
3.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	362	362	362	362	362
4.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307	357	400	450	500
5.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지원	800	450	470	470	490
6.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	15	15	15	15
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74	480	485	490	495
8.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	20	20	20	20	20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853	1,853	1,853	1,853	1,853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4,571	4,800	5,040	5,292	5,567
1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비 추가지원	393	413	434	456	479
12.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147	154	162	170	178
13. 제주 아동친화도시 인증	85	-	-	-	-
14.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98	100	100	100	100
15.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	50	100	150	150	150
16. 심야버스안심귀가 서비스	800	800	800	800	800
17.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80	100	120	120	120
18.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9,509	8,484	3,932	3,932	3,932
19. 여성친화(성평등) 마을 조성 컨설팅	30	30	30	30	30
합계	20,316	19,248	15,113	15,460	15,85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표 2-9]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50	250	250	250	250
2.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100	100	100	100	100
3.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유연근무제 실시	-	-	-	-	-
4. 양성평등담당관 지정·운영	5	5	5	5	5
5. 공공·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	-	-	-
6.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300	700	900	900	900
7. 임신 초기 출산휴가제도 도입	-	-	-	-	-
합계	655	1,055	1,255	1,255	1,25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표 2-10]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육아의 공공성 확보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출산장려금 지원	6,207	6,517	6,823	7,164	7,522
2.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1,500	1,575	1,654	1,737	1,824
3.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사업	140	140	140	140	140
4. 출산여성 한약지원	120	120	120	120	120
5.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50	50	50	50	50
6.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10	1,000	1,100	1,200	1,300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48	748	748	748	748
8. 제주꿈바당 학습비 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9.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	-	-	-	-	-
합계	11,475	12,150	12,635	13,159	13,70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고령화 대응

- 노인들이 갖고 있는 경력, 기능, 지식, 교육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분야에 맞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사회공헌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고령인구의 건강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강화 및 건강활동 실적에 따른 건강활동 포인트제를 도입하고자 함

[표 2-11]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혁신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	-	40	40	40
2. 서비스 제공+수혜, 사회공헌 저축제도	-	-	20	10	10
3. 건강활동 포인트제 운영	210	210	230	230	250
합계	210	210	290	280	3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지역자원 연계,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조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예비노년층 노후 대비,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표 2-12]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건강한 노후보장 지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제주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	-	-	-	-
2.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 지원	227	250	250	250	250
3. 노인복지관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운영	2,261	1,920	1,935	1,950	1,965
4. 경로당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확대 운영	1,783	1,800	1,820	1,840	1,860
5. 저소득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74	74	74	74	74
6. 저소득노인 주거비 지원	1,080	1,080	1,080	1,080	1,080
7.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420	520	560	580	600
8.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사업	327	370	408	450	493
9.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설립·운영	634	680	700	720	740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추진	15	15	15	15	15
1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1,322	1,322	1,322	1,322	1,322
12.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0	450	500	550	600
13. 지역 교통안전사업 추진	146	200	200	200	200
14.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	80	80	80	80	80
15.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확대	698	786	890	992	1,116
16. 취약계층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8,902	9,500	10,100	10,700	11,300
17.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구축	680	700	850	1,000	1,200
18. 치매안심센터 운영	4,250	4,888	4,888	5,000	5,000
19.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9,130	9,130	9,130	9,130	9,130
20. 고령친화 관광환경 조성	1,361	460	460	500	500
21.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	50	50	50	50	50
22.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3,600	4,800	5,000	5,000	5,000
합계	37,440	39,075	40,312	41,483	42,57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표 2-13]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노인고용 촉진장려금 지원	1,196	1,196	1,196	1,196	1,196
2.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159	160	160	160	160
3.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	20	20	20	20
4. 5060 재능나눔 복지 컨설팅트 파견	300	300	300	300	300
5.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250	250	250	250	250
6.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50	50	50	50	50
7.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60	40	40	40	40
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9,882	43,870	46,064	48,366	50,784
합계	41,917	45,886	48,080	50,382	52,8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인구정책 기반 구축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사회 각 분야,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 강화 및 도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제주지역 내에서도 인구문제의 지역적 특성이 다른 만큼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해 지역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사회지표의 관계분석을 통해 제주도 인구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각종 도정계획 수립 시 상이한 인구 추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통일된 인구지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표 2-14] 인구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인구위기 대책 강구 민·관 네트워크 운영	0	10	10	10	10
2.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40	40	40	40	40
3.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2	3	3	3	3
4.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및 사업지원	-	-	-	-	-
5. 제주 생활인구 추계	0	50	0	50	0
6. 인구변화 분석 및 예측, 모니터링	20	20	20	20	20
합계	62	123	73	123	7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전략적 홍보

- 개인적·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성인기 이전 시기에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공무원과 교사의 인구교육을 통해 도민과 학생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도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다양한 인구정책사업들에 대해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정책의 도민 친밀감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 2-15] 전략적 홍보를 위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초·중·고 인구교육 정규과정 추진	-	-	-	-	-
2.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실시	10	10	10	10	10
3. 公共 교육원 필수교육과목 인구교육 개설	-	-	-	-	-
4. 제주인구정책 브랜드 설정	15	50	50	50	50
5. 제주 인구포럼 운영	0	0	50	0	50
6. 인구정책 다각적 홍보	40	150	150	150	150
합계	65	210	260	210	26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제1절 인구 현황

제2절 인구이동 현황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KRILA

제1절 인구 현황

1. 총인구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인구 성장률은 2015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둔화되는 추세임(2.81% → 0.57%)
-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2010년 571,255명에서 2019년 670,989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17.5%)
- 최근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1.62%)은 전국 평균(0.2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음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단위: 명, %)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2010	571,255	1.5	50,515,666	1.5
2011	576,156	0.9	50,734,284	0.4
2012	583,713	1.3	50,948,272	0.4
2013	593,806	1.7	51,141,463	0.4
2014	607,346	2.3	51,327,916	0.4
2015	624,395	2.8	51,529,338	0.4
2016	641,597	2.8	51,696,216	0.3
2017	657,083	2.4	51,778,544	0.2
2018	667,191	1.5	51,826,059	0.1
2019	670,989	0.6	51,849,861	0.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2. 연령별 인구 현황

- 총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음
 - 유소년인구는 2016년과 2017년에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감소세를 유지함
 -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의 증가율이 높음
 - 특히 핵심생산연령인구(25세~49세)는 2018년에는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0.6% 감소함

[표 3-2]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핵심생산연령인구 (25~49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2010	571,255	1.5	103,551	-2.6	398,063	2.2	224,184	-0.1	69,641	4.4
2011	576,156	0.9	101,220	-2.3	402,356	1.1	221,639	-1.1	72,580	4.2
2012	583,713	1.3	99,758	-1.4	408,030	1.4	220,655	-0.4	75,925	4.6
2013	593,806	1.7	98,936	-0.8	415,565	1.8	220,931	0.1	79,305	4.5
2014	607,346	2.3	98,461	-0.5	426,474	2.6	223,704	1.3	82,411	3.9
2015	624,395	2.8	97,811	-0.7	440,691	3.3	227,877	1.9	85,893	4.2
2016	641,597	2.8	98,117	0.3	454,291	3.1	232,769	2.1	89,189	3.8
2017	657,083	2.4	98,727	0.6	465,239	2.4	237,806	2.2	93,117	4.4
2018	667,191	1.5	98,261	-0.5	472,723	1.6	239,519	0.7	96,207	3.3
2019	670,989	0.6	96,889	-1.4	473,703	0.2	238,015	-0.6	100,397	4.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연령별 인구 비중의 경우 경제활동의 증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생산인구(25~49세)와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증가 추세를 보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2019년 감소함
- 유소년인구 비중은 2010년 18.1%에서 2019년 14.4%로 3.7%p 감소하였음
 -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1.3%p 증가하였으나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중은 17.3%p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를 의미함
 - 고령인구는 비중은 2010년 12.2%에서 2018년 14.4%으로 2.2%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14.2%)로 진입하였음 14)

【표 3-3】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인구 비중

(단위: %)

연도	제주					전국				
	계	유소년 인구 (0~14세)	생산연 령인구 (15~64)	핵심생 산연령 인구 (25~49)	고령 인구 (65세 이상)	계	유소년 인구 (0~14세)	생산연 령인구 (15~64)	핵심생 산연령 인구 (25~49)	고령 인구 (65세 이상)
2010	100	18.1	69.7	52.3	12.2	100	15.9	73.2	41.5	10.9
2011	100	17.6	69.8	51.8	12.6	100	15.4	73.4	40.6	11.2
2012	100	17.1	69.9	51.3	13.0	100	15.0	73.3	39.9	11.7
2013	100	16.7	70.0	50.8	13.4	100	14.5	73.2	39.3	12.2
2014	100	16.2	70.2	50.4	13.6	100	14.1	73.2	38.8	12.7
2015	100	15.7	70.6	50.1	13.8	100	13.7	73.1	38.2	13.1
2016	100	15.3	70.8	49.5	13.9	100	13.4	73.1	37.8	13.5
2017	100	15.0	70.8	49.0	14.2	100	13.1	72.7	37.5	14.2
2018	100	14.7	70.9	48.3	14.4	100	12.8	72.4	37.0	14.8
2019	100	14.4	70.6	35.5	15.5	100	12.5	72.0	36.5	15.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14) 통계청의 2019년도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65세 인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① 고령화 사회(7%), ② 고령사회(14%), ③ 초고령사회(20%)로 구분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7년 초고령 사회(20.1%)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됨.

- 2014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10대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인구 수는 증가하였으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50대 이상 인구증가율이 유소년 및 청년층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인구 중 40대와 50대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14년 대비 2019년에는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음
 - 30대 및 40대 인구 비중은 2014년 대비 2019년 감소하였음
 - 10대 이하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20대는 증가하는 추세임

[표 3-4] 2014년 대비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
(단위: 명, %)

구분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2014년	61,663	79,202	70,883	84,968	107,887	92,145	53,120	57,478	607,346
비중	10.2	13.0	11.7	14.0	17.8	15.2	8.7	9.5	100.0
2019년	62,286	72,127	82,155	84,830	113,091	110,759	74,425	71,316	670,989
비중	9.3	10.7	12.2	12.6	16.9	16.5	11.1	10.6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도의 총 부양비¹⁵⁾는 2010년(43.5%)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증가세로 전환됨. 총 부양비가 감소해온 주요 원인은 제주지역 유소년 부양비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으로 판단됨. 반면 2019년 총 부양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 증가 감소세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 2010~2019년 기준 제주도 총 부양비 증가율은 연평균 0.6%로 전국평균(0.4%) 대비 낮은 증가세를 보임

15)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인구의 연령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임

【표 3-5】 제주도 총 부양비 및 증가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부양비	43.5	43.2	43.1	42.9	42.4	41.7	41.2	41.2	41.1	41.6	
증가율	전국	-1.9	-0.7	0.4	0.3	0.4	0.1	0.3	2.1	1.2	2.0
	제주	-2.0	-0.7	-0.3	-0.4	-1.1	-1.7	-1.1	0.0	-0.2	1.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도의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그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2010년(26.0%)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기준 20.5%로 나타남
 - 2010~2019년 기준 제주도 유소년 부양비 증가율은 연평균 2.8%로 전국 평균(2.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009~2016년 연평균 유소년 부양비 증가율(3.3%)보다 2017~2019년 연평균 유소년 부양비 증가율(2.7%)이 낮게 나타남

【표 3-6】 제주도 유소년 부양비 및 증가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소년 부양비	26.0	25.2	24.4	23.8	23.1	22.2	21.6	21.2	20.8	20.5	
증가율	전국	-4.7	-3.2	-2.7	-2.8	-2.7	-3.0	-2.3	-1.5	-2.1	-1.9
	제주	-4.6	-3.3	-2.8	-2.6	-3.0	-3.9	-2.7	-1.7	-2.0	-1.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도의 노년 부양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2010년(17.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21.2%로 나타남
 - 2010~2019년 기준 제주도 노년 부양비 증가율은 연평균 2.2%로 전국 평균(4.0%) 대비 낮은 증가세를 보임
 - 제주도 노년 부양비 증가율은 최근(2014~2018년) 2% 미만의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4.1%를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표 3-7] 제주도 노년 부양비 및 증가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년 부양비	17.5	18.0	18.6	19.1	19.3	19.5	19.6	20.0	20.4	21.2	
증가율	전국	2.5	2.9	4.6	4.2	4.0	3.5	3.0	5.6	4.2	5.5
	제주	2.2	3.1	3.2	2.6	1.3	0.9	0.7	1.9	1.7	4.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도의 노령화 지수는 2010년 67.3%에서 2019년 103.6%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향후 유소년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2019년 제주도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평균(6.9%)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임

[표 3-8] 제주도 노령화 지수 및 증가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령화 지수	67.3	71.7	76.1	80.2	83.7	87.8	90.9	94.3	97.9	103.6	
증가율	전국	7.5	6.3	7.5	7.2	6.9	6.7	5.4	7.2	6.5	7.5
	제주	7.2	6.6	6.1	5.3	4.4	4.9	3.5	3.8	3.8	5.8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도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 36.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이전에 고령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율이 1:1을 넘어서 2047년에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가 351.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제주도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2.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4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69.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3-9] 제주도 노령화 지수 및 노년 부양비 전망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노령화 지수	36.1	45.9	64.8	84.6	104.8	144.1	196.3	241.0	279.9	326.7
노년 부양비	12.0	14.9	18.0	19.6	21.4	26.9	34.1	43.4	55.0	64.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3. 지역별 인구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총인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각각 72.9%와 27.1%으로 제주시(산북), 서귀포시(산남) 간 인구집중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최근 10년간(2010~2019년) 인구변화를 보면 제주시가 17%, 서귀포시가 18%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최근 5년간(2015~2019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제주시는 7.0%, 서귀포시가 11.1%로 최근 서귀포시의 인구증가율이 높음

[표 3-10]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인구 분포

(단위: 명, %)

구분	제주도(명)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	집중도	인구	집중도
2010년	571,255	417,539	73.1	153,716	26.9
2011년	576,156	422,790	73.4	153,366	26.6
2012년	583,713	429,656	73.6	154,057	26.4
2013년	593,806	438,165	73.8	155,641	26.2
2014년	607,346	448,834	73.9	158,512	26.1
2015년	624,395	459,876	73.7	164,519	26.3
2016년	641,597	470,665	73.4	170,932	26.6
2017년	657,083	478,700	72.9	178,383	27.1
2018년	667,191	485,946	72.8	181,245	27.2
2019년	670,989	489,405	72.9	181,584	27.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43개 읍면동별 인구 규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인구의 56.4%(378,916명)가 제주시 동권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됨
 - 동지역의 인구 규모는 노형동(54,222명), 이도이동(49,964명), 연동(41,513명), 아라동(34,8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의 인구를 비교한 결과, 제주시 동권역 인접지역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의 인구 규모는 애월읍(36,233명), 조천읍(24,670명), 한림읍(21,365명), 대정읍(21,3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정읍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의 영향으로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3-11]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동별 인구 규모

(단위: 명, %)

구분	인구 규모		구분	인구 규모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제주지역	670,989	100.0				
제주시 동권역	일도일동	2,724	서귀포시 동권역	송산동	4,286	0.6
	일도이동	33,683		정방동	2,276	0.3
	이도일동	7,649		중앙동	3,705	0.6
	이도이동	49,964		천지동	3,544	0.5
	삼도일동	13,854		효돈동	5,291	0.8
	삼도이동	8,174		영천동	5,289	0.8
	용담일동	7,225		동홍동	23,118	3.4
	용담이동	15,074		서홍동	10,433	1.6
	건입동	9,311				
	화북동	24,855				
	삼양동	25,702				
	봉개동	5,270				

구분		인구 규모		구분		인구 규모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아라동	34,806	5.2		대륜동	14,443	2.2	
	오라동	15,334	2.3		대천동	13,785	2.1	
	연 동	41,513	6.2			중문동	11,337	1.7
	노형동	54,222	8.1		예래동		3,974	0.6
	외도동	21,801	3.2				합계	378,916
	이호동	4,569	0.7			합계		101,481
	도두동	3,186	0.5				제주시 서부권역	애월읍
합계	378,916	56.4	서귀포시 서부권역	대정읍	21,334	3.2		
	제주시 서부권역	한림읍		21,365	3.2	안덕면		12,023
		한경면		9,037	1.3		합계	66,635
제주시 동부권역	조천읍	24,670	3.7	서귀포시 동부권역	남원읍	18,905		2.8
	합계	40,259	6		성산읍	15,557	2.3	
		구좌읍	15,589		2.3	표선면	12,284	1.8
추자면	1,733	0.3	합계	46,746	6.9	우도면	1,862	0.3
	합계	1,733		0.3	합계		1,862	0.3
		합계		1,733			0.3	합계

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12.31. 기준; 통계청(<http://kostat.go.kr/>).

제2절 인구이동 현황

1. 자연적 증가 현황

- 최근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 증가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감소세가 크게 확대됨
 - 제주지역 자연 증가 인구는 2010년 2,640명에서 2019년 562명(잠정)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5.8% 수준임
 - 같은 기간 전국 자연 증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30.7%로 제주지역보다 감소세가 높음
 - 그러나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0~2013년 기준 자연 증가 인구증가율은 -8.7%였으나 2016~2019년 기준 증가율은 -34.0%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표 3-1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 증가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0	2013	2016	2019 (p)	증가율			
					'10~'13	'13~'16	'16~'19(p)	'10~'19(p)
제주	2,640	2,011	1,952	562	-8.7	-1.0	-34.0	-15.8
전국	214,766	170,198	125,416	7,922	-7.5	-9.7	-60.2	-30.7

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증가율 -2.5%)하여 전국(-4.8%)보다는 감소세가 낮지만, 최근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3.0% 증가)하여 전국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1.6%에 비해 높음

[표 3-13]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

구분		2010	2013	2016	2019 (p)	증가율			
						'10~'13	'13~'16	'16~'19(p)	'10~'19(p)
출생아 수	제주	5,657	5,328	5,494	4,509	-2.0	1.0	-6.4	-2.5
	전국	470,171	436,455	406,243	303,054	-2.4	-2.4	-9.3	-4.8
사망자 수	제주	3,017	3,317	3,542	3,948	3.2	2.2	3.7	3.0
	전국	255,405	266,257	280,827	295,132	1.4	1.8	1.7	1.6

주: 통계청, 「국내인구동향조사」; 통계청(<http://kostat.go.kr/>).

2. 사회적 증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총전입 수-총전출 수)¹⁶⁾ 추이를 살펴보면 순이동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제주지역 순이동인구는 2010년 437명에서 2016년 14,632명, 2017년 1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으로 증가함
- 그러나 2016년 도내 순유입(전입-전출) 최고점을 이룬 이후, 전입은 감소하고 전출이 증가하여 순유입 감소 규모가 확대됨
 - 제주지역 총전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제주지역 총전출 수는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제주지역 전입인구는 2018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전출인구는 6.2% 증가함
 -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는 2018년 대비 66.8% 감소함

16)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인구수를 의미하며,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는 전입초과(순유입), 전입 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는 전출초과(순유출)로 정의함.

[표 3-14]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전입(A)	21,717	22,862	25,221	28,244	32,835	38,544	40,381	41,752	39,189	35,158
총전출(B)	21,280	20,519	20,345	20,421	21,723	24,287	25,749	27,747	30,336	32,222
순이동(C=A-B)	437	2,343	4,876	7,823	11,112	14,257	14,632	14,005	8,853	2,936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 최근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별 전입·전출인구를 살펴보면 전입·전출 인구 간 차이가 줄어들면서 순이동인구가 급감하며, 2020년 1분기에는 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함
 - 2019년 1분기 기준 순이동인구는 753명인 반면, 2020년 1분기의 순이동인구는 -56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표 3-15] 분기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1분기	2019.2분기	2019.3분기	2019.4분기	2020.1분기
총전입	11,001	8,173	8,203	7,781	10,767
총전출	10,248	6,783	7,573	7,618	11,335
순유입	753	1,390	630	163	-568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인구를 연령층별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의 순이동 증가가 제주도 사회적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유소년인구(0~14세), 고령인구(65세 이상)에 비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순이동 변화추이가 연도별로 크게 차이남. 구체적으로 2010년(79명)부터 2016(11,429명)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하여 2019년 기준 2,029명으로 감소함

【표 3-16】 제주특별자치도 연령층별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소년인구	284	603	1,135	1,850	2,099	2,413	2,505	2,513	1,786	815
생산가능인구	79	1,528	3,467	5,687	8,563	11,124	11,429	10,978	6,814	2,029
고령인구	74	212	274	186	450	720	698	514	253	92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 생산가능인구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25~49세(핵심생산인구)의 인구가 이동이 순이동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
 - 15~24세, 50~64세의 순이동 변화추이는 연도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은 반면 25~49세의 순이동 변화추이는 연도별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17】 제주특별자치도 연령층별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24세	-695	-598	-639	-227	19	118	155	279	-126	-1,092
25~49세	428	1,381	2,930	4,456	6,383	7,706	7,900	7,792	5,237	2,284
50~64세	346	745	1,176	1,458	2,161	3,300	3,374	2,907	1,703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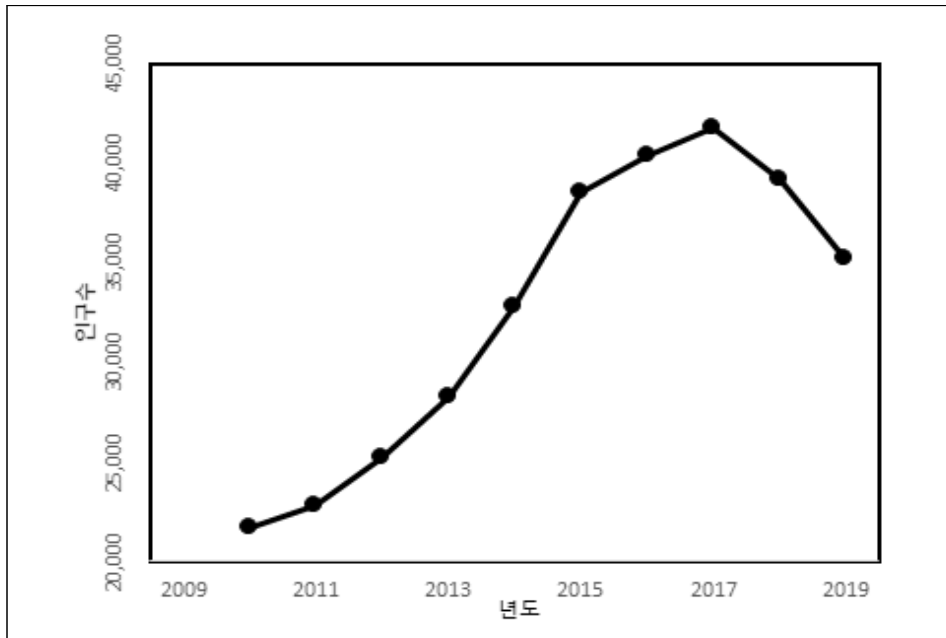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3. 전입·전출인구 현황

가. 전입인구 현황

- 2010~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입인구, 즉 다른 지역에서 제주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제주지역 전입인구는 2010년 21,717명에서 2019년 35,158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9년 제주지역으로의 전입인구는 2018년 대비 -10.3%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 통계청(<http://kostat.go.kr/>).

- 2010~2019년 기준 제주지역 연령별 전입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연평균 8.9%) 및 60대 이상(연평균 9.5%) 전입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2019년 단년도 기준으로 제주지역 연령별 전입인구를 살펴봤을 경우에는 20대(21.9%) 및 30대(20.4%)의 전입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전입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0	2013	2016	2019(비중)	증가율			
					'10~'13	'13~'16	'16~'19	'10~'19
합계	21,717	28,244	40,381	35,158	9.2	12.7	-4.5	5.5
10대 이하	4,505	5,771	7,124	5,884(16.7)	8.6	7.3	-6.2	3.0
20대	4,921	5,249	7,325	7,704(21.9)	2.2	11.7	1.7	5.1
30대	5,036	6,785	9,111	7,173(20.4)	10.4	10.3	-7.7	4.0
40대	3,554	5,010	7,360	6,275(17.8)	12.1	13.7	-5.2	6.5
50대	2,174	3,242	5,699	4,669(13.3)	14.2	20.7	-6.4	8.9
60대 이상	1,527	2,187	3,762	3,453(9.8)	12.7	19.8	-2.8	9.5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지역 연령층별 전입인구 비중 추이를 보면 타 연령층에 비해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82.1%이며,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는 50.6%를 차지함
- 최근 10년간 유소년인구 비중(연평균 -2.0%)과 핵심생산연령인구(연평균 -0.7%) 비중이 감소함

[표 3-19]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층별 전입인구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3	2016	2019	증가율			
					'10~'13	'13~'16	'16~'19	'10~'19
유소년인구	15.3	16.1	14.0	12.7	1.6	-4.5	-3.1	-2.0
생산연령인구	80.0	79.1	81.0	82.1	-0.4	0.8	0.4	0.3
핵심생산연령인구	53.9	52.5	50.5	50.6	-0.9	-1.3	0.1	-0.7
고령인구	4.7	4.8	5.0	5.2	0.9	1.0	1.5	1.1
제주전입인구	100.0	100.0	100.0	100.0	-	-	-	-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 전입 지역의 경우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제주지역 전입인구의 64.8%(25,386명)가 제주시로 전입함
 - 2009~2018년 기준 지역별 전입인구 분석 결과 영어교육도시 인접 지역인 대정읍 및 안덕면의 전입인구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제주특별자치도 전입인구의 지역별 전입지역 분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9	2012	2015	2018(비중)	증가율				
					'09~'12	'12~'15	'15~'18	'09~'18	
제주시	동지역	11,853	13,605	18,352	17,292(44.2)	4.7	10.5	-2.0	4.3
	읍면지역	3,636	4,509	7,422	8,094(20.7)	7.4	18.1	2.9	9.3
	한림	748	952	1,372	1,563(4.0)	8.4	13.0	4.4	8.5
	애월	1,029	1,575	2,564	2,809(7.2)	15.2	17.6	3.1	11.8
	구좌	444	542	1,032	1,048(2.7)	6.9	23.9	0.5	10.0
	조천	855	849	1,549	1,887(4.8)	-0.2	22.2	6.8	9.2
	한경	212	367	605	576(1.5)	20.1	18.1	-1.6	11.7
	추자	282	149	113	88(0.2)	-19.2	-8.8	-8.0	-12.1
	우도	66	75	187	123(0.3)	4.4	35.6	-13.0	7.2
소계	15,489	18,114	25,774	25,386(64.8)	5.4	12.5	-0.5	5.6	

구분	2009	2012	2015	2018(비중)	증가율				
					'09~'12	'12~'15	'15~'18	'09~'18	
서귀포시	동지역	3,179	4,024	6,631	7,334(18.7)	8.2	18.1	3.4	9.7
	읍면지역	2,205	3,061	6,105	6,441(16.4)	11.6	25.9	1.8	12.6
	대정	452	670	2,037	2,142(5.5)	14.0	44.9	1.7	18.9
	남원	406	636	1,143	849(2.2)	16.1	21.6	-9.4	8.5
	성산	548	712	1,281	1,269(3.2)	9.1	21.6	-0.3	9.8
	안덕	279	497	714	1,136(2.9)	21.2	12.8	16.7	16.9
	표선	520	546	930	1,045(2.7)	1.6	19.4	4.0	8.1
	소계	5,384	7,085	12,736	13,775(35.2)	9.6	21.6	2.6	11.0
합계	20,873	25,199	38,510	39,161(100.0)	6.5	15.2	0.6	7.2	

주: 고태호(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주연구원, p.26.

- 제주특별자치도 전입인구의 가족동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10대 이하 전입자의 가족동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10대 이하(85.4%), 40대(39.1%), 30대(37.7%), 60대 이상(29.7%), 50대(27.6%), 20대(1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주도로 전입하는 20대는 단독으로 전입하는 비율(85.4%)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21] 제주특별자치도 전입인구의 가족동반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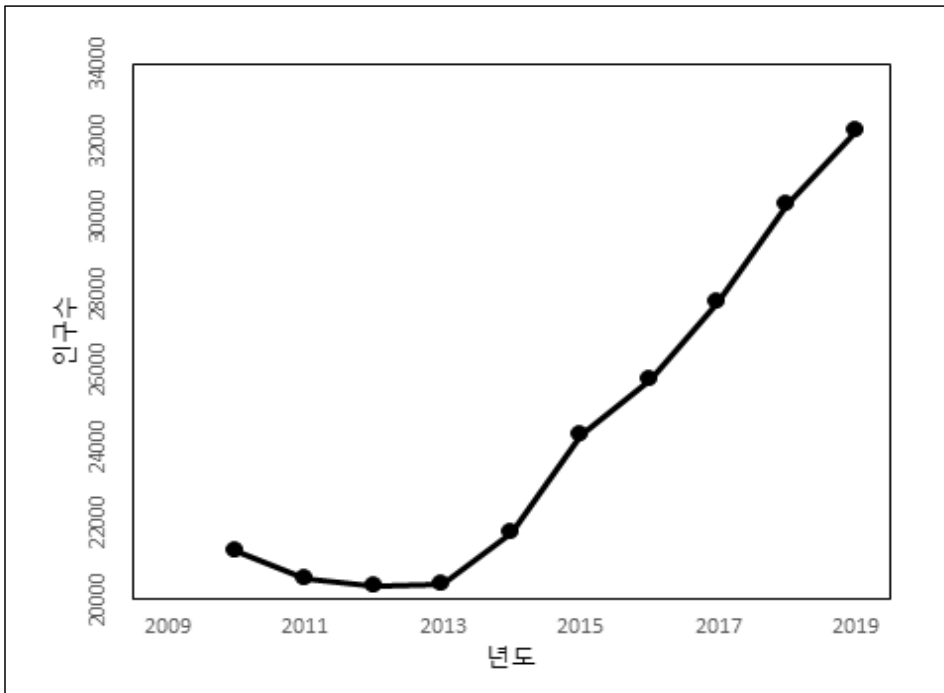
구분	가족동반		단독		소계	
	전입인구 수	비중	전입인구 수	비중	전입인구 수	비중
10대 이하	5,607	85.4	959	14.6	6,566	100.0
20대	1,146	14.6	6,724	85.4	7,870	100.0
30대	3,219	37.7	5,313	62.3	8,532	100.0
40대	2,773	39.1	4,320	60.9	7,093	100.0
50대	1,443	27.6	3,791	72.4	5,234	100.0
60대 이상	1,149	29.7	2,716	70.3	3,865	100.0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나. 전출인구 현황

- 2010~2019년 기준 제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은 2012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규모도 확대됨
- 2010~2012년 기준 제주지역 전출인구 증가율은 -2.2%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3~2019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7.9%임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 전출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 통계청(<http://kostat.go.kr/>).

- 최근 10년간 제주지역 전출인구의 연령별 규모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60대 전출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 2010~2019년 기준 제주지역 연령별 전출인구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대

- 는 연평균 8.9%, 60대 이상은 연평균 9.4% 증가함
- 반면 2019년 단년도 기준으로는 제주지역 전출인구 32,222명 중 20대가 27.1%(8,733명), 30대는 17.7%(5,701명), 40대는 16.4%(4,003명)를 차지함
 - 도외 전출인구는 최근 10년간 모든 세대에서 증가하였으나 총 전출자의 약 60~63%가 20~40대로 구성함

[표 3-22]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전출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0	2013	2016	2019(비중)	증가율			
					'10~'13	'13~'16	'16~'19	'10~'19
합계	21,280	20,421	25,749	32,222(100)	-1.4	8.0	7.8	4.7
10대 이하	4,356	3,873	4,527	5,295(16.4)	-3.8	5.3	5.4	2.2
20대	5,923	5,319	6,665	8,733(27.1)	-3.5	7.8	9.4	4.4
30대	4,477	4,334	5,069	5,701(17.7)	-1.1	5.4	4.0	2.7
40대	3,243	3,210	4,099	5,300(16.4)	-0.3	8.5	8.9	5.6
50대	1,865	2,078	3,094	4,003(12.4)	3.7	14.2	9.0	8.9
60대	1,416	1,607	2,295	3,190(9.9)	4.3	12.6	11.6	9.4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 전출지역은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남
 - 전출지역은 서울(26.4%), 경기(24.5%), 부산(6.9%), 인천(6.0%), 경상남도(5.7%)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표 3-23]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지역별 전출지역 분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0	2014	2016	2019(비중)	증가율			
					'10~'13	'13~'16	'16~'19	'10~'19
서울	5,632	5,410	6,634	8,513(26.4)	-1.3	7.0	8.7	4.7
부산	1,707	1,576	1,853	2,211(6.9)	-2.6	5.5	6.1	2.9
대구	609	620	823	1,006(3.1)	0.6	9.9	6.9	5.7
인천	1,077	1,167	1,414	1,946(6.0)	2.7	6.6	11.2	6.8

구분	2010	2014	2016	2019(비중)	증가율			
					'10~'13	'13~'16	'16~'19	'10~'19
광주	801	767	741	910(2.8)	-1.4	-1.1	7.1	1.4
대전	522	480	631	723(2.2)	-2.8	9.5	4.6	3.7
울산	380	356	430	565(1.8)	-2.2	6.5	9.5	4.5
세종	-	74	210	322(1.0)	100.0	41.6	15.3	100.0
강원	542	511	694	784(2.4)	-1.9	10.7	4.1	4.2
경기	5,022	4,775	6,520	7,884(24.5)	-1.7	10.9	6.5	5.1
충북	478	433	726	839(2.6)	-3.2	18.8	4.9	6.5
충남	774	676	834	1,131(3.5)	-4.4	7.3	10.7	4.3
전북	672	516	733	1,032(3.2)	-8.4	12.4	12.1	4.9
전남	1,002	1,001	1,127	1,302(4.0)	0.0	4.0	4.9	3.0
경북	738	781	931	1,229(3.8)	1.9	6.0	9.7	5.8
경남	1,324	1,278	1,448	1,825(5.7)	-1.2	4.3	8.0	3.6
합계	21,280	20,421	25,749	32,222(100.0)	-1.4	8.0	7.8	4.7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 제주지역 거주기간별 전출인구 분석 결과 거주 2년 미만인 인구의 전출 비중이 49.4%를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거주 4~6년 이상, 6~8년 이상 인구의 전출이 급격히 증가함
 - 제주지역 거주 1년 미만인 인구의 전출이 가장 높으며(30.8%), 거주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인구의 전출이 18.6%임
 - 2015~2018년 기준으로는 6년 이상 8년 미만인 인구가 78.9%, 4년 이상 6년 미만인 인구가 4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거주 4~6년 이상, 6~8년 이상 인구의 전출이 급격히 증가함
 -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제주지역 내 대학 입학 등을 이유로 전입한 인구가 학교 졸업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3-24]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제주지역 거주기간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9	2012	2015	2018 (비중)	증가율			
					'09~'12	'12~'15	'15~'18	'09~'18
1년 이하	5,895	5,214	7,799	9,334 (30.8)	-4.0	14.4	6.2	5.2
1년 이상~ 2년 미만	4,693	824	4,411	5,650 (18.6)	-44.0	74.9	8.6	2.1
2년 이상~ 4년 미만	4,674	1,258	6,164	6,317 (20.8)	-35.4	69.8	0.8	3.4
4년 이상~ 6년 미만	485	1,339	1,128	3,721 (12.3)	40.3	-5.6	48.9	25.4
6년 이상~ 8년 미만	151	667	238	1,362 (4.5)	64.1	-29.1	78.9	27.7
8년 이상~ 10년 미만	93	3	6	9 (0.0)	-68.2	26.0	14.5	-22.9
제주도민 (10년 이상)	5,889	11,041	4,531	3,929 (13.0)	23.3	-25.7	-4.6	-4.4
합계	21,880	20,346	24,277	30,322 (100.0)	-2.4	6.1	7.7	3.7

주: 고태호(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주연구원, p.35.

- 2018년 기준 제주지역에서 전출한 전입인구는 제주에서 평균 약 2.2년(약 803일) 거주함

[표 3-25]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연령별 제주지역 평균 거주기간

(단위: 일, 년)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
평균 거주일	639	950	829	806	796	749	791	884	803
평균 거주년 수	1.7	2.6	2.3	2.2	2.2	2.1	2.2	2.4	2.2

주: 고태호(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2018년 기준, 제주연구원, p.36.

-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가족동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10대 이하 전출자의 가족동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10대 이하(80.3%), 40대(38.4%), 30대(33.6%), 60대 이상(29.3%), 50대(26.5%), 20대(1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주도로 전입하는 20대는 단독으로 전출하는 비율(85.0%)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26] 제주특별자치도 전출인구의 가족동반 여부

(단위: 명)

구분	가족동반		단독		소계	
	전출인구 수	비중	전출인구 수	비중	전출인구 수	비중
10대 이하	3,838	80.3	942	19.7	4,780	100.0
20대	1,161	15.0	6,568	85.0	7,729	100.0
30대	1,904	33.6	3,768	66.4	5,672	100.0
40대	1,966	38.4	3,148	61.6	5,114	100.0
50대	1,038	26.5	2,875	73.5	3,913	100.0
60대 이상	911	29.3	2,203	70.7	3,114	100.0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다. 전입·전출 이유

- 제주 전입 및 전출의 주요 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등임
 - 전입 사유는 직업(43%), 가족(24%), 주택(13%), 교육(6%), 자연환경(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전출 사유 역시 직업(39%), 가족(28%), 주택(14%), 교육(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전입 사유는 직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출 사유는 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과 주택, 교육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7]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 전입 및 전출 사유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전 입	비중	전 출	비중	전 입	비중	전 출	비중	전 입	비중	전 출	비중
계	41,752	100	27,747	100	39,189	100	30,336	100	35,158	100	32,222	100
① 직 업	19,008	45	10,214	37	17,214	44	11,473	38	15,058	43	12,563	39
② 가 족	9,468	23	8,288	30	8,893	23	8,996	30	8,577	24	9,154	28
③ 주 택	6,242	15	4,510	16	5,288	13	4,596	15	4,467	13	4,608	14
④ 교 육	2,586	6	2,314	8	2,409	6	2,530	8	2,142	6	2,964	9
주거환경	667	2	488	2	645	2	594	2	936	3	829	3
자연환경	2,126	5	293	1	2,196	6	324	1	2,193	6	312	1
기 타	1,655	4	1,640	6	2,544	6	1,823	6	1,785	5	1,792	6

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제4장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이주의향 분석

제1절 설문분석 개요

제2절 이주의향에 관한 인식 분석

제3절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주 영향요인 분석

제4절 이주민 대상 FGI 결과

제5절 분석결과 종합

제4장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이주의향 분석

제1절 설문분석 개요

1. 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5세 이상 만 50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2,000명을 목표 인원으로 설정하였음
 - 설문조사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국리서치 MS 패널 45만 명을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음
- 설문조사의 표본은 2020년 3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에 맞춰 추출하였음
 - 총 32,993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 중에서 2,660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8.1%의 응답률을 나타냄
 - 설문참여자에 대한 검증 결과 648명의 응답이 설문분석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설문분석에 사용한 응답자 수는 2,012명으로 최종 성공률은 6.1%로 나타났음

[표 4-1] 설문조사 결과 및 응답률

구분		인원수	비율
메일발송인원		32,993	100.0%
설문참여(성공+실패)		2,660	8.1%
성공	설문완료	2,012	6.1%
실패	쿼터탈락	131	0.4%
	검증탈락	181	0.5%
	쿼터오버	151	0.5%
	설문중단	185	0.6%

2. 응답자 특성

-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성 응답자가 51,011명(50.2%)으로 여성 응답자(1,001명, 49.8%)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 응답자 특성: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성	1,011	50.2
여성	1,001	49.8
합계	2,012	100.0

- 연령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40대 응답자가 844명(41.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30대(772명, 38.4%)와 20대(396명, 19.7%)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4-3] 응답자 특성: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25세 이상)	396	19.7
30대	772	38.4
40대	844	41.9
합계	2,012	100.0

-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096명(54.5%)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응답자(916명, 45.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중 수원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35명(6.7%)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고양(117명, 5.8%)과 용인(109명, 5.4%)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4-4] 응답자 특성: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특별시	1,096	54.5
경기도	916	45.5
합계	2,012	100.0

- 제주로의 이주의향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1,036명(51.5%)으로 이주의향이 없는 응답자(976명, 48.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 응답자 특성: 이주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이주의향 있음	1,036	51.5
이주의향 없음	976	48.5
합계	2,012	100.0

- 제주 거주경험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1,857명(92.3%)으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155명, 7.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 응답자 특성: 거주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경험 있음	155	7.7
거주경험 없음	1,857	92.3
합계	2,012	100.0

- 고향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응답자가 2,004명(99.6%)으로 제주가 고향인 응답자(8명, 0.4%)보다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7] 응답자 특성: 고향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	8	0.4
제주 이외 지역	2,004	99.6
합계	2,012	100.0

- 혼인상태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152명(57.3%)으로 결혼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860명, 42.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8] 응답자 특성: 혼인상태

구분	빈도(명)	비율(%)
미혼/비혼	860	42.7
결혼/이혼/사별	1,152	57.3
합계	2,012	100.0

- 최종 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종 학력이 대학 재학 이상인 응답자가 1,741명(86.5%)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자(271명, 13.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9] 응답자 특성: 최종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고졸 이하	271	13.5
대졸(재학 포함)	1,483	73.7
대학원 이상	258	12.8
합계	2,012	100.0

-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월 평균 가구소득이 400-600만 원 미만인 응답자가 687명(3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200-400만 원 미만(623명, 31.0%)과 600-800만 원 미만(342명, 17.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표 4-10] 응답자 특성: 월 평균 가구소득

구분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110	5.5
200-400만원 미만	623	31.0
400-600만원 미만	687	34.1
600-800만원 미만	342	17.0
800만원 이상	250	12.4
합계	2,012	100.0

제2절 이주의향에 관한 인식 분석

1. 삶의 질에 관한 인식

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 삶의 질 중요도

- 전체 응답자는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주거(6.25점)와 교통·생활편의시설(6.20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보건·의료(6.08점), 일자리·경제활동(5.95점), 문화·여가(5.7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출산·보육(5.43점), 교육(5.56점), 문화·여가(5.70점)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남
- 삶의 질 중요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출산·보육을 제외한 6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7개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보육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분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됨
 - 여성은 주거(6.31점), 교통·생활편의시설(6.30점), 보건·의료(6.18점)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도 주거(6.19점), 교통·생활편의시설(6.10점), 보건·의료(5.98점)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여성보다는 평균이 낮게 나타났음

【표 4-11】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성별에 따른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주거	6.25	6.19	6.31	-3.178***
교육	5.56	5.47	5.66	-3.466***
출산·보육	5.43	5.41	5.45	-0.655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보건·의료	6.08	5.98	6.18	-5.070***
문화·여가	5.70	5.56	5.84	-6.301***
교통·생활편의시설	6.20	6.10	6.30	-5.140***
일자리·경제활동	5.95	5.88	6.01	-3.005***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삶의 질 만족도

- 전체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5.26점)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교통·생활편의시설 만족도(5.20점), 보건·의료시설 만족도(5.07점),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5.01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일자리·경제활동(4.55점), 출산·보육(4.66점), 교육(4.82점)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8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의시설, 일자리·경제활동 및 전반적 만족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주거(5.32점)와 교통·생활편의시설(5.28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자리·경제활동(4.62점)과 출산·보육(4.68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남성도 주거(5.19점)와 교통·생활편의시설(5.13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일자리·경제활동(4.48점)과 출산·보육(4.64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전반적인 만족도와 주거 만족도에서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1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주거	5.26	5.19	5.32	-2.547**
교육	4.82	4.82	4.83	-0.175
출산·보육	4.66	4.64	4.68	-0.959
보건·의료	5.07	5.04	5.10	-1.191
문화·여가	4.83	4.76	4.90	-2.222**
교통·생활편의시설	5.20	5.13	5.28	-2.374**
일자리·경제활동	4.55	4.48	4.62	-2.322**
전반적 만족도	5.01	4.94	5.08	-2.778***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나.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 삶의 질 중요도

- 삶의 질의 중요도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출산·보육, 보건·의료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경우 40대(5.78점)와 20대(5.19점)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의 경우도 40대(5.55점)와 20대(5.06점)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의 경우 40대(6.15점)와 30대(6.0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의시설, 일자리·경제활동의 경우에는 20대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의 경우 20대(5.89점)와 30대(5.6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생활편의시설의 경우 20대(6.39점)와 40대(6.11점)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경제활동의 경우는 20대(6.06점)와 30대(5.8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주거	6.27	6.26	6.23	0.434
교육	5.19	5.52	5.78	36.544***
출산·보육	5.06	5.49	5.55	20.525***
보건·의료	6.04	6.02	6.15	4.528**
문화·여가	5.89	5.65	5.66	8.673***
교통·생활편의시설	6.39	6.20	6.11	13.707***
일자리·경제활동	6.06	5.88	5.95	3.824**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삶의 질 만족도

- 삶의 질의 만족도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화·여가 및 교통·생활편의시설 만족도에서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및 교통·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의 경우 20대(4.96점)와 3·40대(각각 4.80점) 간 차이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생활편의시설의 경우 20대(5.34점)와 40대(5.1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주거(5.34점), 교통·생활편의시설(5.34점), 보건·의료(5.15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출산·보육(4.57점), 일자리·경제활동(4.58점), 교육(4.82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30대도 주거(5.22점), 교통·생활편의시설(5.19점), 보건·의료(5.03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일자리·경제활동(4.61점), 출산·보육(4.66점), 문화·여가(4.80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40대도 주거(5.25점), 교통·생활편의시설(5.15점), 보건·의료(5.07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일자리·경제활동(4.48점), 출산·보육(4.70점), 문화·여가(4.80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주거	5.34	5.22	5.25	1.761
교육	4.82	4.83	4.82	0.015
출산·보육	4.57	4.66	4.70	1.808
보건·의료	5.15	5.03	5.07	1.438
문화·여가	4.96	4.80	4.80	2.423*
교통·생활편의시설	5.34	5.19	5.15	2.734*
일자리·경제활동	4.58	4.61	4.48	1.997
전반적 만족도	5.07	5.03	4.96	1.713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다.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 삶의 질 중요도

- 삶의 질의 중요도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의 경우에 대학원 이상(6.30점)과 고졸 이하(6.14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의 경우 대졸(5.73점)과 고졸 이하(5.54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경제활동의 경우 고졸 이하(6.01점)와 대학원 이상(5.81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졸 이하는 주거(6.14점), 교통·생활편의시설(6.13점), 보건·의료(6.07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출산·보육(5.42점), 문화·여가(5.54점), 교육(5.48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졸(재학 포함)의 경우에도 주거(6.26점), 교통·생활편의시설(6.22점), 보건·의료(6.07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출산·보육(5.43점), 교육(5.56점), 문화·여가(5.73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학원 이상도 주거(6.30점), 교통·생활편의시설(6.16점), 보건·의료(6.12점)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반면, 출산·보육(5.45점)과 교육(5.69점) 등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5]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학력에 따른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주거	6.14	6.26	6.30	2.824*
교육	5.48	5.56	5.69	2.289
출산·보육	5.42	5.43	5.45	0.032
보건·의료	6.07	6.07	6.12	0.256
문화·여가	5.54	5.73	5.70	4.171**
교통·생활편의시설	6.13	6.22	6.16	1.757
일자리·경제활동	6.01	5.96	5.81	2.982*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삶의 질 만족도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학력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포함한 5개 분야에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 교육,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의시설 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의 경우 대학원 이상(5.43점)과 고졸 이하(4.99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경우도 대학원 이상(4.98점)과 고졸 이하(4.6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의 경우도 대학원 이상(4.98점)과 고졸 이하(4.62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대학원 이상(5.30점)과 고졸 이하(5.0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도 대학원 이상(5.23점)과 고졸 이하(4.73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졸 이하는 교통·생활편의시설(5.02점)을 제외한 6개 분야의 평균값이 4 점대로 낮게 나타남
- 대졸(재학 포함)은 일자리·경제활동(4.56점), 출산·보육(4.66점), 교육 (4.82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학원 이상은 주거(5.43점)와 전반적인 만족도(5.23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표 4-16]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주거	4.99	5.27	5.43	11.304***
교육	4.69	4.82	4.98	4.317**
출산·보육	4.58	4.66	4.72	1.007
보건·의료	4.96	5.07	5.16	2.038
문화·여가	4.62	4.84	4.98	5.000***
교통·생활편의시설	5.02	5.22	5.30	3.286**
일자리·경제활동	4.45	4.56	4.62	1.106
전반적 만족도	4.73	5.02	5.23	13.890***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라.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 삶의 질 중요도

- 삶의 질의 중요도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 교육, 출산·보육을 상대적으로 중요하

-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의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6.38점)과 200-400만원 미만(6.2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경우 800만원 이상(5.75점)과 200만원 미만(5.23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의 경우 800만원 이상(5.58점)과 200만원 미만(4.9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만원 미만의 경우 교통·생활편의시설(6.27점), 주거(6.22점), 일자리·경제활동(6.15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출산·보육(4.98점), 교육(5.23점), 문화·여가(5.88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800만원 이상의 경우 주거(6.38점)와 교통·생활편의시설(6.30점)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반면, 교육(5.75점), 출산·보육(5.58점), 일자리·경제활동(5.87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7]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주거	6.22	6.20	6.24	6.27	6.38	2.185*
교육	5.23	5.38	5.66	5.67	5.75	9.705***
출산·보육	4.98	5.28	5.55	5.50	5.58	7.982***
보건·의료	6.08	6.01	6.08	6.15	6.15	1.735
문화·여가	5.88	5.67	5.67	5.64	5.88	3.545
교통·생활편의시설	6.27	6.20	6.15	6.20	6.30	1.664
일자리·경제활동	6.15	5.97	5.94	5.90	5.87	1.620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삶의 질 만족도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의 경우 800만원 이상(5.62점)과 200만원 미만(4.79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경우도 800만원 이상(5.09점)과 200만원 미만(4.47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의 경우 800만원 이상(4.92점)과 200만원 미만(4.3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의 경우도 800만원 이상(5.30점)과 200만원 미만(4.8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의 경우 800만원 이상(5.08점)과 200만원 미만(4.4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생활편의시설의 경우에는 600-800만원 미만(5.32점)과 200만원 미만(4.9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경제활동의 경우 800만원 이상(4.82점)과 200만원 미만(4.0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도 800만원 이상(5.31점)과 200만원 미만(4.45점)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주거	4.79	5.13	5.26	5.37	5.62	15.202***
교육	4.47	4.75	4.87	4.77	5.09	6.730***
출산·보육	4.35	4.52	4.71	4.71	4.92	8.309***
보건·의료	4.82	4.97	5.10	5.10	5.30	4.953***
문화·여가	4.40	4.77	4.83	4.89	5.08	5.486***
교통·생활편의시설	4.90	5.13	5.22	5.32	5.31	2.838**
일자리·경제활동	4.09	4.52	4.55	4.55	4.82	6.252***
전반적 만족도	4.45	4.89	5.10	5.10	5.31	14.441***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마.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 삶의 질 중요도

- 삶의 질 중요도에 대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 및 출산·보육 분야에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의 경우 전혀 없음(6.34점)과 별로 없음(6.16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은 중간정도의 수준(아주 많음 6.26점, 약간 있음 6.27점)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의 경우에는 약간 있음(5.52점)과 전혀 없음(5.2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이주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출산·보육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제주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들은 주거(6.26점), 보건·의료(6.21점), 교통·생활편의시설(6.08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교육(5.42점), 출산·보육(5.46점), 문화·여가(5.78점)에 대한 중요

도가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제주 이주의향이 전혀 없는 응답자들은 주거(6.34점), 교통·생활편의시설(6.24점), 보건·의료(6.04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출산·보육(5.23점), 교육(5.55점), 문화·여가(5.71점)에 대한 중요도가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9]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주거	6.26	6.27	6.16	6.34	4.197***
교육	5.42	5.59	5.56	5.55	0.658
출산·보육	5.46	5.52	5.40	5.23	4.397***
보건·의료	6.21	6.11	6.03	6.04	2.048
문화·여가	5.78	5.72	5.66	5.71	0.643
교통·생활편의시설	6.08	6.21	6.19	6.24	0.960
일자리·경제활동	5.99	5.94	5.91	6.00	0.552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2) 삶의 질 만족도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의 경우 전혀 없음(5.37점)과 별로 없음(5.1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들도 5.22점으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
- 일자리·경제활동의 경우에도 전혀 없음(4.69점)과 별로 없음(4.44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들도 4.51점으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

- 제주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들은 주거(5.22점), 교통·생활편의시설(5.14점), 보건·의료(4.94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일자리·경제활동(4.51점), 출산·보육(4.75점), 문화·여가(4.83점)에 대한 만족도가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제주 이주의향이 전혀 없는 응답자들은 주거(5.37점), 교통·생활편의시설(5.27점), 보건·의료(5.19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일자리·경제활동(4.69점), 출산·보육(4.72점), 교육(4.94점)에 대한 중요도가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제주 이주의향이 전혀 없는 응답자들이 제주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들에 비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주거	5.22	5.26	5.19	5.37	2.104*
교육	4.89	4.80	4.78	4.94	1.732
출산·보육	4.75	4.64	4.64	4.72	0.668
보건·의료	4.94	5.05	5.06	5.19	1.647
문화·여가	4.83	4.84	4.75	4.95	1.657
교통·생활편의시설	5.14	5.21	5.17	5.27	0.527
일자리·경제활동	4.51	4.58	4.44	4.69	3.087**
전반적 만족도	4.92	5.01	4.94	5.16	3.060**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인식

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1)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

- 전체 응답자는 교통·생활편의정책(6.10점)을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일자리·경제정책(5.93점), 주거정책(5.84점), 보건·의료정책(5.8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문화·여가정책(5.48점), 출산·보육정책(5.50점), 교육정책(5.65점)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영향요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의 경우 여성(5.94점)이 남성(5.73점) 보다 이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문화·여가의 경우에도 여성(5.62점)이 남성(5.35점) 보다 이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교통·생활편의의 경우에도 여성(6.19점)이 남성(6.02점) 보다 이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문화·여가의 경우에도 여성(5.62점)이 남성(5.35점) 보다 이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4-21】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주거정책	5.84	5.81	5.86	-1.231
교육정책	5.65	5.61	5.69	-1.587
출산·보육정책	5.50	5.48	5.52	-0.762
보건·의료정책	5.83	5.73	5.94	-4.917***
문화·여가정책	5.48	5.35	5.62	-5.721***
교통·생활편의정책	6.10	6.02	6.19	-3.956***
일자리·경제정책	5.93	5.87	5.99	-2.649***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세부 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

① 주거 분야

- 전체 응답자는 주거 관련 세부 정책 중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5.97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71점),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6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5.48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나타남
- 주거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4개 세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경우 여성(5.82점)이 남성(5.61점)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경우 여성(5.77점)이 남성(5.57점)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의 경우도 여성(5.74점)이 남성(5.56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경우에도 여성(6.06점)이 남성(5.88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4-22]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48	5.44	5.52	-1.431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71	5.61	5.82	-4.138***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67	5.57	5.77	-3.793***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5.65	5.56	5.74	-3.950***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5.97	5.88	6.06	-3.858***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② 교육 분야

- 전체 응답자는 교육 관련 세부 정책 중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5.69 점)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5.54점),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5.5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5.00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나타남
- 교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의 경우 여성(5.78점)이 남성(5.60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의 경우 여성(5.10점)이 남성(4.90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의 경우도 여성(5.59점)이 남성(5.46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의 경우도 여성(5.65점)이 남성(5.42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연계성 강화의 경우도 여성(5.59점)이 남성(5.40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4-23]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5.69	5.60	5.78	-3.411***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5.00	4.90	5.10	-3.542***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	5.53	5.46	5.59	-2.567***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5.54	5.42	5.65	-4.457***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연계성 강화	5.50	5.40	5.59	-3.632***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③ 출산·보육 분야

- 전체 응답자는 출산·보육 관련 세부 정책 중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5.84점)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5.79점),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5.7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5.65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나타남
- 출산·보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1개 세부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의 경우 여성(5.89점)이 남성(5.70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4-24]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	5.65	5.62	5.68	-1.189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배우자 포함)	5.79	5.70	5.89	-3.499***
무상보육 확대 및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5.72	5.68	5.76	-1.452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	5.84	5.81	5.87	-1.179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	5.72	5.71	5.74	-0.585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④ 보건·의료 분야

- 전체 응답자는 보건·의료 관련 세부 정책 중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5.85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5.75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5.7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5.18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우선 순위로 나타남
- 보건·의료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의 경우 여성(5.83점)이 남성(5.63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의 경우 여성(5.28점)이 남성(5.08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의 경우 여성(5.88점)이 남성(5.62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의 경우에도 여성(5.78점)이 남성(5.65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의 경우 여성(5.93점)이 남성(5.76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4-25]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	5.73	5.63	5.83	-4.291***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	5.18	5.08	5.28	-3.641***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5.75	5.62	5.88	-5.678***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	5.72	5.65	5.78	-2.681***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	5.85	5.76	5.93	-4.035***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⑤ 문화·여가 분야

- 전체 응답자는 문화·여가활동 관련 세부 정책 중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 조성(5.71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5.51점),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5.2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5.10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우선 순위로 나타남

[표 4-26]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5.51	5.35	5.67	-6.731***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	5.71	5.61	5.81	-4.461***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5.29	5.15	5.43	-5.493***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5.10	5.00	5.21	-3.903***
여가활동비용 지원	5.26	5.15	5.36	-3.536***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 문화·여가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의 경우 여성(5.67점)이 남성(5.35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의 경우도 여성(5.81점)이 남성(5.61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의 경우 여성(5.43점)이 남성(5.15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의 경우에도 여성(5.21점)이 남성(5.00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여가활동비용 지원의 경우 여성(5.36점)이 남성(5.15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⑥ 교통·편의시설 분야

- 전체 응답자는 교통·편의시설 관련 세부 정책 중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5.97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5.87점),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5.7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차량 총량제 시행(5.10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나타남
- 교통·편의시설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의 경우 여성(6.08점)이 남성(5.85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의 경우도 여성(5.92점)이 남성(5.64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경전철·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여성(5.55점)이 남성(5.31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의 경우에도 여성(5.94점)이 남성(5.80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차량 총량제 시행의 경우 여성(5.32점)이 남성(4.96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4-27]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	5.97	5.85	6.08	-5.146***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	5.78	5.64	5.92	-6.132***
경전철·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5.43	5.31	5.55	-4.030***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5.87	5.80	5.94	-3.000***
차량 총량제 시행	5.14	4.96	5.32	-6.447***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⑦ 취업·창업 분야

- 전체 응답자는 취업·창업 관련 세부 정책 중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5.71점)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5.67점),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5.5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5.13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 순위로 나타남
- 취업·창업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 여성(5.78점)이 남성(5.40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 여성(5.81점)이 남성(5.60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의 경우 여성(5.21점)이 남성(5.05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의 경우 여성(5.64점)이 남성(5.45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경우 여성(5.79점)이 남성(5.55점)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4-28]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값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5.59	5.40	5.78	-6.876***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5.71	5.60	5.81	-4.201***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	5.13	5.05	5.21	-2.545**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5.55	5.45	5.64	-3.785***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67	5.55	5.79	-4.907***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나.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1)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영향요인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정책 분야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경우에는 40대(5.79점)와 20대(5.4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의 경우 30대(5.56점)와 20대(5.3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생활편의의 경우 20대(6.21점)와 40대(6.0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경제의 경우 20대(6.04점)와 40대(5.8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9】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주거정책	5.91	5.81	5.83	1.352
교육정책	5.42	5.63	5.79	15.373***
출산·보육정책	5.32	5.56	5.52	5.642***
보건·의료정책	5.80	5.80	5.88	1.630
문화·여가정책	5.51	5.44	5.51	0.909
교통·생활편의정책	6.21	6.10	6.05	4.109**
일자리·경제정책	6.04	5.92	5.89	2.892*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세부 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

① 주거 분야

- 주거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3개 분야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 20대(5.74점)와 40대(5.3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경우도 20대(5.80점)와 40대(5.5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의 경우 20대(5.76점)와 40대(5.6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0]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74	5.46	5.38	11.525***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71	5.77	5.66	1.661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80	5.69	5.58	5.033***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5.76	5.63	5.62	2.669*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5.98	5.94	6.00	0.638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② 교육 분야

- 교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의 경우 40대(5.87점)와 20대(5.46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의 경우 40대(5.11점)와 20대(4.7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의 경우에는 40대(5.63점)와 30대(5.4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의 경우 40대(5.66점)와 20대(5.31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연계성 강화의 경우 40대(5.65점)와 30대(5.36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1]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5.46	5.61	5.87	20.656***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4.78	4.99	5.11	9.363***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	5.57	5.40	5.63	8.494***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5.31	5.52	5.66	12.184***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연계성 강화	5.45	5.36	5.65	12.057***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③ 출산·보육 분야

- 출산·보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3개 세부 정책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의 경우 30대(5.76점)와 40대(5.5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의 경우는 20대(5.91점)와 40대(5.71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상보육 확대 및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의 경우 40대(5.82점)와 20대(5.5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2]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	5.70	5.76	5.53	7.784***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배우자 포함)	5.91	5.83	5.71	4.387**
무상보육 확대 및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5.55	5.70	5.82	6.677***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	5.80	5.86	5.83	0.466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	5.69	5.78	5.69	1.655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④ 보건·의료 분야

- 보건·의료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3개 세부 정책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의 경우 40대(5.83점)와 20대(5.6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의 경우에도 40대(5.80점)와 20대(5.6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의 경우 40대(5.92점)와 20대(5.7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3]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	5.68	5.71	5.78	1.503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	5.19	5.15	5.20	0.421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5.65	5.71	5.83	4.601**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	5.63	5.67	5.80	5.025***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	5.78	5.80	5.92	4.061**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⑤ 문화·여가 분야

- 문화·여가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1개 세부 정책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의 경우 20대(5.81점)와 40대(5.67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4]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5.56	5.46	5.53	1.387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	5.81	5.69	5.67	2.627*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5.21	5.26	5.35	2.017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5.11	5.05	5.14	1.121
여가활동비용 지원	5.26	5.24	5.27	0.108

주: *는 $p<.10$, **는 $p<.05$, ***는 $p<.01$ 을 의미함.**⑥ 교통·편의시설 분야**

- 교통·편의시설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세부 정책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의 경우 20대(6.09점)와 40대(5.91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의 경우 40대(5.93점)와 20대(5.7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5]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	6.09	5.96	5.91	4.123**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	5.87	5.79	5.73	2.202
경전철·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5.35	5.43	5.48	1.182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5.78	5.86	5.93	2.530*
차량 총량제 시행	5.08	5.10	5.20	1.764

주: *는 $p<.10$, **는 $p<.05$, ***는 $p<.01$ 을 의미함.

⑦ 취업·창업 분야

- 취업·창업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 세부 정책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에는 20대(5.71점)와 30대(5.4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 40대(5.78점)와 30대(5.6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의 경우 20대(5.36점)와 30대(5.01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의 경우 40대(5.63점)와 30대(5.46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6]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F값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5.71	5.49	5.62	4.908***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5.75	5.60	5.78	5.454***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	5.36	5.01	5.13	7.165***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5.54	5.46	5.63	4.702***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72	5.61	5.69	1.565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다.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1)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영향요인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정책 분야에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의 경우 대졸(5.86점) 및 대학원 이상(5.85점)과 고졸 이하(5.71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경우 대학원 이상(5.80점)과 고졸 이하(5.5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생활편의의 경우에 대졸(6.13점) 및 대학원 이상(6.12점)과 고졸 이하(5.97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경제의 경우 대졸(5.96점)과 대학원 이상(5.8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7]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주거정책	5.71	5.86	5.85	2.447*
교육정책	5.50	5.66	5.80	4.813***
출산·보육정책	5.41	5.52	5.46	1.060
보건·의료정책	5.78	5.85	5.80	0.651
문화·여가정책	5.42	5.50	5.45	0.776
교통·생활편의정책	5.97	6.13	6.12	3.170**
일자리·경제정책	5.86	5.96	5.82	2.887*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세부 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

① 주거 분야

- 주거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분야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 고졸 이하(5.61점)와 대학원 이상(5.3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고졸 이하(5.82점)와 대학원 이상

(5.4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8]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61	5.48	5.32	3.497**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76	5.72	5.63	0.898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72	5.68	5.55	1.530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5.82	5.65	5.48	7.298***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5.99	5.97	5.95	0.088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② 교육 분야

- 교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세부 정책에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9]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5.66	5.69	5.73	0.264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5.02	5.01	4.93	0.517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	5.59	5.53	5.45	1.121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5.56	5.54	5.49	0.279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연계성 강화	5.57	5.50	5.43	0.909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③ 출산·보육 분야

- 출산·보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0]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	5.65	5.66	5.63	0.045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배우자 포함)	5.76	5.78	5.88	0.765
무상보육 확대 및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5.84	5.70	5.69	1.612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	5.81	5.84	5.81	0.146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	5.73	5.71	5.78	0.417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④ 보건·의료 분야**

- 보건·의료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세부 정책에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5.38점)와 대학원 이상(5.0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의 경우에도 고졸 이하(5.88점)와 대학원 이상(5.6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1]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	5.77	5.74	5.64	1.236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	5.38	5.17	5.02	5.691***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5.80	5.75	5.68	0.904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	5.88	5.70	5.62	4.329**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	5.90	5.84	5.79	0.775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⑤ 문화·여가 분야

- 문화·여가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1개 세부 정책에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의 경우 대학원 이상(5.80점)과 고졸 이하(5.5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2]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5.40	5.53	5.53	1.649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	5.58	5.71	5.80	3.380**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5.31	5.29	5.26	0.108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5.16	5.11	5.01	1.089
여가활동비용 지원	5.34	5.26	5.16	1.349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⑥ 교통·편의시설 분야

- 교통·편의시설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세부 정책에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의 경우에는 대졸(6.00점)과 고졸 이하(5.8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의 경우 대졸(5.81점)과 대학원 이상(5.6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3]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	5.80	6.00	5.96	4.747***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	5.70	5.81	5.69	2.395*
경전철·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5.38	5.44	5.45	0.221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5.83	5.89	5.82	0.615
차량 총량제 시행	5.28	5.13	5.07	2.003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⑦ 취업·창업 분야**

- 취업·창업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세부 정책에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 고졸 이하(5.68점)와 대학원 이상(5.41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경우도 고졸 이하(5.79점)와 대학원 이상(5.5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4]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고졸 이하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	F값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5.68	5.60	5.41	3.498**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5.76	5.71	5.60	1.608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	5.23	5.13	5.02	1.281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5.62	5.55	5.47	1.176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79	5.67	5.50	4.774***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라.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1)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영향요인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분야에서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경우에는 800만원 이상(5.80점)과 200만원 미만(5.1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5.58점)과 200만원 미만(5.1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5]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주거정책	5.65	5.82	5.87	5.80	5.92	1.702
교육정책	5.19	5.52	5.78	5.68	5.80	10.581***
출산·보육정책	5.13	5.44	5.58	5.49	5.56	4.032***
보건·의료정책	5.68	5.82	5.86	5.87	5.83	0.826
문화·여가정책	5.47	5.49	5.45	5.42	5.64	1.711
교통·생활편의정책	6.03	6.09	6.10	6.09	6.20	0.963
일자리·경제정책	5.95	5.93	5.97	5.87	5.91	0.520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세부 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

① 주거 분야

- 주거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 분야에서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 200만원 미만(5.76점)과 800만원 이상(5.0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경우 200-400만원 미만(5.78점)과 800만원 이상(5.4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200만원 미만(5.88점)과 800만원 이상(5.4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경우도 200만원 미만(6.05점)과 800만원 이상(5.81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6]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76	5.68	5.53	5.20	5.09	16.586***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74	5.77	5.74	5.61	5.63	1.443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75	5.78	5.67	5.55	5.49	3.977***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5.88	5.72	5.69	5.53	5.42	6.668***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6.05	6.00	6.01	5.92	5.81	1.963*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② 교육 분야

- 교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 세부 정책에서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의 경우에는 400-600만원 미만(5.80점)과 200만원 미만(5.4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의 경우 800만원 이상(5.23

- 점)과 200만원 미만(4.7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5.61점)과 600-800만원 미만(5.47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5.62점)과 200만원 미만(5.3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7]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5.49	5.61	5.80	5.70	5.64	3.298**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4.75	4.89	5.06	5.00	5.23	4.723***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	5.49	5.52	5.61	5.47	5.38	2.229*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5.35	5.44	5.62	5.58	5.57	2.904**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연계성 강화	5.44	5.46	5.58	5.51	5.40	1.435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③ 출산·보육 분야

- 출산·보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 세부 정책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5.75점)과 200만원 미만(5.4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상보육 확대 및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의 경우에도 400-600만원 미만(5.85점)과 200만원 미만(5.5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5.93점)과 200만원 미

- 만(5.6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5.81점)과 200만원 미만(5.5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8]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	5.42	5.69	5.75	5.56	5.53	3.418***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배우자 포함)	5.63	5.77	5.85	5.79	5.76	1.103
무상보육 확대 및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5.52	5.74	5.85	5.61	5.54	4.771***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	5.62	5.81	5.93	5.81	5.78	2.484**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	5.50	5.67	5.81	5.73	5.70	2.316*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④ 보건·의료 분야

- 보건·의료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3개 세부 정책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의 경우 200만원 미만(5.93점)과 800만원 이상(5.54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의 경우 200만원 미만(5.53점)과 800만원 이상(5.0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의 경우 200만원 미만(5.81점)과 600-800만원 미만(5.6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9]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	5.93	5.78	5.75	5.67	5.54	3.689***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	5.53	5.25	5.19	5.04	5.03	4.911***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5.80	5.74	5.79	5.71	5.67	0.720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	5.81	5.79	5.73	5.60	5.61	2.814**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	5.91	5.88	5.85	5.84	5.72	1.463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⑤ 문화·여가 분야

- 문화·여가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세부 정책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의 경우 200만원 미만(5.31점)과 600-800만원 미만 및 800만원 이상(각각 4.97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비용 지원의 경우 200만원 미만(5.47점)과 800만원 이상(5.1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0]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5.60	5.52	5.52	5.46	5.47	0.446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	5.77	5.70	5.69	5.68	5.76	0.382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5.45	5.33	5.29	5.23	5.18	1.383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5.31	5.17	5.12	4.97	4.97	2.909**
여가활동비용 지원	5.47	5.32	5.27	5.14	5.13	2.404**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⑥ 교통·편의시설 분야

- 교통·편의시설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세부 정책에서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의 경우에는 400-600만원 미만 (5.96점)과 800만원 이상(5.6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량 총량제 시행의 경우 200만원 미만(5.27점)과 800만원 이상(4.8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1]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	5.89	6.00	6.00	5.89	5.93	1.104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	5.86	5.80	5.79	5.80	5.68	0.767
경전철·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5.22	5.44	5.49	5.45	5.34	1.365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5.90	5.88	5.96	5.79	5.69	3.476***
차량 총량제 시행	5.27	5.26	5.15	5.08	4.85	4.990***

주: *는 $p<.10$, **는 $p<.05$, ***는 $p<.01$ 을 의미함.

⑦ 취업·창업 분야

- 취업·창업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 200만원 미만 (5.76점)과 800만원 이상(5.24점)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 200만원 미만 (5.90점)과 800만원 이상(5.3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의 경우에도 200만원 미만(5.58점)과

800만원 이상(4.7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의 경우 200만원 미만 (5.71점)과 800만원 이상(5.3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경우도 200만원 미만 (5.89점)과 800만원 이상(5.34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2]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F값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5.76	5.69	5.65	5.46	5.24	7.948***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5.90	5.77	5.76	5.65	5.38	7.469***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	5.58	5.32	5.09	4.97	4.78	9.945***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5.71	5.56	5.63	5.46	5.33	4.107***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89	5.75	5.72	5.58	5.34	8.889***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마.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1)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영향요인에 대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 분야에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의 경우에는 아주 많음(5.95점)과 별로 없음(5.7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의 경우 약간 있음(5.58점)과 전혀 없음(5.39점) 간 차이가 존재

-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의 경우 약간 있음(5.91점)과 별로 없음(5.7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의 경우 아주 많음(5.62점)과 별로 없음(5.3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3]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주거정책	5.95	5.88	5.74	5.86	3.071**
교육정책	5.54	5.68	5.64	5.64	0.677
출산·보육정책	5.51	5.58	5.42	5.39	3.224**
보건·의료정책	5.80	5.91	5.75	5.80	3.099**
문화·여가정책	5.62	5.54	5.38	5.48	3.292**
교통·생활편의정책	6.07	6.13	6.08	6.09	0.426
일자리·경제정책	5.99	5.95	5.89	5.93	0.626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세부 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

① 주거 분야

- 주거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분야에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 아주 많음(5.75점)과 별로 없음(5.3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아주 많음(5.74점)과 별로 없음(5.54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4]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75	5.51	5.39	5.48	2.920**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84	5.75	5.66	5.66	1.411
주택 임대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5.75	5.71	5.62	5.62	1.224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5.74	5.70	5.54	5.69	3.425**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6.01	5.99	5.93	5.98	0.495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② 교육 분야

- 교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세부 정책에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의 경우 약간 있음(5.63점)과 별로 없음 및 전혀 없음(각각 5.4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연계성 강화의 경우는 아주 많음(5.63점)과 별로 없음(5.4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5]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5.73	5.74	5.63	5.64	1.545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4.94	5.03	4.99	4.96	0.364
장학금 등 재정지원 확대	5.56	5.55	5.48	5.53	0.465
방과 후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5.52	5.63	5.45	5.45	3.644**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연계성 강화	5.63	5.56	5.40	5.47	2.885**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③ 출산·보육 분야

- 출산·보육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3개 세부 정책에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의 경우 약간 있음(5.70점)과 전혀 없음(5.5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의 경우 약간 있음(5.90점)과 별로 없음 및 전혀 없음(각각 5.77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의 경우 약간 있음(5.79점)과 아주 많음(5.6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6] 출산·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	5.70	5.72	5.60	5.53	2.610**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배우자 포함)	5.84	5.83	5.77	5.71	1.091
무상보육 확대 및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5.74	5.76	5.68	5.66	0.924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	5.88	5.90	5.77	5.77	2.137*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	5.62	5.79	5.67	5.65	2.285*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④ 보건·의료 분야

- 보건·의료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 세부 정책에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의 경우에 아주 많음(5.88점)과 별로 없음(5.6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의 경우도 아주 많음(5.90점)과 별로 없음(5.6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의 경우 아주 많음(5.89점)과 별로 없음(5.62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의 경우도 아주 많음(5.96점)과 별로 없음(5.76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7]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	5.88	5.79	5.65	5.70	3.110**
정신병원 등 특수 분야 인프라 보강	5.25	5.23	5.10	5.17	1.586
동네 의원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5.90	5.78	5.65	5.78	3.042**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	5.89	5.76	5.62	5.71	3.245**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	5.96	5.89	5.76	5.86	2.637**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⑤ 문화·여가 분야

- 문화·여가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의 경우 아주 많음(5.59점)과 별로 없음(5.3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의 경우도 아주 많음(5.95점)과 별로 없음(5.5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의 경우에 아주 많음(5.59점)과 별로 없음(5.1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의 경우 아주 많음(5.32점)과 별로 없음(4.9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비용 지원의 경우 아주 많음(5.52점)과 별로 없음(5.10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8] 문화·여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5.59	5.57	5.39	5.54	3.971***
생활권 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조성	5.95	5.75	5.59	5.74	5.550***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5.59	5.37	5.15	5.24	6.892***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5.32	5.19	4.93	5.12	6.906***
여가활동비용 지원	5.52	5.34	5.10	5.23	5.734***

주: *는 $p<.10$, **는 $p<.05$, ***는 $p<.01$ 을 의미함.**⑥ 교통·편의시설 분야**

- 교통·편의시설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세부 정책에서 제주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전철·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의 경우에는 아주 많음(5.88점)과 별로 없음 및 전혀 없음(각각 5.34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량 총량제 시행의 경우 아주 많음(5.29점)과 별로 없음(5.01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9] 교통·편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	6.03	5.97	5.92	6.02	1.084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	5.92	5.81	5.71	5.80	1.981
경전철·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5.88	5.52	5.34	5.34	9.455***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5.94	5.91	5.83	5.81	1.315
차량 총량제 시행	5.29	5.23	5.01	5.09	4.242***

주: *는 $p<.10$, **는 $p<.05$, ***는 $p<.01$ 을 의미함.

⑦ 취업·창업 분야

- 취업·창업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세부 정책에서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 아주 많음(5.75점)과 전혀 없음(5.45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의 경우 아주 많음(5.86점)과 전혀 없음(5.5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의 경우에도 아주 많음(5.39점)과 전혀 없음(4.9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의 경우도 아주 많음(5.73점)과 전혀 없음(5.46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경우는 아주 많음(5.84점)과 별로 없음(5.58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0] 취업·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아주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F값
공공부문 채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5.75	5.64	5.55	5.45	2.638**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5.86	5.74	5.69	5.59	2.390*
미취업자 대상 지원금(수당) 지급	5.39	5.16	5.12	4.99	2.268*
고교·대학교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5.73	5.59	5.50	5.46	2.352*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84	5.73	5.58	5.60	3.592**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3. 이주의향에 관한 인식

가. 제주 방문 및 거주경험

1) 제주 방문횟수

- 전체 응답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제주 방문횟수는 1.84회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남성(1.98회)이 여성(1.71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30대(2.05회)가 가장 많은 반면, 20대(1.59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1]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

(단위: 횟수)

구분		방문횟수	t값 또는 F값
성별	남성	1.98	2.361**
	여성	1.71	
연령	20대	1.59	5.067***
	30대	2.05	
	40대	1.77	
학력	고졸 이하	1.39	8.224***
	대졸(재학 포함)	1.85	
	대학원 이상	2.27	

구분		방문횟수	t값 또는 F값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81	13.198***
	200-400만원 미만	1.55	
	400-600만원 미만	1.92	
	600-800만원 미만	2.08	
	800만원 이상	2.59	
이주의향	아주 많음	3.17	39.395***
	약간 있음	2.27	
	별로 없음	1.45	
	전혀 없음	0.99	
전체		1.84	-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대학원 이상(2.27회)이 가장 많은 반면, 고졸 이하(1.39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800만원 이상(2.59회)이 가장 많은 반면, 200만원 미만(0.81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이주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제주 방문횟수는 아주 많음(3.17회)이 가장 많은 반면, 전혀 없음(0.99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2) 제주 거주경험

- 전체 응답자의 7.7%(155명)가 제주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2] 제주 거주경험(1개월 이상)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값
성별	남성	9.3	90.7	7.261***
	여성	6.1	93.9	
연령	20대	9.1	90.9	4.255
	30대	8.5	91.5	
	40대	6.3	93.7	
학력	고졸 이하	6.6	93.4	0.502
	대졸(재학 포함)	7.9	92.1	
	대학원 이상	7.8	92.2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3	92.7	1.475
	200-400만원 미만	7.4	92.6	
	400-600만원 미만	7.6	92.4	
	600-800만원 미만	7.3	92.7	
	800만원 이상	9.6	90.4	
이주의향	아주 많음	17.9	82.1	48.831***
	약간 있음	10.6	89.4	
	별로 없음	4.4	95.6	
	전혀 없음	2.7	97.3	
전체		7.7	92.3	-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 제주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은 응답자의 성별과 제주 이주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제주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은 남성(9.3%)이 여성(6.1%)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은 아주 많음(17.9%)이 가장 많은 반면, 전혀 없음(2.7%)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는 제주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제주 거주기간

- 제주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응답자 155명의 평균 거주기간은 20.2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제주 거주기간은 200만원 미만(68.9개월)이 가장 긴 반면, 600-800만원 미만(14.0개월)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3] 제주 거주기간

(단위: 개월)

구분		거주기간	t값 또는 F값
성별	남성	18.8	-0.451
	여성	22.3	
연령	20대	15.9	0.266
	30대	23.0	
	40대	16.6	
학력	고졸 이하	22.4	0.026
	대졸(재학 포함)	20.0	
	대학원 이상	19.1	

구분		거주기간	t값 또는 F값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8.9	2.428**
	200-400만원 미만	16.3	
	400-600만원 미만	19.9	
	600-800만원 미만	14.0	
	800만원 이상	18.4	
이주의향	아주 많음	26.4	0.446
	약간 있음	21.7	
	별로 없음	13.5	
	전혀 없음	10.9	
전체		20.2	-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나. 제주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

1) 제주 이주의향

① 향후 제주 이주의향

- 전체 응답자의 51.5%가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반면, 이주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48.5%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는 5.3%이며, 46.2%는 이주할 의향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4] 제주 이주의향

(단위: %)

구분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아주 많다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약간 있다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별로 없다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다	X^2 값
성별	남성	6.0	48.9	29.9	15.2	10.457**
	여성	4.5	43.6	33.6	18.4	

구분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아주 많다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약간 있다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별로 없다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다	χ^2 값
연령	20대	3.3	42.4	32.8	21.5	13.903**
	30대	4.9	47.8	31.6	15.7	
	40대	6.5	46.6	31.3	15.6	
학력	고졸 이하	5.2	41.3	32.5	21.0	21.193***
	대졸(재학 포함)	6.1	45.7	32.0	16.3	
	대학원 이상	0.8	54.7	29.5	15.1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6	28.2	37.3	30.9	31.926***
	200-400만원 미만	6.4	45.1	31.1	17.3	
	400-600만원 미만	5.5	49.3	30.3	14.8	
	600-800만원 미만	3.8	47.7	34.2	14.3	
	800만원 이상	4.4	46.4	31.2	18.0	
거주경험	있음	12.3	63.9	18.1	5.8	48.831***
	없음	4.7	44.7	32.8	17.7	
친척유무	있음	10.4	60.3	21.5	7.7	60.898***
	없음	4.4	43.8	33.5	18.4	
전체		5.3	46.2	31.7	16.8	-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제주 거주경험, 제주 친척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남성(54.9%)이 여성(48.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40대(53.1%)가 가장 많은 반면, 20대(45.7%)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대학원 이상(55.5%)이 가장 많은 반면, 고졸 이하(46.5%)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월 평균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54.8%)이 가

- 장 많은 반면, 200만원 미만(31.8%)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제주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76.2%) 이 거주 경험이 없는 사람(49.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제주에 가족 또는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70.7%)이 제주에 가족 또는 친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4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② 이주 하려는 이유: 1순위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이주 이유로 주거환경(60.5%)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음
 - 주거환경 외에 문화·여가시설환경(26.4%), 자연환경 및 공기(3.0%), 일자리·경제활동환경(2.5%), 교육환경(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이주의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5] 이주 하려는 이유: 1순위

(단위: %)

구분		주거	교육	출산	보건	문화	교통	경제	환경	힐링	노후	기타	X ² 값
성별	남성	58.7	2.0	1.8	0.9	28.8	1.8	2.3	2.3	0.5	0.0	0.7	8.817
	여성	62.6	2.3	1.7	0.6	23.7	1.0	2.7	3.7	0.6	0.4	0.6	
연령	20대	61.3	1.7	2.2	1.7	26.0	2.2	1.1	2.2	0.6	0.0	1.1	20.822
	30대	61.7	2.2	2.9	0.5	24.6	1.0	3.4	2.5	0.2	0.2	0.7	
	40대	59.2	2.2	0.4	0.7	28.3	1.6	2.2	3.8	0.9	0.2	0.4	
학력	고졸 이하	62.7	1.6	1.6	0.0	26.2	0.8	4.8	2.4	0.0	0.0	0.0	13.518
	대졸(재학 포함)	60.9	2.0	1.8	0.9	25.4	1.6	2.5	3.3	0.7	0.3	0.8	
	대학원 이상	56.6	3.5	1.4	0.7	32.2	1.4	0.7	2.1	0.7	0.0	0.7	

구분		주거	교육	출산	보건	문화	교통	경제	환경	힐링	노후	기타	X ² 값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60.0	0.0	2.9	2.9	22.9	2.9	5.7	0.0	0.0	0.0	2.9	34.794
	200-400만원 미만	57.6	1.9	1.6	0.6	29.3	0.9	3.7	2.8	0.9	0.0	0.6	
	400-600만원 미만	62.1	2.1	1.9	0.5	26.0	1.3	1.1	3.4	0.5	0.3	0.8	
	600-800만원 미만	61.4	2.3	1.7	0.6	26.1	1.1	1.1	4.5	0.6	0.6	0.0	
	800만원 이상	62.2	3.1	1.6	1.6	22.0	3.1	4.7	0.8	0.0	0.0	0.8	
이주 의향	아주 많음	54.7	1.9	3.8	0.9	25.5	2.8	3.8	4.7	0.9	0.0	0.9	7.701
	약간 있음	61.2	2.2	1.5	0.8	26.6	1.3	2.4	2.8	0.5	0.2	0.6	
전체		60.5	2.1	1.7	0.8	26.4	1.4	2.5	3.0	0.6	0.2	0.7	-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③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1순위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일자리·경제활동환경(46.9%)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음
 - 그 다음 교통·생활편의시설환경(23.6%), 주거환경(7.8%), 보건·의료시설환경(4.9%), 문화·여가시설환경(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이주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경제활동환경과 교통·편의시설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 남성은 일자리·경제활동환경을 보다 많이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교통·편의시설환경을 보다 많이 제시하였음
 - 연령이 높을수록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일자리·경제활동환경을 많이 제시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편의시설환경을 많이 제시하였음
 -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는 응답자는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응답(10.7%)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하였음

[표 4-66]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1순위

(단위: %)

구분		주거	교육	출산	보건	문화	교통	경제	기타	연고 부족	현재 만족	X ² 값
성별	남성	8.6	2.2	2.0	3.9	4.6	19.7	50.9	4.6	1.5	2.0	17.077**
	여성	7.1	3.3	0.6	5.8	3.8	26.9	43.5	6.2	1.2	1.7	
연령	20대	10.2	1.9	0.0	2.3	8.4	33.0	38.6	2.8	1.9	0.9	44.715***
	30대	8.2	2.7	1.9	5.2	3.3	21.6	47.7	6.0	1.4	1.9	
	40대	6.1	3.3	1.3	6.1	2.8	20.2	50.8	6.3	1.0	2.3	
학력	고졸 이하	7.6	3.4	0.0	4.8	3.4	18.6	50.3	9.0	0.0	2.8	25.493
	대졸(재학 포함)	7.7	2.5	1.4	5.2	4.5	24.6	47.2	3.8	1.7	1.5	
	대학원 이상	8.7	3.5	1.7	3.5	3.5	23.5	40.9	11.3	0.9	2.6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7	1.3	0.0	5.3	5.3	25.3	37.3	6.7	1.3	6.7	39.193
	200-400만원 미만	7.9	3.0	1.0	5.0	5.0	24.2	46.4	5.3	0.3	2.0	
	400-600만원 미만	6.8	3.2	2.3	5.8	3.5	25.5	44.2	4.8	2.6	1.3	
	600-800만원 미만	9.0	1.8	1.2	2.4	3.0	22.3	54.2	4.8	0.6	0.6	
	800만원 이상	6.5	3.3	0.0	5.7	4.9	17.9	51.2	7.3	1.6	1.6	
이주 의향	별로 없음	6.3	3.0	1.4	5.5	4.2	24.5	48.9	3.6	2.0	0.6	42.589***
	전혀 없음	10.7	2.4	0.9	3.8	4.1	21.9	43.2	8.9	0.0	4.1	
전체		7.8	2.8	1.2	4.9	4.2	23.6	46.9	5.4	1.3	1.8	-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2) 제주 이주 준비

① 이주 준비 정도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16.4% 만이 이주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일정 수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매우 구체적으로 이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1.1% 수준으로 나타남
 - 이주의향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66.8%가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17.4%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과 이주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제주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0만원 이상의 경우 23.6%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제주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49.0%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67] 제주 이주의 구체적 준비

(단위: %)

구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X ² 값
성별	남성	1.3	17.1	66.7	15.0	5.301
	여성	0.8	13.3	66.9	18.9	
연령	20대	0.0	11.6	67.4	21.0	8.171
	30대	1.7	16.5	66.3	15.5	
	40대	0.9	15.8	67.0	16.3	
학력	고졸 이하	2.4	12.7	65.9	19.0	5.843
	대졸(재학 포함)	1.0	16.0	66.1	16.8	
	대학원 이상	0.0	14.0	71.3	14.7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14.3	60.0	25.7	20.510*
	200-400만원 미만	1.6	11.5	67.6	19.3	
	400-600만원 미만	0.8	13.8	67.9	17.5	
	600-800만원 미만	1.1	20.5	64.8	13.6	
	800만원 이상	0.8	22.8	66.1	10.2	
이주의향	아주 많음	4.7	44.3	39.6	11.3	94.689***
	약간 있음	0.6	12.0	69.9	17.4	
전체		1.1	15.3	66.8	16.8	-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② 제주 이주 예정 시기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이주시기를 정하지 않은 응답자가 6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년 이내에 이주할 예정인 응답자는 0.8%에 불과하며, 1년에서 5년 사이에 이주할 예정인 응답자가 16.0%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시기는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과 이주의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빠른 시간 내에 제주로 이주할 예정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800만원 이상은 9.5%가 3년 이내)
 -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 중 3년 이내에 제주로 이주할 예정인 비율은 14.2%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이주의향이 약간 있는 응답자 중 3년 이내에 제주로 이주할 예정인 비율은 4.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표 4-68] 제주 이주 예정 시기

(단위: %)

구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시기를 정하지 않음	χ^2 값
성별	남성	0.9	4.3	10.6	25.4	58.7	3.423
	여성	0.6	5.8	9.8	21.8	62.0	
연령	20대	0.0	3.3	9.4	19.	68.0	11.374
	30대	1.2	6.6	11.1	23.3	57.7	
	40대	0.7	4.2	9.8	25.9	59.4	
학력	고졸 이하	0.0	4.0	10.3	18.3	67.5	7.024
	대졸(재학 포함)	0.9	5.1	10.7	23.7	59.6	
	대학원 이상	0.7	5.6	7.7	28.7	57.3	

구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시기를 정하지 않음	χ^2 값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0	2.9	5.7	20.0	71.4	33.034***
	200-400만원 미만	0.9	4.7	9.0	18.7	66.7	
	400-600만원 미만	0.8	4.2	11.9	21.5	61.5	
	600-800만원 미만	0.6	5.1	12.5	29.5	52.3	
	800만원 이상	0.8	8.7	6.3	36.2	48.0	
이주의향	아주 많음	1.9	12.3	21.7	31.1	33.0	46.653***
	약간 있음	0.6	4.2	8.9	22.9	63.3	
전체		0.8	5.0	10.2	23.7	60.2	-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③ 제주 이주 시 주택 형태

- 제주로 이주할 경우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 농가주택 리모델링(26.2%), 아파트(9.0%),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7.1%), 소형주택(6.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경우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는 응답자의 연령과 이주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는 단독주택(47.2%) 다음으로 농가주택 리모델링(29.2%),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13.2%)의 순서로 나타남
 - 반면에 이주의향이 약간 있는 응답자는 단독주택(51.2%) 다음으로 농가주택(25.8%), 아파트(9.2%)의 순서로 나타남

[표 4-69] 제주 이주 시 선호 주택 형태

(단위: %)

구분		농가주택 리모델링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	소형주택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χ^2 값
성별	남성	26.7	8.1	7.4	10.1	47.7	5.811
	여성	25.6	6.0	6.4	7.7	54.3	
연령	20대	17.7	5.5	15.5	10.5	50.8	39.322***
	30대	24.1	8.1	6.4	10.3	51.1	
	40대	31.5	6.9	4.0	7.1	50.4	
학력	고졸 이하	29.4	10.3	7.1	7.1	46.0	7.375
	대졸(재학 포함)	25.6	7.2	6.6	8.7	51.9	
	대학원 이상	26.6	4.2	8.4	11.9	49.0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7	8.6	14.3	2.9	48.6	20.422
	200~400만원 미만	27.1	9.0	9.0	9.0	45.8	
	400~600만원 미만	24.9	7.4	5.8	7.4	54.4	
	600~800만원 미만	27.3	5.7	5.7	10.2	51.1	
	800만원 이상	26.0	3.1	4.7	13.4	52.8	
이주의향	아주 많음	29.2	13.2	3.8	6.6	47.2	9.267*
	약간 있음	25.8	6.5	7.3	9.2	51.2	
전체		26.2	7.1	6.9	9.0	50.8	-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④ 제주 이주 시 주택소유 형태

- 제주로 이주할 경우 선호하는 주택소유의 형태는 자가 주택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임대 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12.0%이며,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할 경우 선호하는 주택소유의 형태는 응답자의 성별과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73.5%)이 여성(62.4%) 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임대주택(15.0%)이나 소유형태가 중요하지 않다(22.7%)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0만원 이상은 74.8%가 자가주택을 선호함

[표 4-70] 제주 이주 시 선호 주택소유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주택	임대 주택	상관없음	X ² 값
성별	남성	73.5	9.4	17.1	15.454***
	여성	62.4	15.0	22.7	
연령	20대	65.7	12.7	21.5	2.725
	30대	66.6	13.0	20.4	
	40대	71.0	10.7	18.3	
학력	고졸 이하	61.9	13.5	24.6	4.759
	대졸(재학 포함)	68.8	12.4	18.8	
	대학원 이상	71.3	8.4	20.3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0.0	14.3	25.7	14.772*
	200-400만원 미만	64.2	12.5	23.4	
	400-600만원 미만	69.0	10.9	20.2	
	600-800만원 미만	71.6	15.9	12.5	
	800만원 이상	74.8	7.9	17.3	
이주의향	아주 많음	75.5	12.3	12.3	4.195
	약간 있음	67.5	11.9	20.5	
전체		68.3	12.0	19.7	-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⑤ 제주 이주 시 종사활동

- 제주로 이주할 경우에 종사할 활동은 일반직장(24.3%), 전문직(21.1%), 서비스업(22.0%)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11.3%)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 시 종사하게 될 활동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5.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40대(15.6%)와 20대(13.8%)의 경우에도 제주로 이주한 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대학원 이상의 경우 제주로 이주한 후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35.7%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71] 제주 이주 시 종사활동

(단위: %)

구분		농어업	서비스	유통업	회사	전문직	공공	경제 활동 없음	기타	계획 없음	X ² 값
성별	남성	10.5	20.2	4.7	27.2	21.6	5.8	4.9	1.4	0.7	27.918***
	여성	6.4	24.1	2.5	21.0	20.6	7.1	15.2	1.9	1.2	
연령	20대	2.8	20.4	2.2	24.9	22.7	11.6	13.8	1.7	0.0	59.045***
	30대	7.6	24.6	3.7	27.5	21.9	7.1	5.4	1.5	0.7	
	40대	11.8	20.3	4.2	21.2	19.9	3.6	15.6	1.8	1.6	
학력	고졸 이하	10.3	23.0	5.6	24.6	15.9	3.2	12.7	4.0	0.8	43.865***
	대졸(재학 포함)	9.1	22.8	3.8	25.9	19.3	6.1	10.7	1.3	0.9	
	대학원 이상	4.2	16.8	1.4	15.4	35.7	10.5	13.3	1.4	1.4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0.0	25.7	0.0	17.1	28.6	14.3	8.6	2.9	2.9	41.894
	200-400만원 미만	12.5	20.6	4.4	25.5	19.6	5.3	9.3	1.9	0.9	
	400-600만원 미만	6.6	23.1	4.2	27.1	20.4	6.1	10.3	1.1	1.1	
	600-800만원 미만	9.1	22.2	2.8	23.3	17.6	8.0	13.6	2.3	1.1	
	800만원 이상	6.3	21.3	2.4	16.5	29.9	5.5	16.5	1.6	0.0	
이주 의향	아주 많음	12.3	20.8	6.6	19.8	20.8	5.7	11.3	0.9	1.9	7.193
	약간 있음	8.2	22.2	3.3	24.8	21.2	6.5	11.3	1.7	0.9	
전체		8.6	22.0	3.7	24.3	21.1	6.4	11.3	1.6	1.0	-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⑥ 제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 제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 검색이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 제주도에 사는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 (14.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응답자의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대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72.4%로 매우 높은 반면에 40대는 신문이나 서적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11.8%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대졸의 경우 인터넷 검색 비율이 70.1%인 반면, 고졸 이하는 제주 거주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17.5%로 높게 나타남
 - 200만원 미만은 신문이나 서적을 통한 정보 비율이 17.1%로 높은 반면, 800만원 이상은 제주 거주 지인을 통한 비율이 22.0%로 높음

[표 4-72] 제주도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단위: %)

구분		제주 거주 지인	제주 이외 지역 거주 지인	신문, 방송, 잡지, 서적	인터넷 검색	관련 기관 단체	기타	X ² 값
성별	남성	12.8	5.8	9.7	69.2	2.5	0.0	6.163
	여성	15.8	5.6	8.5	66.3	3.1	0.6	
연령	20대	8.8	5.0	7.7	72.4	6.1	0.0	28.168***
	30대	17.4	6.9	6.9	67.1	1.7	0.0	
	40대	13.4	4.9	11.8	66.7	2.5	0.7	

구분		제주 거주 지인	제주 이외 지역 거주 지인	신문, 방송, 잡지, 서적	인터넷 검색	관련 기관 단체	기타	χ^2 값
학력	고졸 이하	17.5	7.9	12.7	58.7	2.4	0.8	17.160*
	대졸(재학 포함)	13.2	5.6	8.6	70.1	2.2	0.3	
	대학원 이상	16.8	4.2	9.1	63.6	6.3	0.0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6	2.9	17.1	60.0	11.4	0.0	34.283**
	200-400만원 미만	15.3	5.9	9.7	67.9	1.2	0.0	
	400-600만원 미만	12.2	6.6	10.1	67.9	2.9	0.3	
	600-800만원 미만	11.9	4.5	6.8	72.2	3.4	1.1	
	800만원 이상	22.0	4.7	6.3	63.8	3.1	0.0	
이주의향	아주 많음	15.1	8.5	14.2	59.4	1.9	0.9	8.213
	약간 있음	14.1	5.4	8.6	68.8	2.9	0.2	
전체		14.2	5.7	9.2	67.9	2.8	0.3	-

주: *는 $p < .10$, **는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⑦ 제주 이주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 제주 이주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에 관한 정보(48.6%)로 나타남
 - 그 다음 일자리·경제활동(27.4%), 보건·의료시설(6.4%), 문화·여가시설(6.0%), 교통·생활편의시설(5.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주 이주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50.3%)이 남성(47.0%) 보다 주거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자리·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는 남성(29.5%)이 여성(24.9%) 보다 중요하게 제시하였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자리·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의 비율이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일자리·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의 비율이 높음

[표 4-73] 제주 이주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단위: %)

구분		주거	교육	출산·보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교통·편의	일자리·경제	기타	X ² 값
성별	남성	47.0	3.1	2.3	5.6	6.7	5.6	29.5	0.2	12.181*
	여성	50.3	5.2	0.8	7.3	5.2	6.2	24.9	0.0	
연령	20대	36.5	2.2	2.2	10.5	7.7	9.4	30.9	0.6	36.891***
	30대	48.2	5.2	2.5	5.9	4.4	4.7	29.2	0.0	
	40대	53.8	3.8	0.7	5.1	6.7	5.6	24.3	0.0	
학력	고졸 이하	53.2	2.4	1.6	7.1	3.2	6.3	26.2	0.0	13.845
	대졸(재학 포함)	47.5	4.2	1.6	6.3	6.8	5.5	28.3	0.0	
	대학원 이상	50.3	4.9	2.1	6.3	4.2	7.7	23.8	0.7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7.1	0.0	0.0	5.7	2.9	17.1	37.1	0.0	42.401**
	200-400만원 미만	45.2	3.7	1.2	6.5	5.3	6.2	31.8	0.0	
	400-600만원 미만	49.9	5.0	1.6	7.2	4.2	4.8	27.3	0.0	
	600-800만원 미만	54.0	3.4	1.7	6.2	10.2	4.5	19.9	0.0	
이주 의향	800만원 이상	48.8	3.9	3.1	3.9	7.9	7.1	24.4	0.8	5.613
	아주 많음	45.3	2.8	0.9	5.7	10.4	7.5	27.4	0.0	
	약간 있음	48.9	4.2	1.7	6.5	5.5	5.7	27.4	0.1	
	전체	48.6	4.1	1.6	6.4	6.0	5.9	27.4	0.1	-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⑧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 제주 이주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일자리·경제(40.8%)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 다음 주거(22.2%), 교통·생활편의(14.8%), 보건·의료(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구소득, 이주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일자리·경제를 제외하고 주거(32.6%)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주거(27.4%)와 보건·의료(12.9%) 등이 높게 나타남
 - 30대는 주거(34.2%)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교통·편의시설(17.1%)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0만원 미만은 일자리·경제의 비율이 60.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집단은 일자리·경제와 주거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함
 -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주거(34.9%)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4]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단위: %)

구분		주거	교육	출산·보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교통·편의	일자리·경제	기타	X ² 값
성별	남성	32.6	2.9	2.7	8.6	8.5	7.7	36.8	0.2	16.280**
	여성	27.4	4.0	3.1	12.9	5.2	11.9	35.3	0.2	
연령	20대	24.3	3.3	2.2	12.2	8.8	17.1	32.0	0.0	33.576***
	30대	34.2	3.9	3.7	8.6	4.4	10.1	34.9	0.2	
	40대	29.0	2.9	2.5	11.8	8.5	6.2	38.8	0.2	
학력	고졸 이하	30.2	2.4	1.6	12.7	5.6	9.5	37.3	0.8	10.276
	대졸(재학 포함)	30.2	3.4	3.0	10.0	6.9	10.6	35.7	0.1	
	대학원 이상	30.1	4.2	3.5	11.9	8.4	4.9	37.1	0.0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1.4	0.0	0.0	8.6	11.4	5.7	60.0	2.9	46.591**
	200-400만원 미만	34.0	3.4	2.5	10.0	5.3	11.5	33.3	0.0	
	400-600만원 미만	30.2	4.0	3.7	10.6	7.2	7.7	36.6	0.0	
	600-800만원 미만	25.6	4.0	1.1	10.2	8.0	11.4	39.2	0.6	
	800만원 이상	32.3	1.6	4.7	13.4	7.9	9.4	30.7	0.0	
이주 의향	아주 많음	34.9	3.8	3.8	15.1	9.4	6.6	25.5	0.9	12.783*
	약간 있음	29.7	3.3	2.8	10.1	6.7	10.0	37.3	0.1	
전체		30.2	3.4	2.9	10.6	6.9	9.7	36.1	0.2	-

주: *는 p<.10,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4. 중요도-성과(IPA) 분석

가. 중요도-성과 분석(IPA)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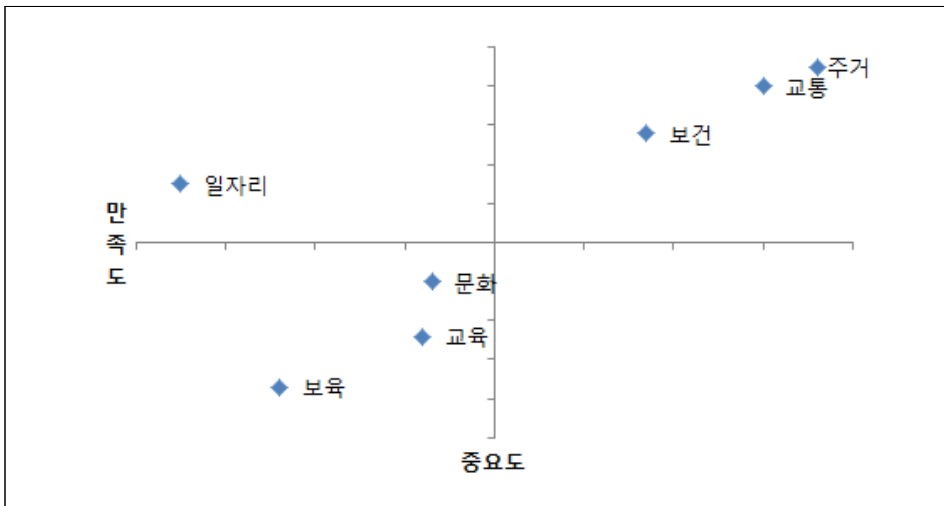
- 중요도-성과 분석(IPA)은 Martilla & James(1977)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분석기법이며, 그들은 기업의 관리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로써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제시하였음(임정빈 외, 2012)
 - 중요도-성과 분석(IPA)은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각적 구분을 통해 자료의 해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Oh, 2001)
 - 그리고 중요도-성과 분석(IPA)은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음(주효진·조주연, 2012; Martilla & James, 1977)
- 이러한 중요도-성과 분석(IPA)은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불일치 정도를 통해 고객의 불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됨
 - 중요도-성과 분석(IPA)은 중요도와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에 기초하여 4개 사분면으로 구분됨
 - 중요도와 성과의 교차점은 일반적으로 중요도와 성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함
 - 4개의 사분면은 유지(제1사분면), 집중(제2사분면), 저순위(제3사분면), 과잉(제4사분면)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중요도-성과 분석(IPA)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이나영, 2012)

나. 중요도-성과 분석(IPA) 결과

1) 전체 응답자 분석결과

- 첫째, 전체 응답자들의 인식을 중요도(5.88)와 만족도(4.91)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keep up the good work)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되었음
 -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concentrate here)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되었음
 -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low priority)에는 교육, 출산·보육, 문화·여가가 포함되었음
 -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possible overkill)에 포함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1]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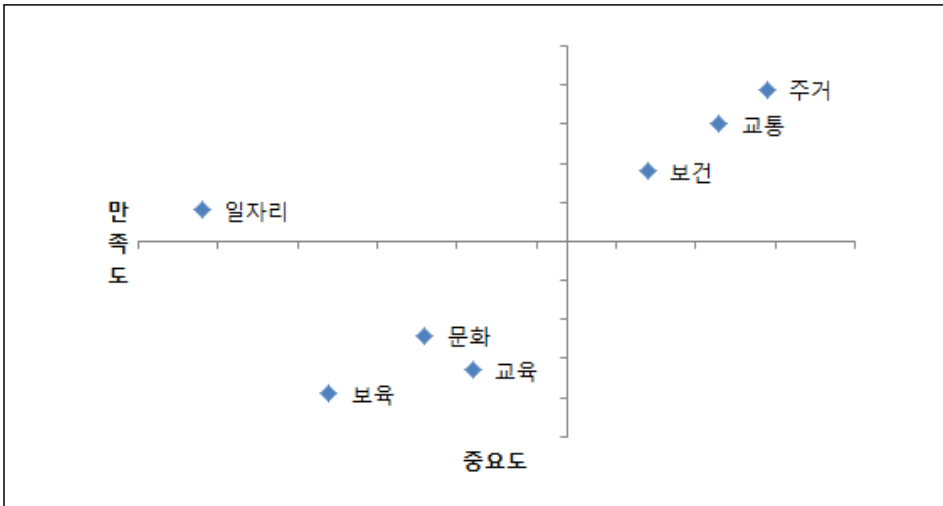


2)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①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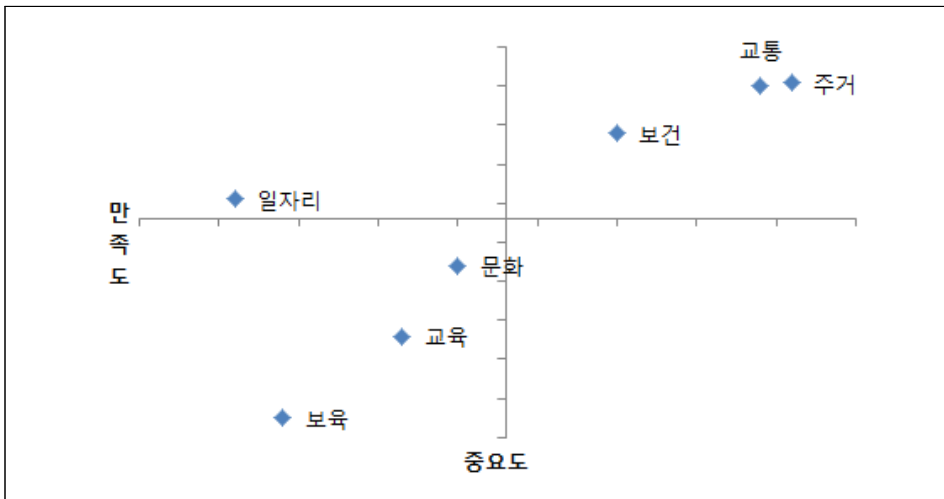
- 첫째, 남성 응답자들의 인식을 중요도(5.80)와 만족도(4.94)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출산·보육, 문화·여가가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남성 응답자들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2]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남성



- 둘째, 여성 응답자들의 인식을 중요도(5.89)와 만족도(4.90)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출산·보육, 문화·여가가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과 동일하게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요도-성과 분석(IPA)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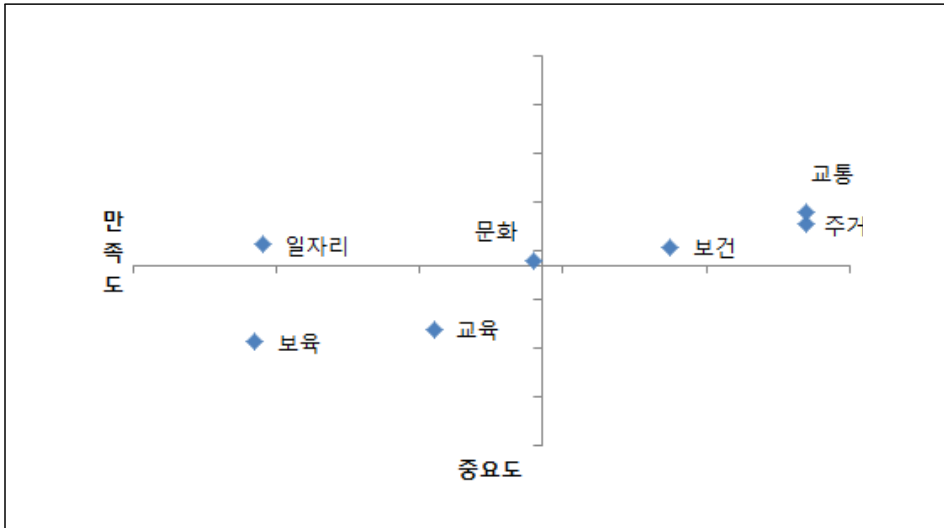
[그림 4-3]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여성



②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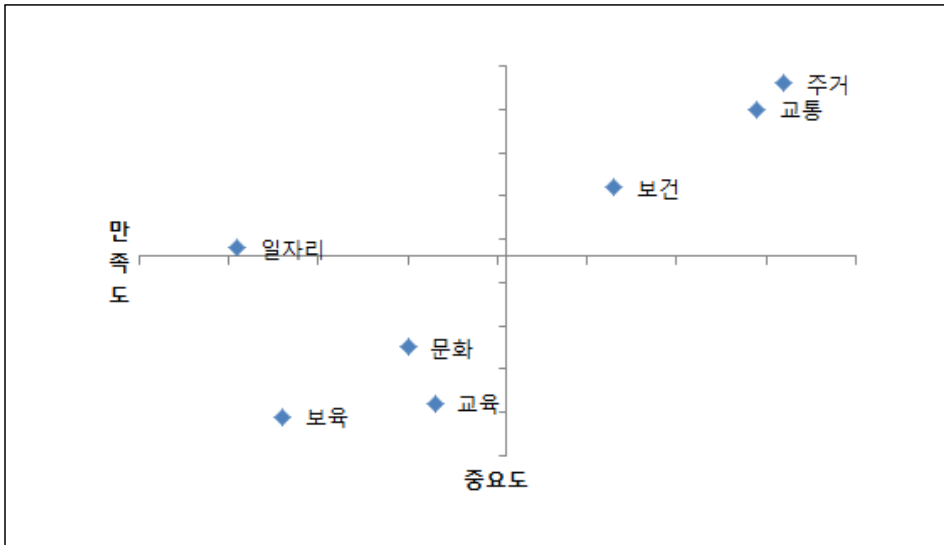
- 첫째, 20대 응답자들의 인식을 중요도(5.84)와 만족도(4.97)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문화·여가,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20대 응답자들은 문화·여가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4]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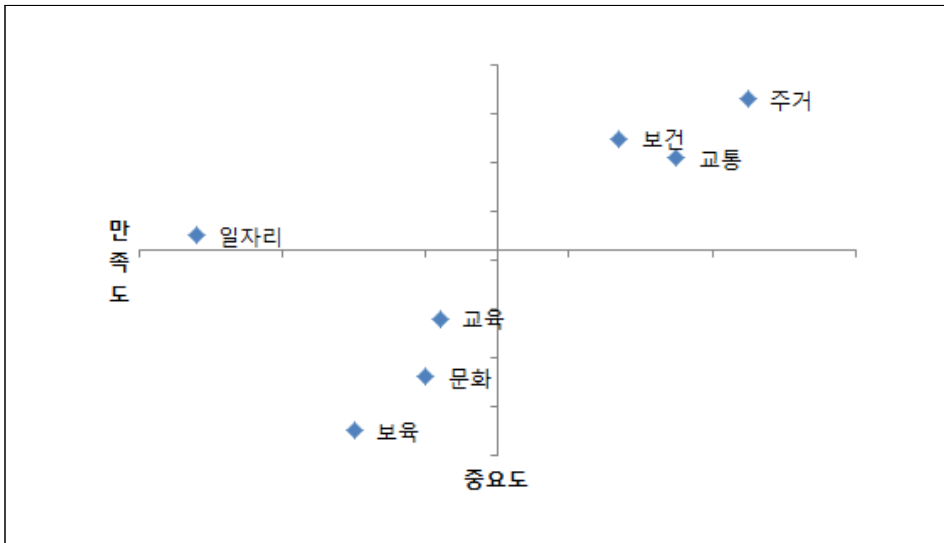
- 둘째, 30대 응답자들의 인식을 중요도(5.86)와 만족도(4.91)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문화·여가,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30대 응답자들은 20대와 동일하게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5]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30대



- 셋째, 40대 응답자들의 인식을 중요도(5.92)와 만족도(4.90)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문화·여가,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40대 응답자들도 20대 및 30대 응답자와 동일하게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즉, 중요도-성과 분석(IPA)에서는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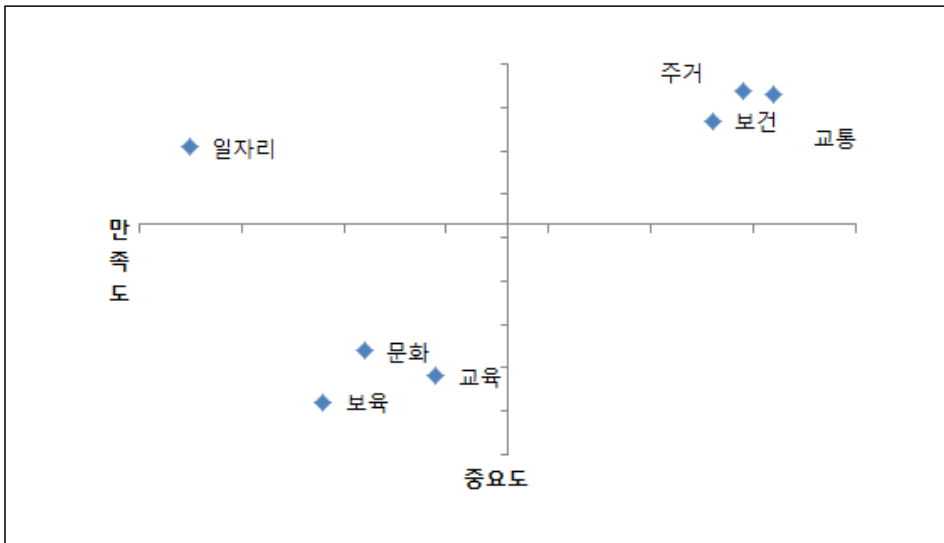
[그림 4-6]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40대



③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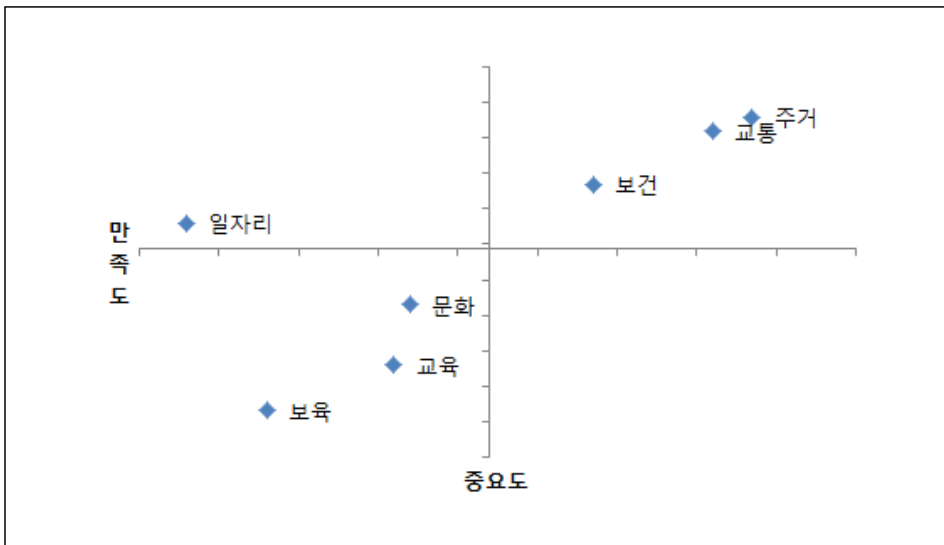
- 첫째, 고졸 이하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5.83)와 만족도(4.76)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문화·여가,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고졸 이하 응답자들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7]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고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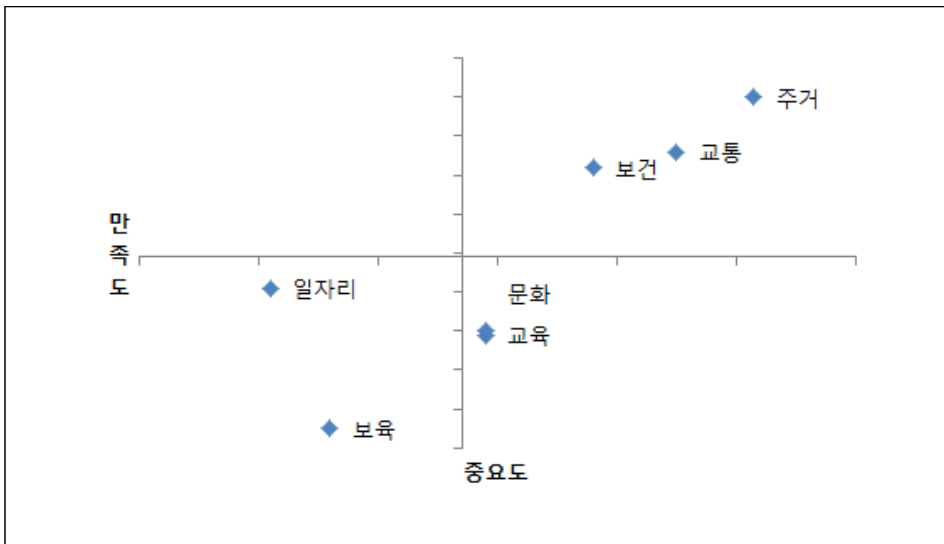
- 둘째, 대졸(재학 포함)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5.89)와 만족도(4.94)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문화·여가,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대졸(재학 포함) 응답자들은 고졸 이하와 동일하게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8]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대졸(재학 포함)



- 셋째,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5.89)와 만족도(4.94)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제3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는 문화·여가, 교육이 포함됨
-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은 문화·여가와 교육이 다소 과다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학력에 따른 중요도-성과 분석(IPA)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재학 포함) 응답자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은 교육과 문화·여가 분야를 과잉 분야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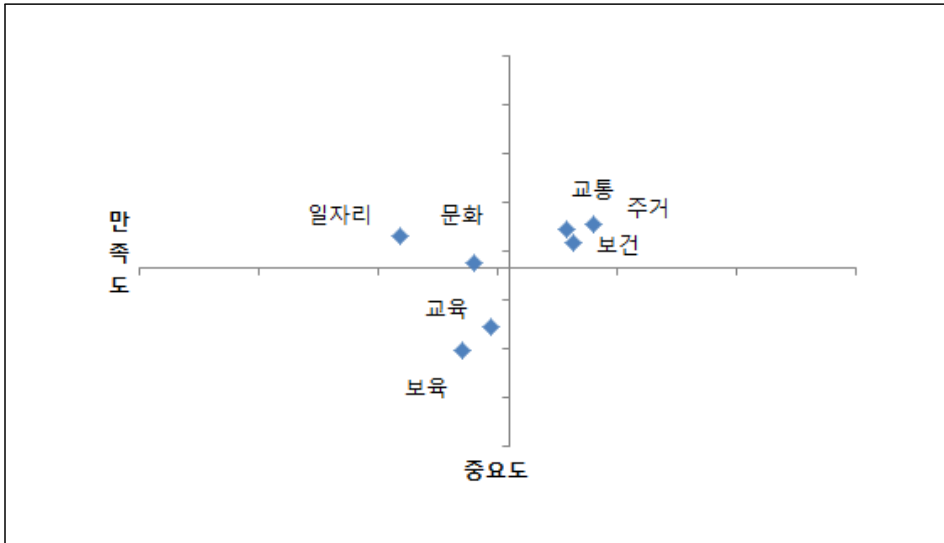
[그림 4-9]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대학원 이상



④ 월 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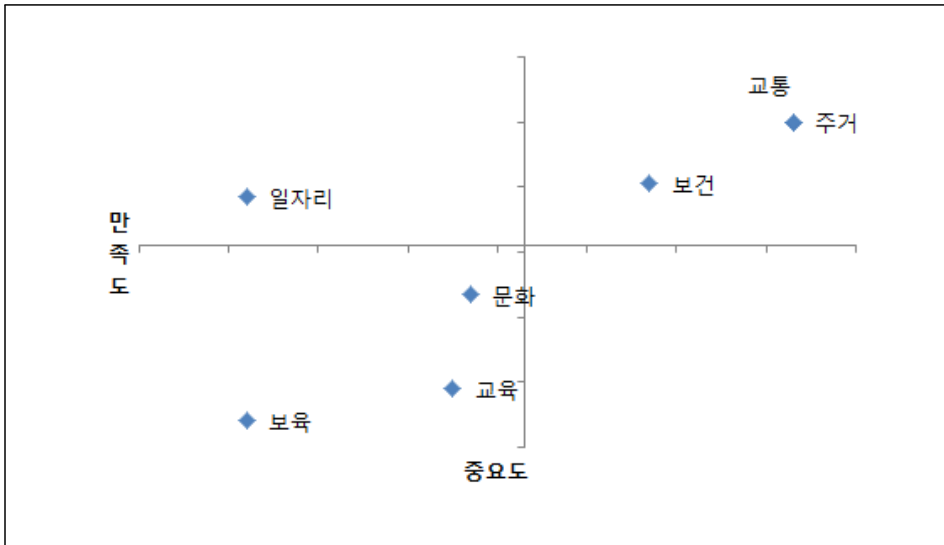
- 첫째,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 (5.83)와 만족도(4.55)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문화·여가,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은 문화·여가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0]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200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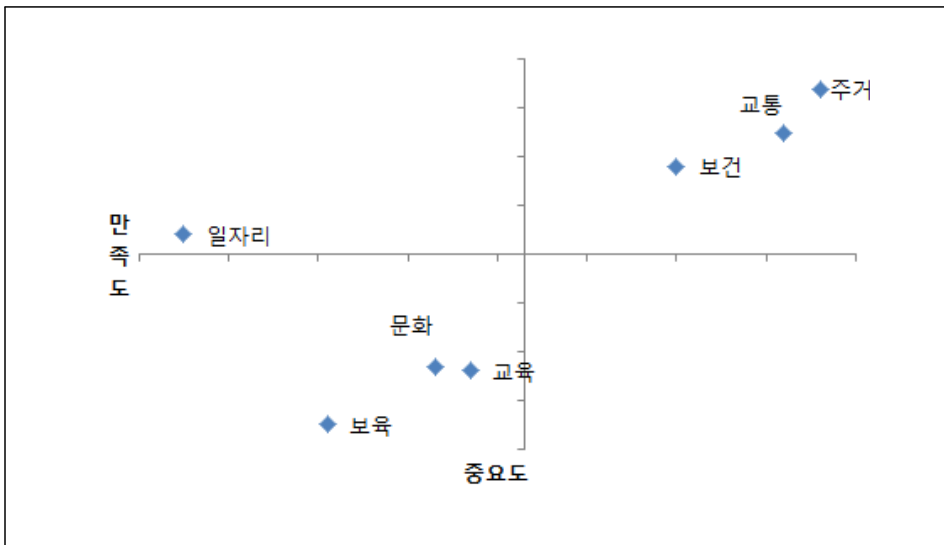
- 둘째, 200-4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5.82)와 만족도(4.83)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문화·여가,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월 평균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1]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200-400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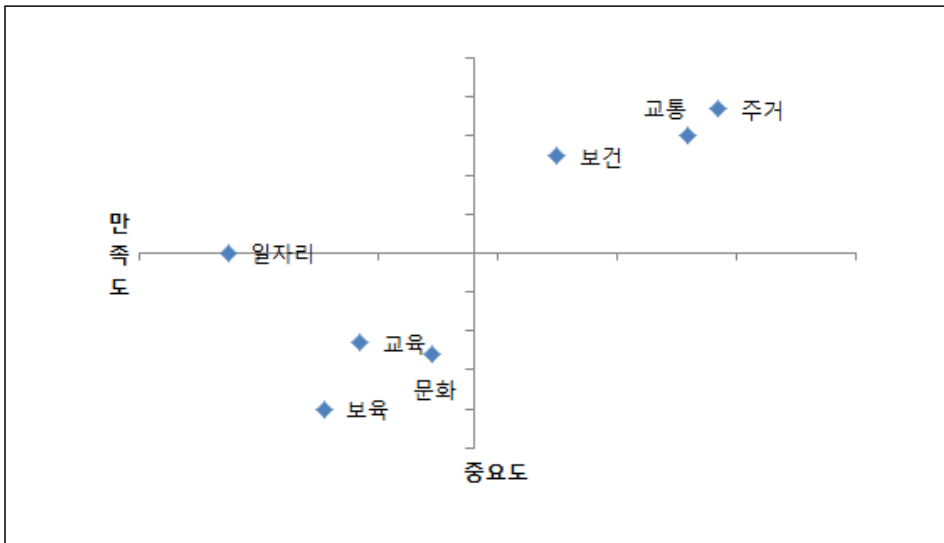
- 셋째, 400-6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5.90)와 만족도(4.93)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문화·여가,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400-6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은 200-400만원 미만과 동일하게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2]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400-600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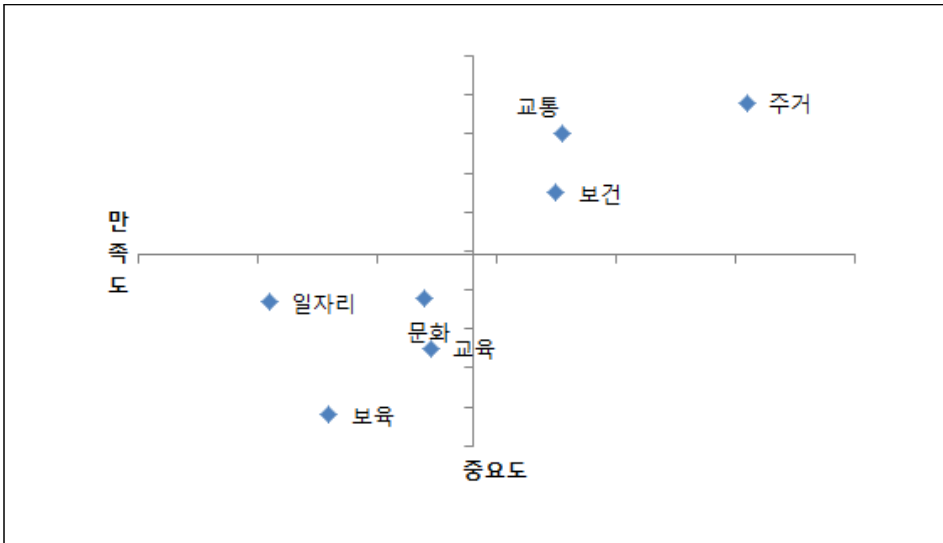
- 넷째, 600-8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5.90)와 만족도(4.96)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교육, 문화·여가,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600-8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은 200-400만원 미만 및 400-600만원 미만 응답자와 동일하게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3]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600-800만원 미만



- 다섯째, 800만원 이상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5.99)와 만족도(5.16)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제3사분면에는 교육, 문화·여가, 출산·보육,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된 분야는 없음
- 800만원 이상 응답자들은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야나 과다 지원되고 있는 분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중요도-성과 분석(IPA)에서는 200만원 미만과 800만원 이상 응답자의 인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집단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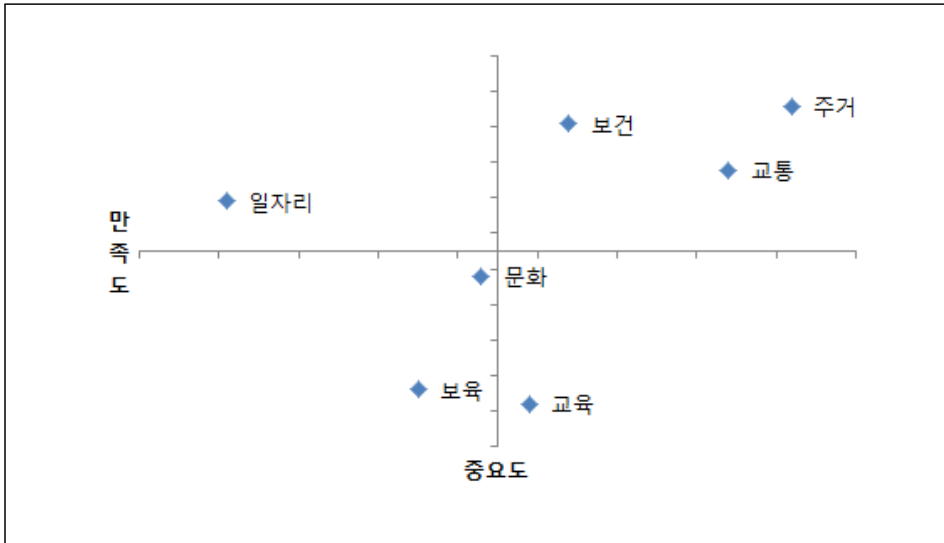
[그림 4-14]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800만원 이상



⑤ 이주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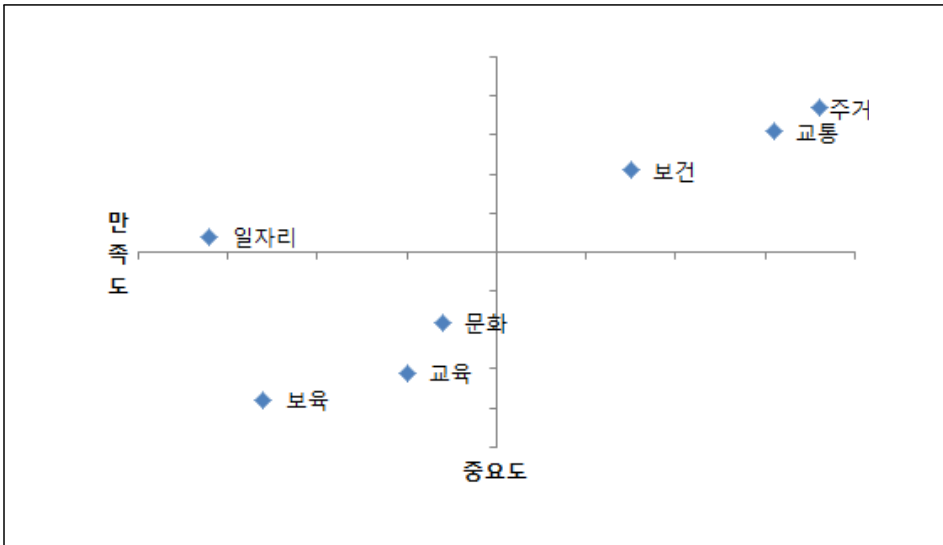
- 첫째,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 (5.89)와 만족도(4.90)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문화·여가,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는 교육이 포함됨
- 제주 이주의향이 아주 많은 응답자들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은 다소 과다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5]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이주의향 아주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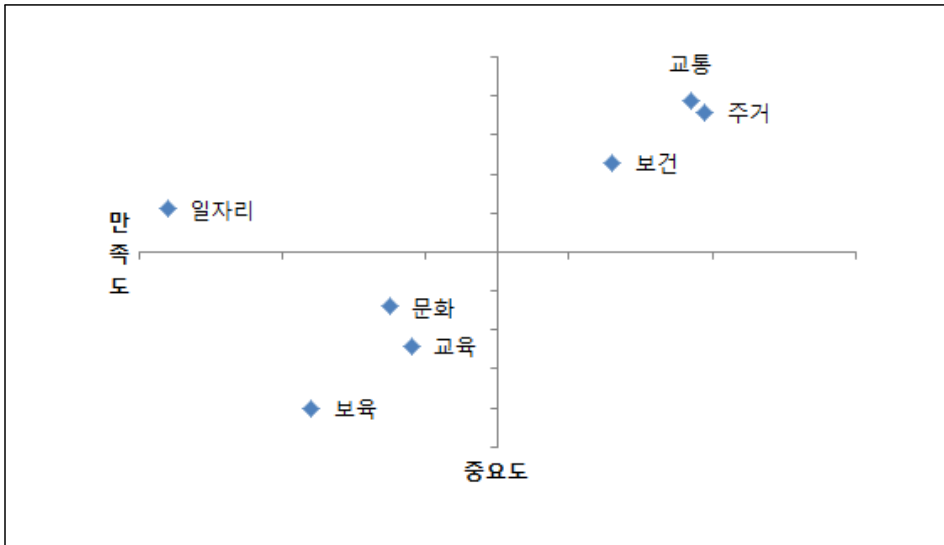
- 둘째,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약간 있는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 (5.91)와 만족도(4.91)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문화·여가, 출산·보육, 교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이주의향이 약간 있는 응답자들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6]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이주의향 약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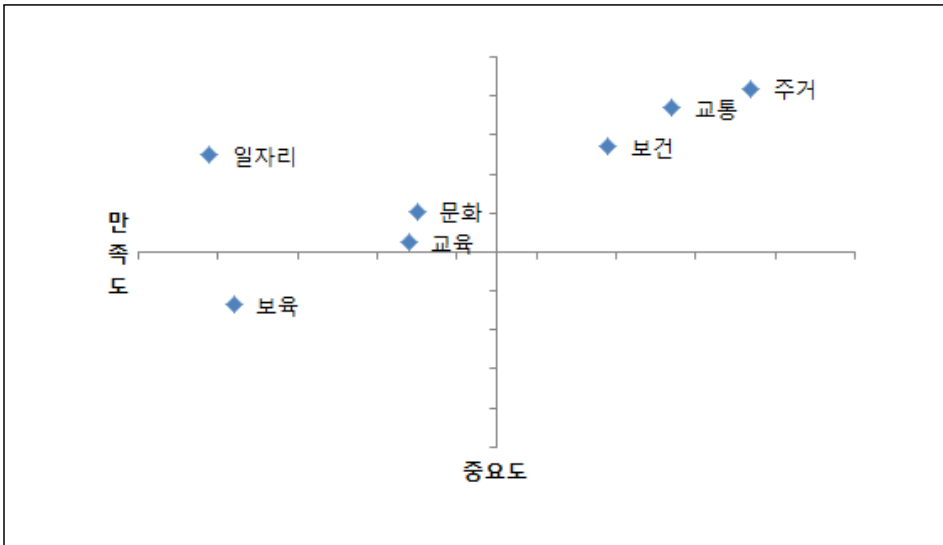
- 셋째,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별로 없는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 (5.84)와 만족도(4.86)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문화·여가, 출산·보육, 교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이주의향이 약간 있는 응답자들은 이주의향이 약간 있는 응답자와 동일한 분석결과를 나타냄

[그림 4-17]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이주의향 별로 없음



- 넷째,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는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 (5.87)와 만족도(5.02)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사분면에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됨
 - 제2사분면에는 일자리·경제활동, 문화·여가, 교육이 포함됨
 - 제3사분면에는 출산·보육이 포함됨
 - 제4사분면에 포함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이주의향이 약간 있는 응답자들은 일자리·경제활동, 문화·여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8]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 이주의향 전혀 없음



제3절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주 영향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과 이주의향

- 제주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음

$$- \text{Prob}(Y=1) = B_0 + \sum_{n=1}^{11} B_n X_i + \epsilon_i \quad (1)$$

- Prob(Y=1)은 이산형의(discrete) 종속변수로 제주 이주의향(없음-0, 있음-1)과 제주 이주준비(안함-0, 함-1)를 각각 이용함
- X_i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로 제주 거주경험 여부, 제주 거주 친인척 여부, 성별, 연령, 현재 거주지역, 고향, 혼인상태, 최종 학력, 월 가구소득, 직업, 이사횟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ϵ_i 는 추정식의 오차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logistic 분포를 따름
- [표 4-75]는 식 (1)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표에 나타난 계수 값은 odds-ratio를 나타내고 있는데 1보다 클 경우 reference group보다 종속변수의 값을 취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함
- 열 (1)은 제주 이주의향이 종속변수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열 (1)에 나타난 결과의 경우 제주 이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제주 거주경험, 제주 거주 친인척, 성별, 월 가구소득, 직업, 그리고 이사 횟수로 나타남
 - 이 중 제주 거주경험과 제주 거주 친인척 유무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제주 이주의향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 거주경험이 있거나 제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이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이주의향이 약 20%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월 가구소득의 경우 저소득 가구에 비해서 중위 소득가구가 더 높은 이주

-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그 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들에 비해 20% 이상 더 높은 이주의향을 나타냄
 - 마지막으로 이사 횟수의 경우 이사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서 이사 횟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이주의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사를 3회 이상한 응답자의 경우 이사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35% 이상 더 높은 이주의향을 보임
- 열 (2)는 제주 이주준비가 종속변수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열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주 거주경험, 제주 거주 친인척, 성별, 월 가구소득, 직업, 그리고 이사 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주 거주경험과 제주 거주 친인척에 대한 유무가 가장 큰 계수값을 보이고 있음
 - 월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은 고소득 가구일수록 제주 이주준비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열 (1)의 이주의향에 대한 결과보다 유의성과 계수값의 크기가 더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나타남

[표 4-7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제주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

구분		(1)	(2)
		제주이주의향	제주이주준비
제주 거주경험	거주경험 있음	2.487*** (0.493)	5.660*** (1.133)
제주 거주 친인척	있음	2.221*** (0.317)	3.083*** (0.571)
성별	여성	0.799** (0.076)	0.739* (0.127)
연령	30대	1.179 (0.164)	1.279 (0.326)
	40대	1.210 (0.180)	1.347 (0.364)

구분		(1)	(2)
		제주이주의향	제주이주준비
현재 거주지역	서울시	1.012 (0.096)	1.297 (0.223)
고향	수도권	1.121 (0.131)	0.959 (0.194)
	광역시	0.960 (0.160)	0.854 (0.252)
혼인상태	결혼	1.100 (0.124)	0.936 (0.191)
최종 학력	대학 재학 이상	1.173 (0.166)	0.784 (0.215)
월 가구소득	300~599만원	1.287* (0.167)	1.318 (0.348)
	600~899만원	1.137 (0.176)	1.740* (0.511)
	900~1000만원 이상	0.936 (0.189)	2.041** (0.717)
직업	사무직 및 전문직	1.234** (0.124)	1.505** (0.310)
이사 횟수	1회	0.980 (0.162)	1.141 (0.428)
	2회	1.063 (0.169)	1.574 (0.533)
	3회 이상	1.358** (0.190)	2.026** (0.644)
관측치 수		2,012	2,012

주: 계수 값은 Odds-ratio를 의미함.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Reference group은 거주경험 없음, 제주 거주 친인척 없음, 남자, 20대, 경기도, 그 외 혼인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0~299만원, 그 외 직업, 이사 횟수 0회 임. 그 외 혼인상태에 해당하는 항목은 미혼/비혼, 이혼, 사별, 기타임. 그 외 직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직, 판매 및 영업직, 주무, 무직 및 학생, 기타임. * $p < 0.1$, ** $p < 0.05$, *** $p < 0.01$.

- 다음으로 제주 거주경험 및 제주 거주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들이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식 (1)에서 종속변수를 제주 거주경험 및 제주 거주 친인척(없음=0, 있음=1)으로 설정한 후 나머지 응답자 특성에 대하여 logistic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음
- [표 4-76]에 추정결과가 나타나 있음
 - 제주 거주경험 및 제주 거주 친인척 유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연령, 현재 거주 지역, 혼인상태, 직업, 그리고 이사 횟수로 나타남
 - 연령의 경우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제주도에 거주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을 확률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지역과 혼인상태, 직업의 경우 경기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일수록, 결혼 이외의 혼인상태에 있는 응답자들보다는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일수록, 사무직 및 전문직 이외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들보다는 사무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제주 거주경험이 있거나 제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이사 횟수의 경우 이사를 한 번도 안 한 것 보다는 이사경험이 많을수록 제주에 거주경험이 있거나 제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표 4-75]-[표 4-76]의 결과를 요약하면 제주 이주의향 및 제주 이주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제주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제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지의 여부임
 -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서울 거주와 젊고 결혼을 했으며 이사경험이 많은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일 확률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히로사키 지역을 대상으로 고향에 부모의 집이 있는지의 여부가 귀향의 가장 큰 결정요인임을 밝힌 Lee and Sugiura(2018)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제주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작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주 및 이주준비 의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표 4-7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제주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

구분		제주 거주경험 및 제주 거주 친인척
성별	여성	0.997 (0.118)
연령	30대	0.749* (0.131)
	40대	0.645** (0.127)
현재 거주지역	서울시	1.336** (0.160)
고향	수도권	0.981 (0.138)
	광역시	0.819 (0.166)
혼인상태	결혼	1.434** (0.215)
최종 학력	대학 재학 이상	1.042 (0.195)
월 가구소득	300~599만원	0.967 (0.161)
	600~899만원	1.110 (0.214)
	900~1000만원 이상	1.081 (0.264)

구분		제주 거주경험 및 제주 거주 친인척
직업	사무직 및 전문직	1.336** (0.170)
이사 횟수	1회	1.561* (0.387)
	2회	2.302*** (0.528)
	3회 이상	2.595*** (0.558)
관측치 수		2,012

주: 계수 값은 Odds-ratio를 의미함.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Reference group은 남자, 20대, 경기도, 그 외 혼인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0~299만원, 그 외 직업, 이사 횟수 0회 임. 그 외 혼인상태에 해당하는 항목은 미혼/비혼, 이혼, 사별, 기타임. 그 외 직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순 노무 및 서비스직, 판매 및 영업직, 주무, 무직 및 학생, 기타임. * $p < 0.1$, ** $p < 0.05$, *** $p < 0.01$.

2. 제주 거주경험 및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들의 이주 영향요인

- [표 4-75]의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개인적 특성 중 제주 거주경험 및 제주 거주 친인척 유무가 제주 이주 및 이주 준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이들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이주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이주 영향요인은 크게 ① 주거, ② 교육, ③ 출산·보육, ④ 보건·의료, ⑤ 문화·여가, ⑥ 교통·생활편의시설, ⑦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로 크게 분류하였음
 - [표 4-77]의 열 (1)은 삶의 질 평가 시 각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중요도를, 열 (2)는 현재 거주지역의 각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열 (3)은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각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각각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표 4-77]에 나타난 값은 응답자들이 7점 척도로¹⁷⁾ 제시된 선택지에서 선택한 결과의 평균을 의미하고 괄호안의 값은 각 열의 순위를 의미함
- [표 4-77]은 각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열 (1)에 나타난 삶의 질 평가 시 분야별 중요도에 대한 결과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분야는 주거인(6.338점)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하다고 평가한 분야는 출산·보육으로(5.600점) 나타남
 - 교통·생활편의시설은 6.213점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나타난 반면, 교육은 5.694점으로 출산·보육에 이어 응답자들이 삶의 질을 평가할 때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나타남
 - 열 (2)에 나타난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의 경우 열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통·생활편의시설(5.288점)과 주거(5.265점)가 가장 높은 반면 출산·보육(4.714점)과 일자리·경제활동(4.678점)에 대한 만족도

17) 7점 척도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덜 중요한 혹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냄. 7점 척도의 자세한 내용은 각 표의 각주를 참고.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열 (3)에 나타난 타 지역 이주 시 분야별 중요도에 대한 결과의 경우 교통·생활편의시설(6.078점)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경제활동(5.995점)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나타남
- 반면 출산·보육(5.603점)과 문화·여가(5.579점) 분야는 타 지역 이주 시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분야로 나타남

○ [표 4-77]의 분석결과에 따른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유인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교통·생활편의시설과 주거 분야는 삶의 질을 평가할 때와 타 지역으로 이주 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들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교통·생활편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이주의향이 높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출산·보육, 문화·여가, 교육 분야의 경우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삶의 질 평가나 타 지역 이주 시 중요도도 크지 않아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인구유입에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만족도는 매우 낮지만 타 지역 이주 시 중요도가 매우 높고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주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표 4-7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주 이주의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젊고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제주도로 유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판단됨

[표 4-77] 제주 거주경험 및 친인척이 있는 응답자의 이주 영향요인

구분	(1)	(2)	(2)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	현재 거주 지역 만족도	타 지역 이주 시 중요도
주거	6.338 (1)	5.265 (2)	5.875 (4)
교육	5.694 (6)	4.932 (4)	5.657 (5)
출산·보육	5.600 (7)	4.714 (6)	5.603 (6)
보건·의료	6.174 (3)	5.034 (3)	5.906 (3)
문화·여가	5.735 (5)	4.919 (5)	5.579 (7)
교통·생활편의시설	6.213 (2)	5.288 (1)	6.078 (1)
일자리·경제활동	6.021 (4)	4.678 (7)	5.995 (2)
관측치 수	385	385	385

주: 1-전혀 중요하지(그렇지) 않다, 2-중요하지(그렇지) 않다, 3-중요하지(그렇지) 않은 편이다, 4-보통이다, 5-중요한(그런) 편이다, 6-중요하다(그렇다), 7-매우 중요하다(그렇다)임. 괄호 안은 각 열에 나타난 결과의 순위를 나타냄.

제4절 이주민 대상 FGI 결과

1. FGI 개요

-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제주 이주에 대한 현황과 이슈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FGI를 실시함
 - 기간: 2020년 6월 4일~ 5일
 - 방법: 대면 인터뷰(4명) 및 전화인터뷰(5명)
 - 대상: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20-40대 이주민 9명

[표 4-78] FGI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대	결혼(자녀) 여부	제주 연고지 여부	이전 거주지역	가족 이주 여부	거주 형태	정착 기간
A	남성	30대 중반	기혼 (없음)	없음	경기도 평택시	가족과 함께 내려옴	월세	1년
B	여성	20대 초반	미혼	있음 (부모님이주)	충청남도 천안시	혼자 내려옴	자가	1년 반
C	남성	40대	기혼 (있음)	없음	인천시	가족과 함께 내려옴	?	2년
D	여성	40대 초반	기혼 (있음)	있음 (제주출신)	서울시	가족과 함께 내려옴	전세	3년
E	여성	30대	기혼 (없음)	없음	?	가족과 함께 내려옴	?	3년
F	여성	40대	기혼 (있음)	없음	경기도	친정부모님, 아이와 내려옴	자가	3년
G	여성	20대 후반	미혼	있음 (제주대학)	경기도	혼자 내려옴	월세	1년 미만
H	여성	40대 초반	기혼 (있음)	있음 (제주출신)	서울시	가족과 함께 내려옴	전세	18년
I	남성	20대 후반	미혼	없음	서울시	혼자 내려옴	월세	1년 미만

2. FGI 결과

가. 이주 이유

- 다양한 이유를 계기로 제주도로의 이주를 결정했지만, 인터뷰 참여자의 배경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제주도에 연고지가 없는 1-2인 가구
 - 제주도에 연고지가 없고 자녀가 있는 가구
 - 제주도에 연고지가 있는 가구
- 제주에 연고지가 없는 1-2인 가구는 제주에서의 삶에 대한 로망을 쫓아 이주하였으며,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한 경우가 많았음

I/남성/20대/미혼

“어릴 때 제주도에 사는 로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주도 한달살기 하는 중 제주터큰내일센터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다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있게 되었어요.”

E/여성/30대/기혼

“제주도 삶의 로망을 쫓아서 내려왔어요”

- 제주에 연고지가 없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교육과 보육 문제로 이주하였음

D/여성/40대/기혼/자녀있음

“부모님이 여기 제주도에 계신 것도 있지만, 제주도가 장애아에 대한 여건이 좋아 육아하기에 양호해서 내려왔어요”

H/여성/40대 초반/기혼/자녀있음

“아이가 아파서 휴양차 내려왔어요. 그년부터 제주도에 여행도 자주 왔었고, 아이가 제주도를 좋아하구요”

- 제주에 연고지가 있는 가구는 타지생활의 외로움을 느끼고 내려오거나 제주에서의 삶에 만족해서 다시 내려왔음

여성/40대/기혼/자녀있음

“공부 때문에 서울로 갔는데, 타지생활의 외로움을 느껴서 다시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G/여성/20대/미혼/1인가구

“제주도에서 대학을 보냈는데, 그때 제주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이 여기 있기도 하고 제주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내려왔어요.”

나. 분야별 만족도 및 의견

□ 일자리 및 임금

- 전체적으로 제주 내 절대적 수 및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물가 대비 임금이 낮다는 점은 제주도로 이주할 때 혹은 장기간 거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함

A/남성/30대/기혼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여유로움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는데 좋지만, 박봉인 임금, 네임벨류 등 일자리 문제가 있어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육지에서의 안정된 상황을 내려놓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다”

B/여성/20대/미혼

“돈을 덜 벌더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돈을 버는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이걸 고민할 문제이다. 양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

- 낮은 임금의 문제는 전 계층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과 육아가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임금의 문제는 장년층보다는 청년층(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에 더욱 크게 작용함

D/여성/40대/기혼

“남편은 하던 일 그대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이 낮아서 불만이 있긴 해요. 그래도 여기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저는 다시 올라가는 것에 있어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 구직활동을 하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 구직하기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음

F/여성/40대/기혼

“지금 현재 청년다락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을 구하고 싶은데, 구직활동 통로도 잘 모르겠고, 구직하는 나이드 애매해서 어렵다”

□ 육아·보육·교육

- 인터뷰 참여자 중 자녀가 있는 참여자만이 육아·보육·교육 분야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제주의 출산·육아·보육환경이 좋다고 응답함
-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어린이집/유치원 입학이라던가 보육 지원에 대한 걱정이 덜 하다고 제시함
- 다만, 국공립 유치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입시를 걱정하여 육지로의 이주를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남성/40대/기혼/미취학 자녀

“산부인과도 많고, 제주도 출산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육지보다 좋은 거 같아요.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절대적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집까지는 괜찮은데, 유치원은 멀리 보내야 하는게 문제예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이라, 공립유치원이 많아진다면 육아환경이 더 좋아질 거 같아요.”

H/여성/40대/기혼/취학자녀

“출산, 보육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육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갈 때 너무 치열한데 제주도는 아니거든요. 대기 걸어봐도 빨리 들어가고. 근데, 가끔 아이가 더 클 수 있는데, 여기 있어서 역량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아이 교육 때문에 올라가야 생각 이 든 적이 있어요. 국제학교가 반응이 좋았다. 제주도에 비싼 학교가 아닌 누구도 갈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생기면 엄마들의 호응이 좋을 거 같다.”

- 긴 돌봄시간, 토요일 돌봄 등 장애아에 대한 지원이 많고, 경쟁률이 낮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여건이 제주도가 좋은 편이라는 답변도 있었음

여성/40대/기혼/취학자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많고, 경쟁률이 낮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서울보다 돌봄시간이 길고, 토요일에도 봐주는 곳이 많아서 장애아를 키우는 여건이 제주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지만 주변에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입시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요”

□ 주거·교통

- 인터뷰 참여자 모두 제주 주거비용이 부담된다고 답변했지만, 특히 제주에 기반이 없는 청년 이주민일수록 주거문제가 제주에서 살아가는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층의 경우, 특히 차가 없으면 생활환경에 제약이 생겨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어 신시가지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있음

남성/20대 후반/미혼/1인 가구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버는 것에 비해 연세나 월세가 너무 비싸서 괴리감이 들어요. 싼 집을 찾으면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또 그렇게 싼 것도 아니구요. 또, 차가 없다면 외곽지역으로 갈 수도 없구요. 제주도에서 연세나 월세를 잡을 수 없다면 차라리 청년전세자금대출 같은 걸 지원해주면 좋을거 같아요”

남성/40대/기혼/3인가구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 와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현실이 월세 문제예요. 제주도에서 1인당 3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회사를 통해 지원하는거라 직장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에게에는 애매해요.”, “도심지역 월세가 비싸 멀리 가지니 교통문제가 있구요”

- 월세나 연세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찾지만, 전세매물이 많이 없어 쉽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기되었음
-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형태가 많아 1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어진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 전세로 들어가기 어려움

여성/20대 후반/미혼/1인 가구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 받는 임금에서 월세 내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전세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전세 자체가 너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매물 있어서 1인 가구가 살기에는 애매해요. 또, 그렇다고 오피스텔 쪽 전세를 알아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지어진 게 많아서 어렵구요”

- 육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이주할 때 경력공백이 발생한다면, 전세를 위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됨

남성/40대/기혼/3인가구

“먼저 내려와서 원룸에 살면서 집을 알아봤는데,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금으로 제주도에 집을 살 수 있거나 돈이 남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는데, 경력 공백일 때 알아보려니, 대출받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 이주민-원주민 통합

- 이주민 관점에서 원주민에 대한 의견은 나이와 직업형태에 따라 구분됨
- 청년층은 원주민이 생각하는 방식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배타적이라고 느끼지 않으며, 섞이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오히려 제주도에서 만난 인연으로 인해 제주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음

B/여성/20대/미혼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좋고, 여기 사람들과 주고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찾고 싶어요. 다시 내려올 만큼의 매력이 있어요”

I/남성/20대/미혼

“여기 애들은 당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있어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섞이고 크게 배타적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일을 같이하며 어울리기 때문에 원주민과의 교류는 본인 의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직장에 따로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가정주부는 원주민에게 다가가기 어려워 친해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음

F/여성/40대/기혼

“이웃에게 다가가기가 워보다 더 어려워 친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C/남성/40대/기혼

“남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렸는데, 가정주부는 고립된 삶인거 같아요. 애가 없거나 어리면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힘들고,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참여하면 적응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기 까지 베타적인것도 있구요.”

- 반면, 원주민의 관점에서 이주민이 떠나면 어찌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H/여성/40대/기혼

“일은 이주민이 잘하는데, 끈기는 원주민이 더 좋아요. 이주민은 본인들의 기준에 못 미치면 떠나서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면 어찌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거 같아요”

□ 정보공유

- 제주에 연고지가 없는 이주민은 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주민끼리 정보를 공유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H/여성/40대/기혼

“제주 맘카페 등에 정보가 많은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주민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 진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거죠”

- 신문이나 주변 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면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F/여성/40대/기혼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얻는 통로도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플랫폼 등의 창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 기타

- 문화생활과 관련해서는 거주기간이 얼마 안 된 경우(1년 미만)에는 아직 괜찮다는 의견이, 거주기간이 조금 된 경우에는 아쉽다는 의견이 존재함
- 아이가 아파 휴양차 온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서귀포에는 대형병원이 없어 대형병원을 가려면 제주시에 가야 한다는 점에서 서귀포에도 큰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5절 분석결과 종합

1.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가. 삶의 질

-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보다 삶의 질과 관련된 7개 분야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 분야의 중요성이 6.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출산·보육 분야의 중요성이 5.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 분야의 만족도가 5.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의 만족도가 4.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중요도-성과 분석(IPA) 결과 남성 응답자들은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 응답자는 주거 분야 중요성이 6.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출산·보육 분야의 중요성이 5.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 분야의 만족도가 5.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의 만족도가 4.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중요도-성과 분석(IPA) 결과 여성 응답자들은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이주 영향 정책 분야

- 남성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정책, 일자리·경제정책, 주거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남성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5.88점),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5.85점),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5.81점)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여성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정책, 일자리·경제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은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6.08점),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6.06점),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5.94점)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남

다. 제주 이주의향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남성(54.9%)이 여성(48.1%) 보다 높게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일자리·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음
 - 여성의 경우에는 교통·편의시설환경 때문에 제주로 이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응답도 26.9%로 높게 나타남
- 제주 이주 시 주택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가주택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응답도 22.7%로 높게 나타남
- 제주 이주 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남성은 일반 회사 또는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여성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15.2%로 높게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제주 이주 준비를 위해 주거에 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음

- 남성의 경우 일자리·경제활동에 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도 29.5%로 높게 나타남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경제정책을 제시하였음
 - 남성의 경우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2.6%로 높게 나타남

2.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

가. 삶의 질

- 삶의 질 중요도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출산·보육, 보건·의료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의시설, 일자리·경제활동의 경우 20대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의 만족도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화·여가 및 교통·생활편의시설 만족도에서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및 교통·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주거, 교통·생활편의시설,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요도-성과 분석(IPA)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나. 이주 영향 정책 분야

- 20대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정책, 일자리·경제정책, 주거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20대는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6.09점),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5.98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5.91점)가 중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30대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정책, 일자리·경제정책, 주거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30대 응답자는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5.96점),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5.94점),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5.86점)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40대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정책, 일자리·경제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40대 응답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6.00점),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5.93점),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5.92점)이 중요하다고 제시함

다. 제주 이주의향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40대(53.1%)가 가장 많은 반면에, 20대(45.7%)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반면에 제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일자리·경제활동환경을 많이 제시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편의시설환경을 많이 제시하였음

-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이지만, 그 다음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 제주 이주 시 주택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가주택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응답도 22.7%로 높게 나타남
- 제주 이주 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40대(15.6%)와 20대(13.8%)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대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72.4%로 매우 높은 반면에 40대는 신문이나 서적 등을 통해 정보는 얻는 비율도 11.8%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자리·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의 비율이 높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에서 30대는 주거(34.2%)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교통·편의시설(17.1%)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학력에 따른 분석결과

가. 삶의 질

- 삶의 질의 중요도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는 주로 대학원 이상과 고졸 이하 간에 나타나고 있음
 - 주거는 대학원 이상(6.30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활동의 경우 고졸 이하(6.01점)가 중요하게 인식함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학력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포함한 5개 분야에서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 교육,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의시설 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졸 이하는 교통·생활편의시설(5.02점)을 제외한 6개 분야 평균값이 4점 대로 낮게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중요도-성과 분석(IPA)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재학 포함) 응답자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은 교육과 문화·여가 분야를 과잉 분야로 제시하였음

나. 이주 영향 정책 분야

- 고졸 이하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정책, 일자리·경제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고졸 이하 응답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5.99점),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5.90점), 중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5.88점)가 중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대졸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정책, 일자리·경제정책, 주거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대졸 응답자는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6.00점),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5.97점),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5.89점)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대학원 이상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정책, 주거정책, 일자리·경제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원 이상 응답자는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5.96점),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5.95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5.96점)가 중요하다고 제시함

다. 제주 이주의향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대학원 이상(55.5%)이 가장 많은 반면, 고졸 이하(46.5%)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가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모든 응답자가 일자리·경제활동환경을 가장 많이 제시함
- 제주 이주 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대학원 이상의 경우 제주로 이주한 후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35.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제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대졸의 경우 인터넷 검색 비율이 70.1%인 반면, 고졸 이하는 제주 거주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17.5%로 높게 나타남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모든 응답자가 일자리·경제활동과 주거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음

4.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결과

가. 삶의 질

- 삶의 질의 중요도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를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 교육, 출산·보육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만원 미만의 경우 교통·생활편의시설(6.27점), 주거(6.22점), 일자리·경제활동(6.15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 모든 분야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중요도-성과 분석(IPA)에서는 200만원 미만과 800만원 이상 응답자의 인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집단은 일자리·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나. 이주 영향 정책 분야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영향요인에 대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 분야에서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경우에는 800만원 이상(5.80점)과 200만원 미만(5.19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보육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5.58점)과 200만원 미만(5.13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만원 미만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 정책, 일자리·경제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200만원 미만 응답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6.05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인력 및 인프라 보강(5.93점),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5.91점)이 중요하다고 제시함
- 800만원 이상 응답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교통·생활편의 정책, 주거정책, 일자리·경제정책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 관련하여 800만원 이상 응답자는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조정(5.93점),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5.81점), 공공보육시설 공급 확대(5.78점)이 중요하다고 제시함

다. 제주 이주의향

- 제주로 이주할 의향은 월 평균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54.8%)이 가장 많은 반면, 200만원 미만(31.8%)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월 평균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일자리·경제활동환경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음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제주 이주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0만원 이상의 경우 23.6%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빠른 시간 내에 제주로 이주할 예정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800만원 이상은 9.5%가 3년 이내)
- 제주 이주 시 주택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모든 응답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0만원 미만은 신문이나 서적을 통한 정보 비율이 높은 반면 800만원 이상은 제주 거주 지인을 통한 비율이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낮을수록 일자리·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의 비율이 높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의 경우 200만원 미만은 일자리·경제의 비율이 60.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집단은 일자리·경제와 주거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함

제5장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유입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추진과제

제5장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유입 방안

KRILA

제1절

기본방향

1. 추진과제의 이원화(two-track)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모든 핵심생산 연령인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추진과제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 설문응답자의 인식이 유사한 분야는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분야는 연령별 맞춤형 추진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와 맞춤형 추진과제를 구분하였음
 -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는 제주로의 이주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상이한 응답을 하고 있음
- 설문분석 결과 일자리·경제활동 분야가 모든 연령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정책분야로 나타났음
 - 첫째,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는 5.93점으로 교통·생활편의 분야(6.10점)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둘째, 교통·생활편의 분야는 연령대별로 이주 영향정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존재하는 반면,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는 유의확률 5% 이내에서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IPA)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만을 제시하고 있음

- 즉,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만족도는 매우 낮지만 타 지역 이주 시 중요도가 매우 높고 삶의 질 평가 시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주민구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추진과제에 적합한 정책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와 교통·생활편의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20대는 교통·생활편의 분야(6.21점)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높은 점수이며, 5% 유의확률 내에서 연령대별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20대는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도 6.04점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고 앞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경제활동 분야는 2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에서 제외하였음
 - 이러한 측면에서 2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교통·생활편의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한편 출산·보육 분야와 교육 분야에 대한 인식에서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맞춤형 추진과제를 검토하였음
 -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출산·보육 분야와 교육 분야에 대한 인식은 유의확률 1%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출산·보육 분야의 경우 30대가 5.56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3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출산·보육 분야를 중

심으로 검토하였음

- 교육 분야의 경우 40대가 5.79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40대의 맞춤형 추진과제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2. 관계·교류인구의 확대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주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제주 이주의향 및 이주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제주에 거주했던 경험과 제주에 친인척이 거주하는 경우가 제주로의 이주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제주에 친인척이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제주로의 이주의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제주를 경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Lee and Sugiura(2018)의 연구 등은 관계·교류인구의 존재 여부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에도 한동안 일정 기간 제주에 거주하는 ‘1달 살기’가 유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음

- 기존의 '1달 살기'가 단순한 휴식·휴양의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경제 활동과 연계된 관계·교류인구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 즉, 단기간 동안 제주에 거주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와의 관계성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교류인구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3. 지역 특성의 반영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주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단절되는 느낌이 있으며, 산업·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제주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인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과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대기업 유치 등과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잠재적 기업가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을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제2절 추진과제

1. 핵심 추진과제: 일자리·경제활동 분야

가. 스타트업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챌린지(가칭)

○ 추진배경

- 제주의 산업구조는 3차산업인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과 1차산업인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반면, 2차산업인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대기업 본사/공장 유치 등을 통한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사업을 유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스타트업 유치 및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스타트업 유치 정책이 필요함
- 스타트업의 낮은 생존율과 그로 인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문제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유지되는 쯤비기업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해외사례 1: 네덜란드 암스트레담의 스타트업 인 레지던스(Startup in Residence)¹⁸⁾

- ‘스타트업 인 레지던스’ 프로젝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연결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필수적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6개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임
- 정부 부처가 문제점을 정의하면(정의), 스타트업은 제안요청서를 제출함(공고)
- 정부는 함께할 스타트업 파트너를 인터뷰 후 선정하면(선정) 해결방안을 공동개발하고 운영 범위를 정함(협상)
- 6개월 동안 스타트업은 멘토가 지정되고, 2주에 한 번 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트레이닝을 받으며 시범운영함

18) <https://startupinresidence.amsterdam/>

- 6개월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낸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함

○ 해외사례 2: 대만 Suan-Lien 리빙랩(Living Lab)

-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정주환경 개선 아젠다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대안마련을 위한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추진
- 대만 Suan-Lien 리빙랩은 과학기술과 ICT를 대만의 고령화 문제에 접목시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 서비스 개발을 실험하는데 목적이 있음
- Suan-Lien 리빙랩은 이를 바탕으로 수면유도제품과 기억력 회복 게임 등 고령층 대상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함

○ 사업내용

- 제주도 내 기업, 창업센터, 대학,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해결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의하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형식의 공모사업을 진행함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단축된 시간 내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제주도 내 민관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스타트업은 전문가 멘토링, 지방정부와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계약 시 제주도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운영할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 제주도 정착 가능성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나. 육아연계형 위성사무실 지원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일하는 방식 변화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면서 원격근무 및 비대면근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에서도 NHN의 ‘수요 오피스’, SK텔레콤의 ‘거점 오피스’, SK이노베이션의 ‘오피스 프리’ 등의 원격근무·재택근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 공유오피스와 보육시설을 갖춰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의 사무실로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전반에서 시행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2년에 사회복지형 스마트워크 모델을 개발하고,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등이 스마트워크센터 내에 위치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임

○ 해외사례 1: 유럽의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

- 영국 런던의 ‘Third Door’는 육아 가능 코워킹 스페이스로, 육아서비스와 오피스시설 중 한 가지 혹은 모두 이용 가능함
- 오피스 시설(컴퓨터, 와이파이, 프린터, 전화, 탕비실 등)과 보육 서비스(야외 체육 활동, 교육프로그램, 돌봄제공자 교육, 평가 관리)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오피스 시설과 보육 서비스를 패키지로 이용할 경우 유연패턴(월간 30-135시간, 15시간 단위) 또는 고정패턴(주 1-5일)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피스 시설만 이용할 경우 최소 월간 25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음
- 정부 인증을 받은 공식 보육시설로 보육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식사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비와 서비스 대행(육아 식사, 카페 운영 등) 수수료로 수익을 확보함

○ 해외사례 2: 일본 도쿠시마현 카미야마정의 워크 인 레지던스 사업(위성사무소 사업)

- 위성사무소는 본사 기능을 분산시킨 사무실로, 주로 지방에서 운영되며 분사와 공유오피스의 성격이 혼합된 원격근무 형태의 일종임
- 지역 내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본사에서 임대사무실 형태로 활용함
- 위성사무실을 개설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위성사무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피스와 숙박시설에 대한 체험 서비스 기회를 제공함
- 그 결과 도쿠시마현 카미야마정에는 16개의 기업이 위성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10인 540여명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로 구성됨

○ 사업내용

- 제주도 내 빈집 또는 유휴공간을 아동·보육서비스가 연계된 공유오피스 시설과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이를 위성오피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의 기대효과

- 별도의 기업 어린이집을 제공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에 다니는 직원과 프리랜서들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함
-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 가정의 제주도로의 이주 또는 정주 인구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

다. 제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도입

○ 배경

- 설문분석 결과 제주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제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GI에서도 20-30대의 젊은층은 제주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1달 살기 경험 등으로 다시 제주로 이주하게 됐다고 설명함
- Lee and Sugiura(2018)의 연구에서도 고향에 부모의 집이 있는지의 여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제시하였음
-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주를 경험하고 평소에 제주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제주에서 단기 또는 중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타 지역의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함
- 사업내용: ① 제주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데 관심 있는 타 지역 사람을 대상으로 단기(주말 포함 2-3일) 또는 중기(2-3개월) 동안 일자리 제공, ② 지역 내 관련 인구(일자리, 교육, 문화 등)와의 네트워크 교류 기회 제공, ③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제주에 거주하면서 돌봄·교육·농업 등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④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탐방 및 지역 내 고용주·기업가·창업가 등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을 제공함

○ 해외사례

- 일본 미야자키현의 관계인구 창출 확대 사업, 미국 버몬트주의 Stay to Stay Weekend 프로그램,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가와정의 고향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예를 들어 버몬트주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근로 인력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를 확충하기 위해 버몬트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과 지역 내 고용주, 기업가, 장래 이웃 주민이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
- 버몬트주에 거주하면서 일하는데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리셉션, 버몬트주 지역탐방 그리고 고용주, 부동산업자,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

○ 기대효과

- 제주도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한 체험을 통해 향후 제주로의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음
- 도내 펜션, 호텔, 리조트와 연계를 통해 제주 워킹홀리데이 참여자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숙소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비수기 공실을 겪는 숙박 업체에 대한 지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버몬트주의 경우 2018년 Stay to Stay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140명의 참석자 중 10명이 버몬트주로 이주했으며, 36명이 추가로 버몬트 주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단일 수출전문기업 설립을 통한 제주 농가 경쟁력 강화¹⁹⁾

○ 추진배경

- 2015년 기준 제주도에 11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됨
- 유형별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71개로 가장 많으며, 업종별로는 농업·어업 및 임업 협동조합이 3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 협동조합의 문제점으로는 1) 소규모, 2) 적은 설립동의자 수, 3) 영세성, 4) 목적사업 모델 개발·이행 미흡, 5) 정체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고민 미흡 등이 있음

○ 해외사례: 뉴질랜드 '제스프리' 협동조합²⁰⁾

-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키위수출 단일창구 역할을 하는 수출전문회사로 2000년 설립되었으며, 주식회사이나 키위 재배농가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됨
- 제스프리는 키위 농가의 소유권을 제외한 운영, R&D, 마케팅 기능을 통합해 키위 공급사슬을 조직화하고 단일 창구로 외부 유통망이나 협력사에 강력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 결과, 전 세계에 키위 하나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팔며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키위시장 점유율 1위임
- 또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위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골든키위 등), 한국의 제주도에서도 신품종이 자라고 있음

19) 제주 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이 신청한 ICT융합 기반 주민참여 체감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사업이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음.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는 ICT 기술을 지역에 접목,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

2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45425>

○ 사업내용

-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수출, R&D 기능을 통합하여 도내 농가들이 참여하는 품종별 수출전문회사를 별도로 설립 및 운영함
- 마케팅, R&D 기능을 통합하여 공급사슬 조직화 및 브랜드 통합을 통해 과다·중복 마케팅 비용 절감 및 R&D 투자 강화를 통해 외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

○ 사업의 기대효과

- 브랜드 통합에 따른 자체 경쟁력 확대를 야기할 수 있음
- 판매 및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마. 제주사랑투자 프로젝트 도입

○ 추진배경

- 최근 창업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제주더큰내일센터 1년간 매월 150만원씩 실전 프로젝트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창업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주도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

-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가에게 '제주사랑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지원함
- 기부자는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의 성격을 지님
- 제주사랑투자 프로젝트에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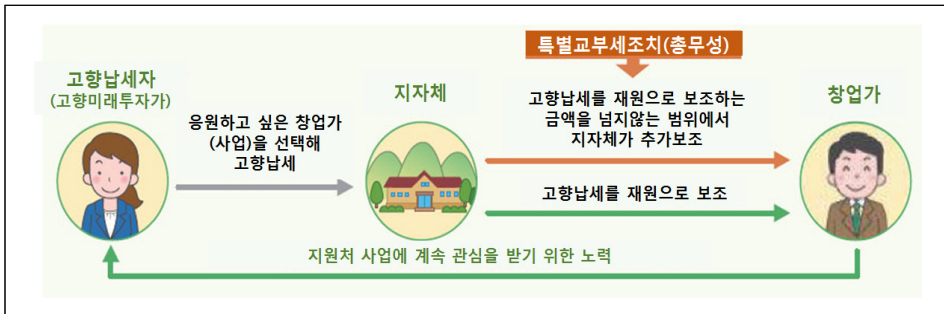
○ 해외 사례

- 일본 총무성의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가 있음
- 창업가의 사업설립 초기자금에 필요한 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를 보조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총무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제공함

○ 사업의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창업지원 촉진 및 지역 문제 해결과 함께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밖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를 도모함
- 기부금을 활용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주사랑투자 프로젝트” 모집을 통해 기부문화 양성을 도모
- 이러한 제주사랑투자 프로젝트는 문재인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운영될 수 있음
- 또한 제주도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제주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창업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으로써 관계·교류인구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음

[그림 5-1] 일본의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개요



자료: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support/).

2. 연령대별 맞춤형 추진과제

가. 20대 대상: 출·퇴근 시간대 차량공유 서비스 지원

○ 추진배경

- 교통·편의시설 분야는 특히 20대가 삶의 질과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에서도 시내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청년층 1인 가구가 많지만, 교통수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제주시 외곽 지역(삼양, 함덕, 하귀, 애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심지로 출·퇴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하며 도심지 내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음
- 현재 제주도는 현대캐피탈과의 협약을 통해 차량공유 서비스(수놓음카)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민보다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관광객이 아닌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인터넷 및 모바일 예약을 통해 출퇴근 시간(오전 6-10시, 오후 5-8시)에 공유차량을 이용하며,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예약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함
- 렌터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수놓음카 규모를 확대함
- 읍·면지역은 농협이나 주민센터 등에 차량공유 서비스 픽업존을 설치하고, 도심지역은 대형마트나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도내 거주자의 접근성을 제고함

○ 기대효과

- 차량을 구매할 여건이 안 되는 청년층에게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이는 청년층의 제주도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관광객에 의존하는 제주도 렌터카 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즉, 중국과의 외교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지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²¹⁾
- 그리고 현재 관광객 위주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민으로 확대하여 제주지역 차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30대 대상: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아동돌봄 정책의 초점은 주로 영유아 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취학 전 아동의 주 돌봄기관인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에 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09:00~13:00)이 짧은데서 오는 초등 방과후 돌봄의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초등자녀의 돌봄을 위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여성이 경력단절을 앓는다면 초등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자녀에 대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경력단절이나 사교육이 아니라면 초등학생이 밤늦게까지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형태의 방임이 발생하게 됨

21)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213,595대로 전국 렌터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렌터카의 평일 이용률 등을 파악하여 렌터카 업체와 출퇴근 시간 사용에 대한 연간 계약을 맺음으로써 렌터카의 효율적 이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2] 취학 후 돌봄 공백 현황



자료: 남승연·이병희(2018). 「오산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오산시.

- 현재 방과후 돌봄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 교실은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 학교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형태이지만, 공간 부족 및 돌봄전담사 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통해 1교실 당 10명~25명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수요가 없는 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²²⁾

○ 현황

- 2019년 제주도 1차 초등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²³⁾
- 2019년 1차 조사에서 106개교 5,874명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제주도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학생 수의 43%임
- 반면에 제주도의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은 2017년 100%에서 2018년 96%, 2019년 87.3%로 떨어지고 있음

22)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265>

2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49810800621076014>

- 현재 제주도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20년 5월 기준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를 모집 중에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초등돌봄교실 다음으로 많은 시설이 설립되어 있는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기관이지만,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해왔다는 제약점이 있음

[표 5-1] 제주특별자치도 돌봄서비스 현황

담당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근거법	초·중·고 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지원대상	초1~2학년 저소득층·한부모· 맞벌이 가정 자녀 중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중 희망학생	만6~12세 미만	만18세 미만	초4~중3학년
지원형태	교육비 지원대상은 무료, 그 외 가정은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 간식비는 별도 부담)	무상 (일부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	지원형(저소득층 무료지원) 일반형(수익자 부담)
운영시간	방과후~17시	여건에 따라 자율	14~19시(학기중) 12~17시(공휴일, 방학)	1일 5시간 내외 운영 (토요일, 방학 운영)
지원내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간제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방과후 아동 돌봄, 급식, 교과학습지도, 진로·특기적성지도, 문화체험활동,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체험활동,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급식, 귀가차량지원
운영단체 (정원)	63교 154실 (3,783명)	0곳 (0명)1)	65곳 (1,847명)	9곳 (360명)

주: 현재 제주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없으며, 2020년 5월, 제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모집 중임²⁴⁾

자료: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infoMap.do#submit>

○ 추진내용

- 제주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수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받아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 필요하며, 특히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임
- 이와 함께 여성커뮤니티공간,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란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대상 10종 시설에는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이 해당됨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아동돌봄시설과 여성 교육훈련기관의 연계·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통해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
- 특히 시·도지사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시간이나 지원내용 등에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형 방과후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그리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초등보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4)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44956>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윈스톱 여성직업훈련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취업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면접을 다니는 동안 자녀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시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아동돌봄시설이 한 건물에 설치된다면,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맞벌이 자격으로 자녀돌봄을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취업준비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자들이 자녀돌봄을 해당기관에 위탁하고 마음 편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될 수 있음

다. 40대 대상: 제주형 특성화 학교 확대·강화

○ 추진배경

- 2020년 2월 25일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²⁵⁾
- 2020년 2월 28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과 제90조에서는 과학, 예체능, 산업 관련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폐지하였음
- 다만, 동법 제91조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 내 특목고로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제주외고)와 제주과학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제주외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특수목적고 폐지방침에 따라 2025년 이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임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장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치·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법에 근거한 국제학교와 자율학교 등의 경쟁력을 강

2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955&ancYd=20200228&ancNo=30494&efYd=20250301 & 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955&ancYd=20200228&ancNo=30494&efYd=202503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함께 과학 및 예체능 관련 특목고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사례: 일본 아마정(海士町)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

-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마네현 아마정(海士町)은 학생 수 감소, 섬외 인구 유출, 교원 수 감소 등으로 유일한 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함
- 2010년 학교·지역 연계형 공립학원 '오키국 학습센터'를 설립(도전 고향 매력화 재단 운영)하고 '도전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2012년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섬 유학'을 시작함
- 다문화나 다양성을 고교 내에 도입하여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2015년 문부과학성의 슈퍼글로벌 하이스쿨로 지정되어 세계 8개국과 교류하고, 해외 연수 등의 교육환경을 갖추
- 지역 자원과 인재를 활용한 고교의 매력화 프로젝트는 현지 학생을 자극하고 섬 밖의 학생확보에도 이어짐

○ 추진내용 1: 국제학교 운영 내실화

- 현재 제주에는 4개의 국제학교(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노스런던컬리지 에잇스쿨 제주, 브랜섬홀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가 있음
- 이 중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브랜섬홀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는 JDC가 투자해 부지와 건물을 건립하고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한국국제학교(제주캠퍼스)는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를 건립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립)는 YBM에 위탁 운영하고, 고등학교(사립)는 YBM이 직접 자체적으로 투자해 운영 중임²⁶⁾
- 그러나 한국국제학교를 제외한 3개의 국제학교는 학생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²⁷⁾

26) <http://www.jeu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9>

27)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410043274276>

- 제주 국제학교 입학조건 및 학비(2020년 Year 13 수업료 및 기숙사비 기준)는 아래와 같음

[표 5-2] 제주 국제학교 입학조건 및 학비(2020년 Year 13 기준)

학교명	연간비용	입학조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39,925천원	국적 관련 자격조건은 없으며, 별도의 입학시험과 인터뷰를 거쳐야 함
브랭섬홀아시아	42,691천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	39,376천원	
한국국제학교(제주캠퍼스)	59,660천원	

주 1: <https://korean.nlcsjeju.co.kr/840/-/>

2: <https://www.branksome.asia/bhaadmissions/admissions-process>

3: <https://www.sjajeju.kr/admissions/tuition-fees>

4: http://kis.ac/page_RQHn34

- 다른 지역의 특목고들이 폐지될 경우 제주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함
- 비싼 학비로 인한 정원 미달, 귀족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추진내용 2: 제주형 특성화 학교 확대

- 표선고는 공립학교 최초로 2022년부터 2년간 고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IB DP(고교과정)를 운영하게 되며, IB²⁸⁾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적용받음
- 다함디배움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직원이 다함께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학교로 배려와 협력 중심의 교육공동체

28)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은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공적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가 주관하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이며, 1986년 프랑스의 대입시험으로 외교관 자녀를 위한 시험으로 개발되어 현재 전세계 46개국 3,700여개 학교에서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음(<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ad93&logNo=221579416092>).

를 중시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새로운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공교육 혁신모델이며, 2020학년도 현재 제주도 내 44개교(초 30개교, 중 12개교, 고 2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음

- 예술중점학교로 미술과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애월고등학교가 2020학년도 입시에서 미술과 재적 학생 39명 중 17명이 수도권 내 상위 대학에 수시 합격하였으며,²⁹⁾ 애월고등학교의 제주형 미술 특수목적고의 모델 창출 사례를 통해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됨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향후 특목고가 폐지될 경우 국제학교 및 제주형 특성화 학교의 차별화 된 운영을 통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제주로 유입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 가정의 제주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3. 기타: 전문직 연구인력을 활용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 하지만 많은 해외 사례에서 인프라 투자, 패스트 트랙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아마존은 본사 후보지 조건으로 대형 공항과의 접근성과 교통

29)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009>

요지, 직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교육 기관(대학) 보유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기업 특성화학과 설립 등을 통해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음(SK 하이닉스-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등)
- 국내외 교수, 연구원 등 전문직 연구인력의 휴가·안식년 등을 유치하고, 이 기간 동안 제주도 내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진함

○ 해외사례: 핀란드 알토대의 오픈 플랫폼 전략

- 핀란드 알토대는 세계 석학에게 2주 휴가를 지내면서 강의를 할 경우 관련 비용 지원을 제안하고 초청함
- 해당을 바탕으로 학생 모집 공고를 진행한 결과 세계적인 석학의 초빙 수업을 듣기 위해 전 세계 학생들이 핀란드로 몰려옴
- 오픈 플랫폼 전략을 통해 알토대의 MBA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한국에서도 eMBA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사업내용

- 국내·외 교수, 연구원 등이 제주로 연구년/안식년/휴가를 올 경우, 계절학기 강의(교수) 진행 또는 연구과제(연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받음
- 이러한 강의 및 연구과제 참여를 조건으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숙박(일부), 왕복 항공권, 연구공간, 조교 등 연구 및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강의를 진행할 경우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기대효과

- 제주도 대학 수업의 질 강화 및 제주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내외 석학들의 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교수 및 연구원들이 제주를 방문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생활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해 잠재적 이주인구(관계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음

- 고태호. (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주연구원.
- 김동영·이중섭·조경옥·황영모. (2016).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1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vol. 12.
- 김정태·신동호. (2018).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만족수준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효과. 「농촌계획」, 24(2): 1-13.
- 김현호·박진경. (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9-8.
- 남승연·이병희(2018). 「오산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오산시.
- 박시현. (2010). 「일본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귀농·귀촌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 출장보고서.
- 박진경·김상민. (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8-34.
- 박진경·김현호. (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9-16.
- 보건복지부. (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서울디지털재단. (2020).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 -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 2020-02호.
- 성지은·한규영·김준한. (2017). 「국내외 보건의료 리빙랩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과 이슈 제36호.

- 이나영. (2012). 대학급식소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한 IPA 분석: 대전지역 남학생과 여학생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1(2): 389-405.
- 임병호·금기반·이시영. (2012). 대전시민의 세종시로 이주의향 및 이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3): 107-124.
- 임정빈·최재녕·홍근석. (2012).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통한 삶의 질과 지역이주 간의 관계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3): 217-242.
- 주효진·조주현. (2012).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서브퀄(SERVQUAL)과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기법의 적용,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143-166.
- 제주특별자치도. (2018). 「2018 제주사회조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2019). 「제주경제동향(2019.10월호)」.
- 최정신·황정임·최윤지·한송희. (2018). 농촌지역 청년층의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역생활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1(4): 195-211.
- 최현호·손지강·정효윤·이호승·노지은. (2018).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북행정평가연구원.
- 최흥규. (2009).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신뢰, 이주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179-200.
- 한국감정원. (2019).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2018년 동향 및 2019년 전망」.
- 홍근석·김봉균. (2019).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Dumont, J.-C., G. Spielvogel and S. Widmaier. (2010). International Migrants in Developed,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xtended Profil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14.

- Lee, Y. J., and H. Sugiura. (2018). Key factors in determining internal migration to rural areas and its promoting measures? A case study of hirosaki city, aomori prefecture. *Public Policy Review*, 14(1): 153-176.
- Masuda, H. (2014). *Chihō shōmetsu: Tokyo ikkyoku shūchū ga maneku jinkō kyūgen*(The Disappearance of the Region: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brought on by Mono-Polar Concentration in Tokyo). Chuokoron-shinsha.
- Martilla, J. A., and J. C. James.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Oh, Haemoon. (2001).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2: 617-627.
- World Economic Forum. (2017). Migration and Its Impact on Cities.